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9-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김대중·최은진·권진·심정묘·김보은

【책임 연구자】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의약품 마스크(보건용, 수술용)의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공저)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공저)

【공동 연구진】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심정묘 수성대학교 교수

김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김대중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문신 및 반영구화장 개요	9
제1절 문신 개요	1
제2절 반영구화장 개요	32
제3절 문신으로 인한 피부질환 및 감염과 위생관리	8 2
제3장 공급자 실태조사 결과	3 3
제1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 실태조사 결과	5 3
제2절 문신 염료 및 기기 질적 조사 결과	6 6
제3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 수 추정	6 7
제4장 수요자 실태조사 결과	1 8
제1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상담 신고(소비자원) 사례분석	3 8
제2절 수요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2 9
제5장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실태 해외 사례 조사	351
제1절 문신 시술 인구 통계	5
제2절 미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951
제3절 호주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861
제4절 영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371
제5절 프랑스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871
제6절 태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081

제6장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방안	181
제1절 제안 배경	18
제2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관련 선행 입법안 분석	2·9 1
제3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를 위한 입법 방안 마련	0·0 2
참고문헌	203
별첨	207
부록	239

표 목차

<표 2-1> 문신 시술 절차	2	1
<표 2-2> 반영구화장 시술 절차	5	2
<표 2-3> 니들의 종류	6	2
<표 2-4>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장비와 재료 차이	7	2
<표 2-5>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2	3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	3
<표 3-2> 활동 분야	6	3
<표 3-3> 전업 여부 및 활동 경력	7	3
<표 3-4> 비전업인 경우 직업	7	3
<표 3-5> 문신 기술을 배우게 된 동기	8	3
<표 3-6> 문신 관련 소속 협회의 유무	8	3
<표 3-7> 문신업소 운영 여부	8	3
<표 3-8> 사업자 등록 여부	8	3
<표 3-9> 사업자 등록 분야	9	3
<표 3-10> 한 달 평균 문신 시술 건수	9	3
<표 3-11> 한 달 평균 문신 시술 건수 (전업인 경우, N=95)	0	4
<표 3-12> 시술 당 가격(명함 사이즈 가격 기준)	0	4
<표 3-13> 연평균 매출액	0	4
<표 3-14> 연평균 매출액 (전업인 경우, N=95)	0	4
<표 3-15> 주된 문신 시술 장소	1	4
<표 3-16> 주된 문신 시술 장소의 사업자 등록 여부	1	4
<표 3-17> 경찰, 보건소, 구청 및 민생사법경찰의 단속 및 처벌 경험	1	4
<표 3-18> 문신용 색소의 환경부 허가 여부	2	4
<표 3-19> 문신용 색소 구입 경로	2	4
<표 3-20> 문신용 색소 선택기준	2	4
<표 3-21> 문신용 색소 원산지	2	4
<표 3-22> 사용 중인 문신용 머신의 의료기기 2등급 허가 여부	3	4
<표 3-23> 문신 머신의 구입 경로	3	4
<표 3-24> 문신 머신의 선택 기준	3	4
<표 3-25> 문신 머신의 원산지	3	4

〈표 3-26〉	문신 시술 관련 세척기(소독기)의 보유율 및 관리(청소) 주기	4	4
〈표 3-27〉	운영 실태	5	4
〈표 3-28〉	직무 관련 소독 위생 등 안전 관리 교육 경험	6	4
〈표 3-29〉	질병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경험	6	4
〈표 3-30〉	문신 시술 관련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	6	4
〈표 3-31〉	문신 관련 교육 수강 여부	7	4
〈표 3-32〉	문신의 교육 형태	7	4
〈표 3-33〉	가장 효과적인 문신의 교육 형태	7	4
〈표 3-34〉	문신 교육 기간(개월 수)	7	4
〈표 3-35〉	문신 교육 기간(시간)	7	4
〈표 3-36〉	문신 시술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8	4
〈표 3-37〉	타인에게 문신 시술 교육 실시 여부	8	4
〈표 3-38〉	문신 관련 자격증 신설에 대한 의견	8	4
〈표 3-39〉	반영구화장 관련 자격증 신설에 대한 문신 시술자의 의견	8	4
〈표 3-40〉	문신 시술 자격 신설 시 자격 부여 주체에 대한 의견	8	4
〈표 3-41〉	문신 시술의 허가제/신고제에 대한 의견	9	4
〈표 3-42〉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 허용 관련 본인의 의견	9	4
〈표 3-4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0	5
〈표 3-44〉	활동 분야	0	5
〈표 3-45〉	전업 여부 및 활동 경력	1	5
〈표 3-46〉	비전업인 경우 직업	1	5
〈표 3-47〉	반영구화장 기술을 배우게 된 동기	1	5
〈표 3-48〉	반영구화장 관련 소속 협회의 유무	1	5
〈표 3-49〉	반영구화장 업소 운영 여부	2	5
〈표 3-50〉	반영구화장 업소 사업자 등록 여부	2	5
〈표 3-51〉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사업자 등록 분야	2	5
〈표 3-52〉	주된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의 사업자 등록 여부	2	5
〈표 3-53〉	한 달 평균 반영구화장 시술 건수	3	5
〈표 3-54〉	한 달 평균 반영구화장 시술 건수 (전업인 경우, N=179)	3	5
〈표 3-55〉	주로 시술하는 반영구화장의 종류	3	5
〈표 3-56〉	반영구화장 시술 당 가격의 분포	3	5

<표 3-57>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연평균 매출액	4	5
<표 3-58>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연평균 매출액 (전입인 경우, N=179)	4	5
<표 3-59>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	4	5
<표 3-60> 경찰, 보건소, 구청 및 민생사범경찰의 단속 및 처벌 경험	4	5
<표 3-61> 반영구화장용 색소의 환경부 허가 여부	5	5
<표 3-62> 반영구화장용 색소 구입 경로	5	5
<표 3-63> 반영구화장용 색소 선택기준	5	5
<표 3-64> 반영구화장용 색소 원산지	5	5
<표 3-65> 사용 중인 반영구화장용 머신의 의요기기 2등급 허가 여부	6	5
<표 3-66> 반영구화장 머신의 구입 경로	6	5
<표 3-67> 반영구화장 머신의 선택 기준	6	5
<표 3-68> 반영구화장 머신의 원산지	6	5
<표 3-69>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세척기(소독기)의 보유율 및 관리(청소) 주기	7	5
<표 3-70> 반영구화장 운영 전반	8	5
<표 3-71>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직무 관련 소독 위생 등 안전 관리 교육 경험	8	5
<표 3-72>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질병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경험	8	5
<표 3-73>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도	9	5
<표 3-74> 반영구화장 관련 교육 수강 여부	9	5
<표 3-75> 반영구화장의 교육형태- 반영구	9	5
<표 3-76> 반영구화장 교육받은 개월 수	9	5
<표 3-77> 반영구화장 교육받은 시간	0	6
<표 3-78>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0	6
<표 3-79> 타인에게 반영구화장 시술 교육 실시 여부	0	6
<표 3-80> 반영구화장 자격증 신설에 대한 의견	0	6
<표 3-81> 문신 관련 자격증 신설에 대한 반영구시술자의 의견	1	6
<표 3-82>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 신설 시 부여 주체에 대한 의견	1	6
<표 3-83> 반영구화장 시술의 허가제/신고제에 대한 의견	1	6
<표 3-84>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 관련 본인의 의견	1	6
<표 3-85> 문신용 염료업체 관계자들의 면담으로 도출된 허가 및 무허가제품 생산	6	6
<표 3-86> 반영구화장 염료완제품 생산방식	8	6
<표 3-87> 주요 유해물질의 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물질 등급	0	7

〈표 3-88〉 업체별 유통구조	4	7
<표 3-89> 자료 조사 협조 요청 단체	8	7
<표 3-90> 자료 조사 협조 요청 결과	8	7
〈표 4-1〉 문신 / 반영구화장 관련 상담건수	3	8
〈표 4-2〉 문신 / 반영구화장 상담사례 유형별 현황	5	8
〈표 4-3〉 문신 / 반영구화장 상담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6	8
〈표 4-4〉 예약(계약) 관련 상담내용의 분석결과	7	8
〈표 4-5〉 시술 관련 상담내용의 분석결과	9	8
〈표 4-6〉 비용 관련 상담내용의 분석결과	0	9
〈표 4-7〉 조사개요	2	9
〈표 4-8〉 모집단(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2	9
〈표 4-9〉 표본할당	3	9
〈표 4-10〉 조사완료	3	9
〈표 4-11〉 가중치 적용 예시	4	9
〈표 4-12〉 수요자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표(전체)	5	9
<표 4-13〉 문신 및 반영구화장 경험	6	9
〈표 4-14〉 가장 최근 문신 실시	8	9
<표 4-15〉 지금까지 문신 실시 횟수 (1-6회)	9	9
<표 4-16〉 현재까지 실시한 문신의 부위별 빈도수	0	1
〈표 4-17〉 현재까지 실시한 문신의 부위별 회당 지출 비용	2	1
〈표 4-18〉 문신 정보 획득 경로	3	1
<표 4-19〉 문신 시술시기 (N=171)	4	1
〈표 4-20〉 문신 시술 장소	5	1
〈표 4-21〉 문신 병·의원 시술자	5	1
〈표 4-22〉 문신 시술자 선택기준	6	1
〈표 4-23〉 문신 시술 후 만족도	7	1
〈표 4-24〉 문신 후회 이유 (사례수=16)	9	1
〈표 4-25〉 문신 시술 불만족 대처법 (사례수 N=16)	9	1
〈표 4-26〉 문신 시술기관 및 시술자에 대한 경험 (사례수 N=171)	1	1
〈표 4-27〉 문신 시술 부작용 경험여부 (사례수 N=171)	2	1
〈표 4-28〉 문신 시술 부작용 경험여부 (사례수 N=31)	3	1

〈표 4-29〉 문신 시술 부작용 세부 증상	3-1 1
〈표 4-30〉 부작용 치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여부 (사례수 N=31)	4-1 1
〈표 4-31〉 문신 경험자들의 문신 시술 인식	4-1 1
〈표 4-32〉 문신 경험자들의 비용 인식	6-1 1
〈표 4-33〉 향후 문신 시술 의향	6-1 1
〈표 4-34〉 문신 시술 의향 없는 경우 안전 관리 강화 시 시술 의향	7-1 1
〈표 4-35〉 문신 시술 추천 의향	7-1 1
〈표 4-36〉 문신 시술하기 좋은 장소	8-1 1
〈표 4-37〉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대한 인식	9-1 1
〈표 4-38〉 가장 최근 반영구화장 실시	10-2 1
〈표 4-39〉 지금까지 반영구화장 실시 횟수 (1-6회)	1-2 1
〈표 4-40〉 현재까지 실시한 반영구화장의 부위별 빈도수	3-2 1
〈표 4-41〉 현재까지 실시한 반영구화장의 부위별 회당 지출 비용	4-2 1
〈표 4-42〉 반영구화장 정보 획득 경로	4-2 1
〈표 4-43〉 반영구화장 시술계기 (N=316)	6-2 1
〈표 4-44〉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	6-2 1
〈표 4-45〉 반영구화장 병·의원 시술자	7-2 1
〈표 4-46〉 반영구화장 시술자 선택기준	7-2 1
〈표 4-47〉 반영구화장 시술 후 만족도	9-2 1
〈표 4-48〉 반영구화장 후회 이유 (사례수=13)	10-3 1
〈표 4-49〉 반영구화장 시술 불만족 대처법 (사례수 N=13)	1-3 1
〈표 4-50〉 반영구화장 시술 불만족 대처법 (사례수 N=316)	2-3 1
〈표 4-51〉 반영구화장 시술 부작용 경험여부 (사례수 N=316)	3-3 1
〈표 4-52〉 반영구화장 시술 부작용 경험여부 (사례수 N=33)	4-3 1
〈표 4-53〉 반영구화장 시술 부작용 세부 증상	4-3 1
〈표 4-54〉 부작용 치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여부 (사례수 N=33)	5-3 1
〈표 4-55〉 반영구화장 경험자들의 반영구화장 시술 인식	5-3 1
〈표 4-56〉 반영구화장 경험자들의 비용 인식	6-3 1
〈표 4-57〉 향후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	7-3 1
〈표 4-58〉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 없는 경우 안전 관리 강화 시 시술 의향	7-3 1
〈표 4-59〉 반영구화장 시술 추천 의향	8-3 1

〈표 4-60〉 반영구화장 시술하기 좋은 장소	8·3·1
〈표 4-61〉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대한 인식	9·3·1
〈표 4-62〉 반영구화장 시술 개선점	1·4·1
〈표 4-63〉 문신 시술 인식	241
〈표 4-64〉 문신 시술 의향	341
〈표 4-65〉 문신 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 이유	4·4·1
〈표 4-66〉 문신 시술 의향이 있는 시술 장소	5·4·1
〈표 4-67〉 문신 시술 의향이 없는 경우 이유	5·4·1
〈표 4-68〉 공공기관 위생안전 관리 시 시술 의향	6·4·1
〈표 4-69〉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	6·4·1
〈표 4-70〉 반영구화장 시술 인식	7·4·1
〈표 4-71〉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	8·4·1
〈표 4-72〉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 이유	9·4·1
〈표 4-73〉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이 있는 시술 장소	0·5·1
〈표 4-74〉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이 없는 경우 이유	0·5·1
〈표 4-75〉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 위생안전 관리 시 시술 의향	1···5···1
〈표 4-76〉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	1···5···1
〈표 5-1〉 전 세계 주요 국가 문신 시술률	6·5·1
〈표 5-2〉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금지	0·6·1
〈표 5-3〉 주별 문신 면허 법	061
〈표 5-4〉 Safe Body Act 규정 구성	361
〈표 5-5〉 THRS 등급 기준	571
〈표 6-1〉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방안	4·8·1
〈표 6-2〉 문신 및 반영구화장 업무범위	5·8·1
〈표 6-3〉 미용사 시험과목	681
〈표 6-4〉 업소 개설향 체크리스트 (안)	8·8·1
〈표 6-5〉 문신업 및 문신사 면허 신설 관련 법률안	2·9·1
〈표 6-6〉 오제세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2·9·1
〈별표 1-1〉 이.미용사의 업무범위	7·0·2
〈별표 1-2〉 이.미용사의 면허신청서 첨부서류	8·0·2
〈별표 1-3〉 이.미용사 면허 신청 조건	8·0·2

〈별표 1-4〉 이.미용사 면허 취소	902
〈별표 2-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012
〈별표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3.19.>	112
〈별표 3-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31.>	112
〈별표 5-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122
〈별표 6-1〉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322
〈부표 1-1〉 염료 정리(환경부 초록누리)	932
〈부표 2-1〉 의료용 체내 표시기(문신기)	76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8
[그림 2-1]	문신용 기기 - 코일 문신 머신 및 펜 타입 문신 머신	3..... 1
[그림 2-2]	문신용 기기 - 바늘	4..... 1
[그림 2-3]	문신용 기기 - 그림	4..... 1
[그림 2-4]	문신용 기기 - 팁	5..... 1
[그림 2-5]	문신용 기기 - 전사지	5..... 1
[그림 2-6]	문신용 기기 - 전사프린터	6..... 1
[그림 2-7]	문신용 기기 - 스킨 펜	6..... 1
[그림 2-8]	문신용 기기 - 전사 용제	6..... 1
[그림 2-9]	문신용 기기 - 라이트 박스	7..... 1
[그림 2-10]	문신용 기기 - 자외선 살균기	7..... 1
[그림 2-11]	문신용 기기 - 멸균기	7..... 1
[그림 2-12]	문신용 기기 - 위생 장갑	8..... 1
[그림 2-13]	문신용 기기 - 청소 솔	8..... 1
[그림 2-14]	문신용 기기 - 보호 커버	9..... 1
[그림 2-15]	문신용 기기 - 봉대 및 일회용품	9..... 1
[그림 2-16]	문신용 기기 - 비누 및 소독제	0..... 2
[그림 2-17]	문신용 기기 - 의료 폐기물 통	0..... 2
[그림 2-18]	문신용 기기 - 일반 소모품	1..... 2
[그림 2-19]	문신용 기기 - 잉크 컵	2..... 2
[그림 2-20]	문신용 기기 - 컵 받침	2..... 2
[그림 2-21]	문신용 기기 - 연고 및 로션	2..... 2
[그림 3-1]	문신 시술 관련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	6..... 4
[그림 3-2]	문신 시술자의 일반적 현황	2..... 6
[그림 3-3]	문신 시술자의 동기(좌: 문신 / 우: 반영구화장)	3..... 6
[그림 3-4]	문신 시술을 주로 실시하는 장소	3..... 6
[그림 3-5]	세척기/소독기 운용 현황	4..... 6
[그림 3-6]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	5..... 6
[그림 3-7]	문신 시술 관련 자격증 신설 및 자격부여 주체에 대한 인식	5..... 6
[그림 3-8]	자가검사 표시 예시	3..... 7



[그림 4-1]	2016~2018년 발생한 상담사례 유형별 비율	5	8
[그림 5-1]	유럽연합국 평균 문신율	6	51
[그림 5-2]	THRS 인증서	4	71
[그림 6-1]	유럽연합 유해성분 규제	9	81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문신 및 반영구화장 기술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기술을 말한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깊이에 어떤 색소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으로 구분하며, 문신의 유지 기간이 달라지고 색상의 명도나 채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반영구 기계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층이나 진피 상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을 반영구화장이라 한다면, 진피까지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 전통적인 문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문신은 그림이나 표시가 영구 지속될 수 있는 반면, 반영구화장은 주로 얼굴(눈썹, 눈초리, 입술)에 시술하는 것으로 6개월~3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색소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접촉하는데 바늘의 운동과 시술자가 가하는 적절한 압력에 의해서 색소가 피부 내에 침착된다. 색소가 피부 내에 삼입이 되면서, 색소의 구성 성분 중 일부는 신체에 흡수되므로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반영구화장의 정확한 지속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970년대~1980년대부터 문신의 단점인 영구성을 보완하여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문신 기술을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문신 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들은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위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타투협회에서는 연간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건수가 650만 건(반영구화장 600만 건, 문신 5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만 해도 전업자 수 기준 반영구화장 100,000명, 문신 5,000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보건향상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는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시술인에 대한 자격을 합법적으로 부여하고, 시술 장소, 시술 기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론 또한 존재한다.

국회에서는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위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2007년 김춘진 의원 “공중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3년 12월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법”, 2019년 11월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공중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금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의 경우 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식하고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하였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이 판례는 2018년 11월 14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로, 의사 면허 없이 문신을 하여 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Takaaki Nagase)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만 엔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바늘이 부착된 시술 용구를 사용하여 사람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일본 의사법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업의 내용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각 국가에서는 엄격한 안전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문신사에 대한 허가, 문신업의 개업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이러한 규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스턴 공중보건위원회(Boston Public health commission)의 보디아트 규정(Body art regulations)에서는 보디 피어싱, 문신, 미용 목적의 문신/영구 화장술, 미세색소주입술, 마이크로블레이딩, 낙인, 그리고 스컬리피케이션을 시술하고자 하는 시술자는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①최소 교육 요건과 경력요건 그리고 ②작업장소, ③일회용 물품에 대한 요건 ④소독 및 살균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보건 안전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문신, 피어싱, 전기 분해 요법 면허를 등

록하여야 하고, 지방 의회에 등록하지 않고 문신 시술자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신 시술자가 자택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문신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며, 허가받은 문신 시술소라도, 그 장소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 연구는 이미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문신 시술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문신 시술의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추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문신 시술과 관련한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신 시술을 전통적인 문신과 반영구화장으로 구분하여 문신 시술을 하는 공급자의 현황과 소비자의 문신 시술과 관련된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한다. 안전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문신 시술자의 최소 교육 요건과 경력요건, 문신 시술 작업 장소, 일회용 물품에 대한 요건, 소독 및 살균 방법과 절차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규정들을 살펴보고, 향후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이 허용될 경우 최소한도로 지켜져야 할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문헌 고찰

문헌 고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 기존 개정 및 제정 논의, 공청회 자료 등 국내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문신 자격제도 및 관리현황을 포함한 주요국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제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국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공급자 및 수요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2. 문신 및 반영구화장 공급자 실태조사

문신 및 반영구화장 공급자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성별, 학력, 활동지역, 전업여부, 활동경력, 기술을 배우게 된 동기를 포함한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일반적 특성, 둘째, 업소 운영 여부(직접 운영, 프리랜서, 기타), 사업자 등록 여부, 시술 장소(미용 시설, 원룸/오피스텔, 병·의원, 출장 등), 단속 및 처벌 경험을 포함한 시술 관련 제반 환경, 셋째, 시술 가격, 연평균 매출액, 한 달 평균 시술 건수 등, 넷째, 색소 구입 경로, 색소 선택기준, 색소 원산지, 머신의 구입 경로, 머신 선택기준, 소독기 보유율 및 관리 주기를 포함한 재료 및 기기 관련 사항, 다섯째, 시술 전 동의서 작성 여부, 일회용 폐기물 처리 방법,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 튜브와 바늘대의 멸균, B형 간염 예방접종, 세척 및 소독실의 별도 운영, 대기실과 시술 공간 분리 여부, 국내 문신용 염료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국내 마취제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국내 문신용 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도 등 시술 서비스 관련 사항, 여섯째, 자격증 신설에 대한 시술자의 의견을 묻는 교육 및 자격증 관련 사항이다.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 수 및 시술자(공급자)수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시술자 수, 지난 1년 동안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은 사람의 수와 하루 평균 시술 대상자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둘째, 문신 및 반영구화장 관련 협회 회원 리스트를 이용한 추정 방법, 셋째, 문신 시술 용구 재료상을 통해 파악한 시술자수 추정이다.

공급자 대상 실태조사지를 개발한 후 국내의 문신 시술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조사

독려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반영구화장 기술자는 2019년 11월 12일 ~ 2019년 12월 2일, 문신 기술자는 2019년 11월 12일 ~ 2020년 2월 5일이었다. 연구조사의 응답표본은 문신 관련 171건, 반영구화장 관련 628건이었다.

3. 한국소비자원 신고 문신 및 반영구화장 부작용 사례 분석

한국소비자원 신고 현황(건수, 신고대상 연령 및 직업, 부작용 내용 등)과 소비자원의 안전실태조사 결과, 문신 부작용 등 위해 사례 77건을 분석하였다.

4. 문신 및 반영구화장 수요자 실태조사

문신 및 반영구화장 수요자 실태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술 횟수, 시술 부위별 회당 지출 비용을 포함한 문신 및 반영구화장 경험, 둘째, 정보 획득 경로, 시술 계기, 시술 장소, 시술자 선택 기준, 셋째, 시술 후 만족도, 후회 이유, 불만족 대처법, 넷째, 경험 여부, 부작용 세부 증상, 병·의원 방문 여부를 포함한 부작용 및 피해경험, 다섯째, 시술 경험자들의 시술 인식, 향후 시술 의향, 안전 관리 강화 시 시술 의향, 시술 추천 의향, 무면허 처벌에 대한 인식이다.

수요자 대상 실태조사는 일반 국민 1,000명 대상(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 선정 후 웹 설문 구축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11월 20일 ~ 2019년 11월 28일이었다.

문신용 염료 제조 및 수입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질적 조사를 하였다. 문신용 염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제조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 중심으로 현황 파악하고, 문신 염료 및 기기에 대한 제조, 수입, 유통에 관한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하였다.

5. 주요 외국의 문신 시술 관리 사례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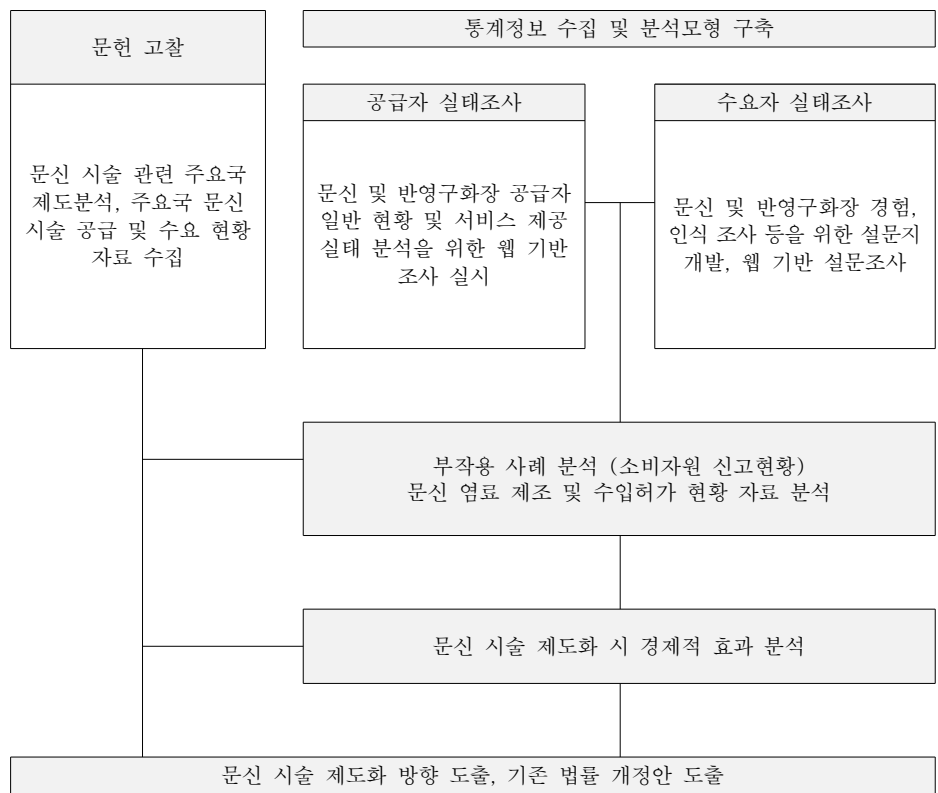
호주,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 제도발전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내용은 첫째,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소관 기관, 둘째, 규제 위반 사례

및 정부 기관의 대응 방식, 셋째, 국가별 사례를 중심으로 차이점 등 비교이다.

6. 문신 기술 제도화 방향 도출

문신 기술 제도화 방향 도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설허가제(또는 신고제), 시설기준, 시설 갱신 주기 등 문신 기술 업소 관리 방안이다. 둘째, 면허 자격, 보수교육 등 문신 기술자 자격관리 방안이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안전성 모니터링 문신 기술 염료관리 방안, 넷째, 기술 절차, 멸균 방법, 보호장비 착용, 혈액 매개 질병 예방, 폐기물 처리 등 문신 기술 용구 소독 등 위생관리 방안이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제 2 장

문신 및 반영구화장 개요

제1절 문신 개요

제2절 반영구화장 개요

제3절 문신으로 인한 피부질환 및 감염과 위생관리

2

문신 및 반영구화장 개요 <

<

제1절 문신 개요

1. 이론적 개념 및 정의

가. 문신의 역사

지금까지 다양한 변천사를 가지고 있는 문신은 BC4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으며 문신(Tattoo)의 어원은 폴리네시아어인 “Tatua” 즉 “Artistic”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문신은 주로 종교의식과 관련된 주술적 상징으로 표현되었고, 관습으로 내려오는 몸치장과 관련된 장식예술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최근에는 문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자기를 표현하는 개성의 표현 기호로 문신이 기능하고 있으며, 또한 미용 분야까지 적용되어 눈썹, 아이라인, 입술 화장의 시간을 단축하고, 운동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편리성 등으로 인해 화장술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구분하여 현재의 절에서는 문신을 중심으로 시술 절차와 시술에 사용되는 용품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 문신의 정의 및 시술 절차

전통적인 문신은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의 예술적 표현을 강조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수용성 색소를 피부 진피층까지 깊게 침투 시켜 시술함으로써 컬러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표현하여 영구적인 자국을 남게 한다.

문신의 시술 절차는 시술 준비를 위해 도안을 선택하고, 신체의 작업 부위를 소독한 뒤 전사한다. 전사 후 문신 머신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데 이때 피부에 손상을 주며 출혈과 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색소가 영구히 고정되기 위해서는 시술 후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시술자의 솜씨가 좋고, 사용되는 장치와 바늘 및 색소의 품

질이 높을수록 염증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며, 치유 및 재생을 향상시킨다.¹⁾

<표 2-1> 문신 기술 절차

구분	제목	내용	운영
준비	디자인	기술실과 별도 운영	도안의 선택과 카피
	독립적인 공간운영	밝은 조명과 백색계열의 인테리어	
	기술준비	도안의 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및 작업 부위 상태 확인 작업 부위를 소독한 뒤 전사
	장비세팅	장비의 점검 및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들이 팀에서 빠져나오는 상태 확인 니들의 흔들림이나 정속성 확인 사용할 잉크의 오염 여부 확인
기술	기술	고객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출혈 여부와 피부상태
마무리	후처리	작업 부위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 부위의 청결과 소독 바세린이나 상처관리 용제로 사용 작업 부위 처리 및 보호

2. 문신용 기기 및 용품의 이해

문신이 완성되기까지는 문신 기술자의 기술 역량과 그것을 받쳐 줄 안전하고 성능 좋은 다양한 장비와 물품들이 필요하다. 문신용 기기 및 용품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문신 머신과 전력 공급 장치, 바늘 등 구동 용품, 2) 도안을 피부에 옮기도록 돕는 전사 용품(Stencil Supplies), 3) 자외선 살균기, 위생장갑, 의료 폐기물 통, 보호 장갑 등 위생용품(Sanitary Supplies), 4) 문신용 잉크, 일반 소모품(General Supplies) 등이다.

문신 머신은 의료용 체내표시기로 분류되는 의료기기이며, 문신용 니들은 일회용 천 자침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 모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식약처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마취 크림 또한 약국에서 구입하는 제품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유통할 수

1) 오용태, 타투이스트. 도서출판 한수

있는 제품이다. 만약 불법적으로 유통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가. 구동 용품(Drive Su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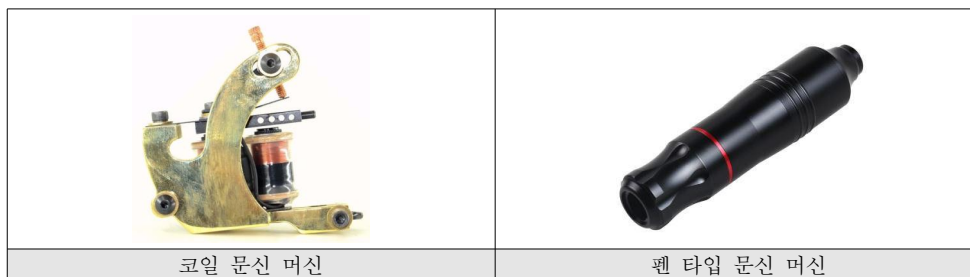
구동 용품은 문신 머신(Tattoo Machine), 전력공급 장치(Power supply), 바늘, 그립, 팁 등 문신 머신과 조합을 이루어 시술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장치와 용품들이다. 타투 머신은 니들(바늘)을 장착하여 왕복운동을 시켜 피부에 직접적으로 염료를 주입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로서 코일 타입 머신, 로터리 타입 머신, 펜 타입 머신이 있다²⁾. 최근에는 펜 타입 문신머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코일 머신과 로터리 머신의 차이는 니들의 왕복운동을 코일의 전자석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과 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그립을 고정하고 니들을 세팅 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기존 문신머신(코일 및 로터리 방식)은 머신의 본체와 그립과 니들을 하나하나 결합하여 세팅하고 소독과정을 거친 후 사용한다. 특히 시술자의 성향에 따라 사용하는 니들의 종류(보통 2~3가지)별로 여러 대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장비의 소독과 위생관리가 쉽지 않았다.

펜 타입 문신머신은 머신과 그립, 니들과 팁을 각각 하나로 묶어 머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니들은 일회용으로 세팅의 번거로움은 없애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그림 2-1] 문신용 기기 - 코일 문신 머신 및 펜 타입 문신 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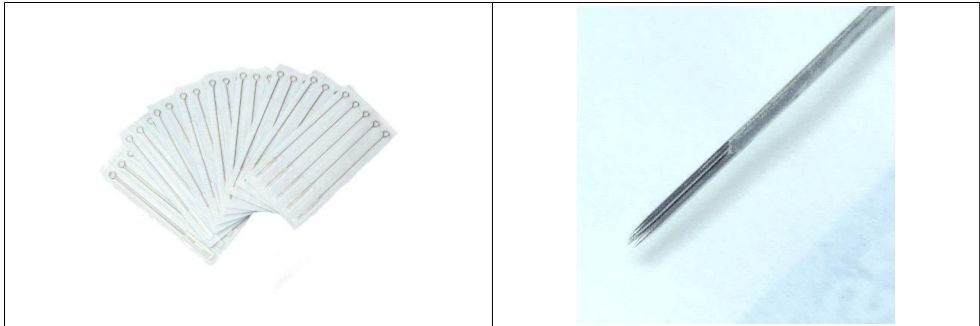


2) 전기를 이용한 초기 문신기기(문신 머신)은 1891년 사무엘 오 레일리(Samuel O'Reilly)가 전동식 문신 기계를 발명하여 특허를 내어 최초의 발명가로 알려져 있다.

전력 공급 장치는 문신용 기기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파워 서플라이와 문신머신이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끊는 풋 스위치(Foot Switch) 등이 포함된다.

바늘(Needle)은 진피층에 잉크를 넣어줄 수 있게 실질적으로 피부를 침투하는 역할을 하며, 일회용을 주로 사용한다. 사용한 바늘은 안전한 폐기용기에 담아서 처리한다.

[그림 2-2] 문신용 기기 - 바늘



그립(Grip)은 바늘과 팁, 튜브 등과 결합하여 머신을 연결하며, 문신 머신의 손잡이 역할을 한다. 재질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카본, 플라스틱, 실리콘 등 다양하다.

[그림 2-3] 문신용 기기 - 그립



팁(Tip)은 그림과 연결되어 바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바늘의 안정적인 왕복운동을 돕는다.

[그림 2-4] 문신용 기기 - 팁



나. 전사 용품(Stencil Supplies)

그림이나 도안 등을 피부에 정확하게 옮기는 역할을 한다. 전사 용품에는 전사지(Stencil Paper), 전사 프린터(Stencil Printer), 피부에 직접 도안을 그릴 수 있는 문신 전용 펜이 있다.

전사지(Stencil Paper)는 고객이 원하는 도안에 전사지(먹지와 유사함)를 깔아 펜이나 프린터로 복사(copy)한 뒤, 복사된 도안을 피부에 - 전사용제를 바르고 - 붙였다 떼면 도안이 피부 위로 전사된다. 카본이 주원료로 인체에 무해하다.

[그림 2-5] 문신용 기기 - 전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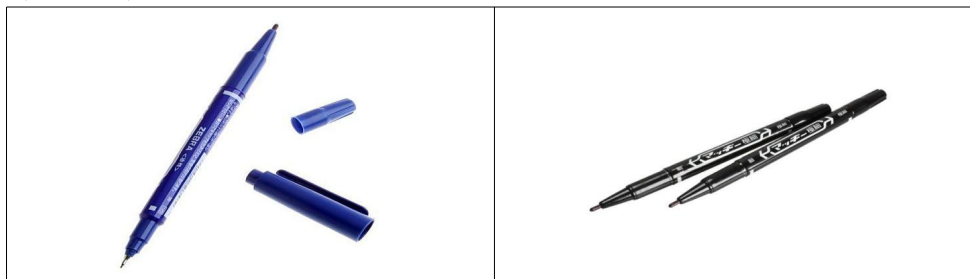
전사프린터(Stencil Printer)는 열전사 방식으로 도안을 복사해주는 문신전용 프린터이다.

[그림 2-6] 문신용 기기 - 전사프린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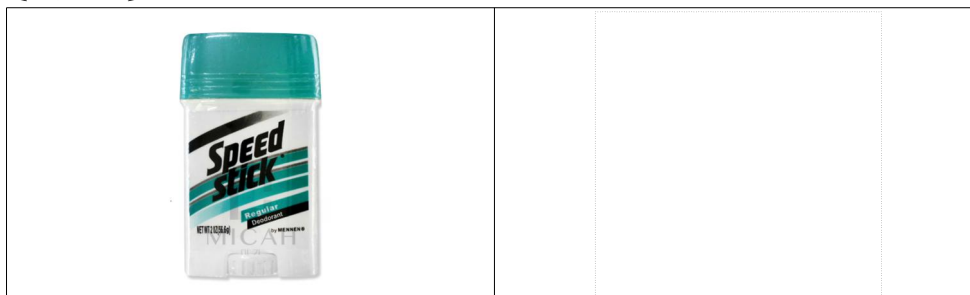
스킨 펜(Skin Pen)은 피부에 직접 도안을 그릴 수 있는 문신 전용 펜이다.

[그림 2-7] 문신용 기기 - 스킨 펜



전사 용제(Stencil Cream & Gel, or Stick)는 전사지로 복사한 도안을 피부에 전사하기 위해 바르는 용제이다.

[그림 2-8] 문신용 기기 - 전사 용제



라이트 박스(Light Box)는 도안을 카피할 때 쓰이는 조명 박스이다.

[그림 2-9] 문신용 기기 - 라이트 박스



다. 위생 용품(Sanitary Supplies)

자외선 살균기(Ultraviolet Sterilizer)는 UV-C 빛의 살균 효과를 이용한 장치이다.

[그림 2-10] 문신용 기기 - 자외선 살균기



멸균기(Sterilizer)는 문신 장비의 멸균을 위한 장비로서 가압증기 방식, 화학 방식, 건열 방식 등의 멸균기들이 있다.

[그림 2-11] 문신용 기기 - 멸균기



18 문신 기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위생 장갑(Living Gloves)은 감염이나 오염방지를 위한 라텍스 또는 니트릴 재질의 일회용 장갑이다.

[그림 2-12] 문신용 기기 - 위생 장갑



청소 솔(Cleaning Brush)은 그림 및 팁 등의 스테인리스 도구의 세척용 제품이다.

[그림 2-13] 문신용 기기 - 청소 솔



보호 커버(Protective Covers)는 세균 및 감염 등 오염방지를 위한 일회용 커버이다.

[그림 2-14] 문신용 기기 - 보호 커버



붕대 및 일회용품(Bandages and Disposables)은 그림 2-15와 같다. 문신완성 후 현재는 전용 애프터연고와 일회용 애프터 멸균 필름을 사용한다.

[그림 2-15] 문신용 기기 - 붕대 및 일회용품



비누 및 소독제(Soap/Disinfectants)는 항균 및 소독용 제품이다.

[그림 2-16] 문신용 기기 - 비누 및 소독제



의료 폐기물 통(Medical Waste Container)은 문신용 니들 수거 용기이다.

[그림 2-17] 문신용 기기 - 의료 폐기물 통



라. 일반 소모품(General Supplies)

문신 잉크는 정제수(carrier solution)와 색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색소는 염료와 안료로 나눌 수 있으며, 물, 기름, 알코올에 녹는지에 따라, 녹는 것은 염료(dye)이고, 녹지 않는 것은 안료(pigment)라 한다. 착색을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탈색과 변색의 문제점들 때문에 착색력은 떨어지지만 안료를 이용하는 것이 인체 색소의 대안으로 개발되어져 왔다³⁾. 문신용 잉크는 주로 수입산 제품들이 사용되며 수입국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이고, 해외 유명브랜드로는 다이나믹, 구로즈미, 인텐즈, 이터널 등이 있다. 다수의 제품이 중국에서 밀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산 인증 문신 전용 잉크로는 타이탄, 인스텔라가 있다.

문신용 염료(Tattoo inks)에 대한 규제는 2019년도까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 및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31호)」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의 ‘염료·염색류(Dye product group)’ 제품군 중 ‘문신용 염료’로 분류되어 관리 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 사후 관리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는 유해 물질에 대한 함유 금지 또는 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영업자가 자가 검사 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문신용 염료 제조 시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수입업자는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 판매할 수 있다⁴⁾.

[그림 2-18] 문신용 기기 - 일반 소모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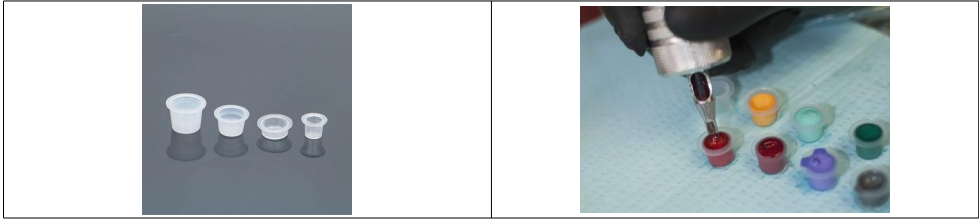


3) 출처 : 라이선스뉴스(<http://www.lcnews.co.kr>) [조소영칼럼] 반영구 합법화, 색소를 말한다. 2020년 3월 9일

4)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 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 업소로 시장 규모는 연간 150~200억 수준이며, 문신 이용자수는 100만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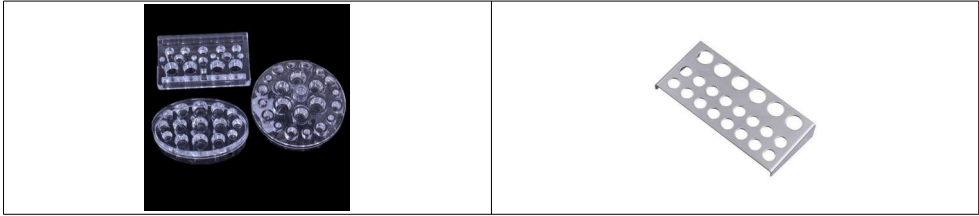
잉크 컵(Ink Cup)은 시술 시 문신 잉크를 담아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다.

[그림 2-19] 문신용 기기 - 잉크 컵



컵 받침(Cup Support)은 잉크 컵 받침용 기구이다.

[그림 2-20] 문신용 기기 - 컵 받침



연고 및 로션(Ointments & Lotions)은 문신 완성 후 피부재생과 문신 발색에 도움이 되는 애프터 연고 또는 크림이다.

[그림 2-21] 문신용 기기 - 연고 및 로션



제2절 반영구화장 개요

1. 이론적 개념 및 정의

가. 반영구화장의 이론적 역사와 정의

반영구화장은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고, 피부 침습이 발생하는 문신 기법을 사용하므로 시술 방법상 문신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용어는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permanent makeup)⁵⁾,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semi-permanent makeup), 영국의 경우에는 컨투어 메이크업(contour makeup), 일본의 경우에는 아트 메이크업(art make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신과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반영구화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반영구화장은 시술 부위, 염료가 주입되는 깊이, 사용되는 색소의 종류가 영구 문신과 다르다. 반영구화장은 문신용 염료를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입하는 반면, 영구 문신은 진피층까지 주입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영구 문신의 색소에는 Carbon을 함유하지만, 반영구화장에는 Carbon을 함유하지 않아 반영구화장 색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사라진다.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색소가 문신의 색소보다 더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는 점도 차이점이다.

반영구화장이 1970년대부터 색소의 과학적인 발전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미용 분야에 적용되었고, 반영구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반영구화장은 표피와 진피 사이에 시술하여 새로운 세포 형성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색소가 빠짐으로 영구문신과는 차별화된다. 화장품에 의존하던 화장술을 머신과 천연색소를 이용하여 피부에 색을 착색 시켜 반영구적으로 화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영구화장 색소는 일반적으로 천연색소(organic)로 시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 없어진다. 얼굴에는 반영구화장을 미용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신체에

5) 원래는 전통적인 문신을 permanent makeup으로 부르다가 최근에는 permanent라는 용어는 스스로 지울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반영구화장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한다.

는 상처 치유과정에서 생긴 보기 흉한 결점을 미관상 완화하는 목적으로 시술한다.

나. 반영구화장의 시술 절차

시술 부위에 따라 반영구화장의 세부 시술법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에 마취 크림 등을 발라 국소마취를 한 후 전용 펜슬로 윤곽을 디자인하고, 모양에 따라 선을 그리거나 면을 채우듯이 색소를 주입한다. 약 3주 경과 후, 피부의 재생이 끝나면 자연스러운 형태와 색감을 위해 2차 시술(리터치)을 실시함으로써 1차 시술의 미흡점을 보완한다(한국소비자원, 2016)⁶⁾.

반영구화장의 시술은 주로 눈썹, 입술, 립라인, 아이라인, 헤어라인 등이 시술 부위이다. 사용되는 기법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크게 펜(Pen) 기법과 머신(Machine)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⁷⁾. 펜 기법은 다시 수지침 기법, 엠보 기법이 있으며, 머신 기법은 페더링 기법, 그라데이션 기법 등이 있다.

펜 기법은 수지침과 같은 일자 모양의 대에 1~3개 묶음의 둥근 형태 바늘(Round needle)이나 평편형(Flat needle) 또는 사선형의 바늘을 연결하여 색소를 찍어서 점으로 면을 표현하는 수지침 기법과 2~12개의 플랫형 니들을 이용하여 선을 표현하는데 1회에 바늘 개수만큼의 횡수 효과를 나타내는 자수 모양의 엠보(Embroidery)기법이 있다.

머신 기법으로는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1개의 니들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눈썹결을 따라 눈썹의 본연의 모습을 살리면서 한 올 한 올 그리는 페더링(Feathering)기법과 1~5개의 라운드형 니들을 이용하여 표피층의 각질층을 긁어 색소를 미세하게 펼쳐 색채의 농담효과를 내며 착색시키는 그라데이션(Gradation)기법 등이 있다(김도연, 2015).

6) 한국소비자원, 문신용 염료 안전실태조사-반영구화장용 제품을 중심으로, 2016.09

7) 김미영, 윤천성, 반영구화장 법제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뷰티산업연구 제13권 제1호, 81~102쪽, 전체 22쪽

<표 2-2> 반영구화장 시술 절차

구분	제목	내용	운영
준비	디자인	시술실과 별도 운영	얼굴 및 피부 톤 파악 칼라와 디자인 선택
시술	독립적인 공간운영	밝은 조명과 백색계열의 인테리어	
	시술준비	고객의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상태 확인 ●완성된 디자인 사진 촬영
	장비세팅	장비의 점검 및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들이 팁에서 빠져 나오는 상태 확인 ●니들의 흔들림이나 정속성 확인 ●사용할 잉크의 오염여부 확인
	시술	고객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출혈 여부와 피부상태
마무리	후처리	작업부위의 관리	작업부위의 청결과 소독 마세린이나 상처관리 용제로 사용 작업부위 처리 및 보호

2. 반영구화장 용품의 이해

가. 반영구화장 머신

반영구화장 머신은 파워 서플라이와 머신이 일체형이고, 전용 니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신 머신과 차이가 있다. 반영구화장 머신은 아날로그 머신과 디지털 머신으로 구분되며, 아날로그 머신은 가격이 디지털 기계보다 저렴하고, 니들과 카트리지도 분리형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아날로그 머신은 디지털 머신에 비해 정확한 속도와 정확한 힘의 지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교함이 떨어지고, 일정한 깊이로 시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머신을 이용한 페더링 기법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⁸⁾, 시술자의 선택영역이라 할 수 있다.

나. 소모용품

8) 박주령, 이근광, 반영구화장에 따른 위생관리 행태 및 니들의 선호도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019, Volume 25, Issue 1

니들(Needle, 바늘)은 머신 기법, 수지 기법, 엠보 기법, 이지펜 등에 따라 사용되는 니들이 상이하다. 니들의 종류는 <표 2-3>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표 2-3> 니들의 종류

니들의 종류	기술용도
머신기법에 사용되는 1R-3R 니들	눈썹, 아이라인, 미인점
머신기법에 사용되는 5F-9F 플랫니들	눈썹, 입술
머신기법에 사용되는 매그넬 니들	눈썹, 유두, 유륜, 상처커버, 입술
수지기법에 사용되는 3R-5R 니들	눈썹, 아이라인
수지기법에 사용되는 매그넬 니들	눈썹, 유두, 유륜, 상처커버, 입술
이지펜 전용 수지기법의 W 니들	눈썹, 유두, 유륜, 상처커버
엠보기법에 사용되는 사선형 니들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엠보기법에 사용되는 U형 니들	눈썹, 헤어라인
이지펜 전용 엠보기법의 사선형 니들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이지펜 전용 엠보기법의 U형 니들	눈썹, 헤어라인
수지기법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니들	눈썹, 무통아이라인

자료: 박주령 등(2019)

박주령 등(2019)에 의하면 반영구화장 기술 시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전체적으로는 엠보 기법에 사용되는 사선형 니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지 기법에 사용되는 3R-5R 니들, 머신 기법에 사용되는 1R-3R 니들, 엠보 기법에 사용되는 U형 니들 순으로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타 소모품으로는 일회용 솜(정제수에 적셔서 기술 중 사용하는 솜),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마이크로면봉(잉크를 섞거나 마취 크림을 바를 시 사용), 일회용 글러브 등이 있다.

다. 색소

반영구화장 색소는 제형에 따른 분류는 액체형과 에멀전형으로 나누고, 에멀전형은 페이스트, 왁스, 로션, 젤의 형태를 포함한다. 그리고 가루의 형태로 액체형과 에멀전형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 형태가 있다(김미영 등)⁹⁾.

반영구화장 색소는 주로 유기농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금속인 비소(As), 안티몬(Sb), 코발트(Co),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바륨(Ba), 주석(Sn), 셀레늄(Se), 크롬(Cr)과 마그네슘(Mg), 망간(Mn), 티타늄(Ti), 알루미늄(Al) 등의 금속

9) 김미영 · 윤천성, 반영구화장 법제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뷰티산업연구 13 권 1호, 2019. 6. pp.81-102

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¹⁰⁾(2016)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48.0%)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납 및 1등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등이 검출되어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정미라 등(2018)¹¹⁾에서 화장용 문신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중금속과 기타 금속 성분의 함량을 실험 검사한 결과, 총 20개 제품(66.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자외선 살균기, 멸균기 등 위생용기기

자외선 살균기, 멸균기 등 위생용기기는 문신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차이가 없다.

3. 문신과 반영구화장 장비와 재료의 차이(요약)

<표 2-4>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장비와 재료 차이

구분	제목	반영구화장	문신
문신 기계 및 장비	문신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5v DC모터 작고 조용하다 니들왕복속도는 빠르나 힘은 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v DC모터 사용 코일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혼재, 코일 방식보다 현재는 로터리 펜 머신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크고 힘이 세다.
	문신용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지기법이 발달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지기법 퇴출단계
니들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굵기가 0.200이하의 니들 배열방식에 따라 5~7가지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굵기 0.200 이상 0.400까지 다양 배열방식에 따라 수백 가지 이상
색소	내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소와 정제수에 글리세린 첨가 색의 밀도가 낮다. 색소의 입자가 작다. 제조/유통자가 많다. 리터치 고객에 늘다 보니 문신용 잉크를 섞어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성으로 정제수와 색소. 색의 밀도가 높다. 색소의 입자가 크다. 제조/유통자가 적다.
시술 부위	피부의 저항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피의 교환주기가 짧고 얇다. 니들의 깊이가 얕다(진피 상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굴부위에 비해 표피의 교환주기가 길고 두껍다. 미용문신의 니들 깊이보다 깊고 데미지가 크다(진피 중층부). 장르에 따라 얇게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 표피의 교환주기는 얼굴, 몸통 다 똑같다

10) 한국소비자원, 문신용 염료 안전실태조사-반영구화장용 제품을 중심으로, 2016.09

11) 정미라, 이희성, 이지영 외 1명, 화장용 문신으로 사용되는 염료 및 색소의 중금속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9(4) 2018 321 - 329 (9 pages)

제3절 문신으로 인한 피부질환 및 감염과 위생관리

1. 문신으로 인한 피부질환 및 감염

문신 행위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부 내부에 주입되는 색소에 대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병원균)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신으로 인한 피부질환과 감염과 관련한 연구는 문신 기술이 의료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데이터를 이용하여 역학적 질병 추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외 연구자료도 의료데이터가 아닌 서베이를 통해 문신과 관련한 질환 발생율을 조사한 결과가 대부분이다(Paola Piccinini 등, 2016)¹²⁾.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¹³⁾. 유럽 연합(2016)의 자료에 의하면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4가지(①급성 염증(acute aseptic inflammation), ②감염(세균, 바이러스)(infectious risks (bacterial and viral)), ③알레르기 반응 및 자가면역반응(allergic/hypersensitivity and auto-immune type reactions), ④기타 부작용(other secondary effects))으로 분류하고 있다.

급성 염증(acute aseptic inflammation)은 통증(pain), 발적(redness), 물집(blistering), 붓기(swelling), 가려움증(itching), 홍반(erythema), 홍조(flush), 가벼운 출혈(mild bleeding)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1개월 이내에 증상이 소멸한다.

문신으로 인한 급성 염증 증상 발생율은 Brady 등(2015)은 4.3%, Laumann(2006)의 경우 12.5%¹⁴⁾, Antoszewski(2006)은 31%¹⁵⁾ 등으로 변동 폭이

12) Paola Piccinini, Sazan Pakalin, Laura Contor, Ivana Bianchi, Chiara Senaldi,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2016

13) 문신으로 인한 질환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14)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신관련 질환을 1) 발작/통증, 2)감염, 3)면역관련 질환, 4)신생물(암) 등으로 구분하였다.

14) Laumann, A.E. and A.J. Derick, Tattoos and body piercing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data set. J Am Acad Dermatol, 2006. 55(3): p. 413-21.

15) Antoszewski, B., et al., Are body piercing and tattooing safe fashions? Eur J Dermatol, 2006. 16(5):

크게 나타난다. 이는 주로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서베이에 의존하여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응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Hogsberg 등(2013)¹⁶⁾은 덴마크의 문신 시술을 받은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급성 염증 증상을 보인 사람 중 27%가량이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화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Brady(2015)은 6%가 만성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¹⁷⁾

감염(세균, 바이러스)(infectious risks (bacterial and viral))의 경우, 문신 시술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잉크의 제조단계부터 잉크의 개봉 이후 부주의로 인한 무균상태 관리 실패, 문신 시술자의 위생관리 실패 등의 원인으로 시술 대상자에게 침투될 수 있다. 외국의 문헌 연구에 의하면 밀봉된 잉크의 멸균상태가 훼손된 오염된 잉크가 10~50%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요한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⁸⁾.

감염증의 예후는 이들이 혈관이나 림프관과 접촉할 때 병원균의 독성이나 시술 대상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문신으로 인한 피부감염의 발생률은 정확한 의료 통계가 없는데 Laux 등 (2016)¹⁹⁾나 Klugl 등(2010)²⁰⁾은 발생률을 각각 1~5%, 0.5%로 추정하고 있다. Ralf Dieckmann 등(2016)은 0.5~6%가 문신 이후 감염과 관련한 합병증(infectious complications)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²¹⁾. Kaatz 등 (2008)²²⁾은 유육종증(Sarcoidosis) 동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복적 그리고 대폭의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 세균성 심내막염(bacterial endocarditis)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 판막 질환(cardiac valvular

p. 572-5.

16) Hogsberg, T., K.H. Carlsen, and J. Serup, High prevalence of minor symptoms in tattoos among a young population tattooed with carbon black and organic pigments.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13. 27: p. 846-852.

17) Brady, B.G., et al., Self-reported adverse tattoo reactions: a New York City Central Park study. *Contact Dermatitis*, 2015. 73(2): p. 91-9.

18) Health-Canada, Market survey of tattoo dyes: microbial testing, 2011: Activity Report June 20.

19) Laux, P., et al., A medical-toxicological view of tattooing. *The Lancet*, 2016. 387(10016): p. 395-402

20) Klugl, I., et al., Incidence of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tattooed skin: a nation-wide survey in German-speaking countries. *Dermatology*, 2010. 221(1): p. 43-50.

21) Ralf Dieckmann, Ides Boone, Stefan O. Brockmann, Jens A. Hammerl, Annette Kolb-Mäurer, Matthias Goebeler, Andreas Luch, Sascha Al Dahouk. "The Risk of Bacterial Infection After Tattooing", *Deutsches Ärzteblatt International | Dtsch Arztebl Int* 2016; 113: 665-71

22) Kaatz, M., P. Elsner, and A. Bauer, Body-modifying concepts and dermatologic problems: tattooing and piercing. *Clin Dermatol*, 2008. 26(1): p. 35-44.

disease)이 있는 경우에는 문신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의 발생빈도는 Jafari 등(2010²³), 2012²⁴)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하여 살펴본 결과 문신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차비(odd ratio)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형 간염의 경우에 교차비가 2 이상이어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문신과 B형 또는 C형 간염과의 인과관계(causality)를 밝히는 연구는 아니어서 해석에 한계가 있다. AIDS 감염의 경우 장기적인 체액 접촉 등의 조건이 형성되어야 해서 B형 또는 C형 간염보다 확률이 낮다. 문신으로 인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연구한 사례는 해외 학술 논문에서 한 사례가 확인되는 정도이다(Kluger, 2012)²⁵).

알레르기 반응 및 자가면역반응(allergic/hypersensitivity and auto-immune type reactions)은 다음과 같다. 알레르기 반응(allergic reactions)은 습진피부염(Eczematous dermatitis), 감광성(Photosensitivity), 리키 노이드 및 육아 종성 반응(Lichenoid and granulomatous reactions), 림프종 반응(Lymphomatoid reactions), 유사상피 종성 증식(Pseudoepitheliomatous hyperplasia), 경피증과 흉터(Scleroderma and scars) 등이 있다. 문신에 의해 재발된 피부병(underlying dermatosis reactivated by tattooing)은 쾨브너 현상(Kobner phenomenon), 유육종증(Sarcoidosis), 혈관염(Vasculitis), 홍반성 루푸스(Lupus erythematosus) 등이다. 기타 부작용 (other secondary effects)은 과색소침착(Hyperpigmentation) 등 색소장애(pigmentary disorders), 신생물(암) (tumours) 등이 있다.

2. 위생 관리

문신으로 인한 질환은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작업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병원균, 중금속에 오염된 문신용 염료를 통해서 감염될

23) Jafari, S., et al., Tattooing and risk of hepatitis B: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an J Public Health, 2012. 103(3): p. 207-12.

24) Jafari, S., et al., Tattooing and the risk of transmission of hepatitis 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 J Infect Dis, 2010. 14(11): p. e928-40.

25) Kluger, N., Acute complications of tattooing presenting in the ED. Am J Emerg Med, 2012. 30(9): p. 2055-63.

수 있다.

미생물(세균, 미세 곰팡이, 미세 조류, 원생동물,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술자는 장비나 기구들을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해야 하고, 시술자의 손 관리, 고객의 시술 부위 피부 소독, 위생적인 시술 환경에 완벽히 해야 한다. 소독(Disinfection)은 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미생물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 행위로, 소독의 방법에는 세척, 방부, 소독, 멸균의 방법이 있다.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소독과 멸균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같이 사용한다.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을 말하며, 고압증기멸균법, 가스멸균법, 건열멸균법, 과산화수소 가스 플라즈마 멸균법 및 액상 화학제 등을 이용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고시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보면 환자와 접촉의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 방법을 정하고 있다.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멸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 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 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지질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낮은 수준 소독을 적용한다. 혈압측정기, 청진기, 변기, 목발, 침대 난간, 물잔, 린넨, 음식 쟁반, 심전도 도구, 침상 테이블,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병실 집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2-5> 멸균 및 소독방법 (제4조 관련)

	멸균	높은 수준의 소독	중간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
대상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일부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노출 시간	각 방법 마다 ()안에 표시	20℃ 이상에서 12-30분 ^{1,2}	1분 이상 ³	1분 이상 ³
종류 및 방법	고열멸균: 증기 혹은 고열의 공기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 준수, 증기멸균의 경우 3-30분)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26% 이소프로판올 등)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70-90%)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1-6시간의 멸균시간과 8-12시간의 공기정화 시간 필요)	0.55% 이상의 올소-프탈알데하이드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검사실이나 농축된 표본은 1:50으로 희석)	차아염소산 나트륨 (1:500으로 희석 하여 사용)
	과산화수소 가스프라즈마 (제조업자의 권고사항 준수, 내관 구경에 따라 45-72분)	7.5% 과산화수소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페놀살균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글루탈알데하이드 혼합제품 (1.12% 글루타르알데히드 + 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 + 26% 이소프로판올 등) (온도와 농도 유의, 20-25℃에서 10시간)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아이오도퍼 살균 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7.5% 과산화수소 (6시간)	세척 후 70℃에서 30분간 습식 저온 살균	-	4급 암모늄세정제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희석)
	0.2% 과초산 (50-56℃에서 12분)	차아염소산염(사용장소에서 전기분해로 제조된 것으로 활성 유효염소가 650-675ppm 이상 함유)	-	-
	과산화수소/과초산 혼합제품 (7.35% 과산화수소 + 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 + 0.08% 과초산) (3-8시간)	-	-	-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히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주3] 제조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주4] 혈액이 묻은 비위험기구는 중간수준의 소독을 적용한다.

제 3 장

공급자 실태조사 결과

제1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 실태조사 결과

제2절 문신 염료 및 기기 질적 조사 결과

제3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 수 추정

3

공급자 실태조사 결과 <



제1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 실태조사 결과

이 절에서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공급자 실태조사의 목적은 문신 행위가 현행법상 불법인 관계로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현황과 시술자의 서비스 내용 및 수준,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질문 문항은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구분한 영역은 시술자의 일반적 특성, 시술 관련 제반 환경, 재료 및 기기 관련, 시술 서비스 관련 현황, 교육 및 자격증 관련 현황으로 구분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국내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회원을 모집단으로 상정하고 공급자 대상 실태조사지를 개발한 후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조사 링크를 공유하고, 조사를 독려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 표본은 문신 시술자 178건, 반영구화장 시술자 628건이었다. 조사 기간은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2019년 11월 12일 ~ 2019년 12월 2일, 문신 시술자는 2019년 11월 12일 ~ 2020년 2월 5일이다.

1. 문신 시술자 현황분석 결과

가. 시술자의 일반적 특성

문신 시술자 현황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178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24.2%), 30대(34.8%), 40대(32.6%), 50대 이상(8.4%)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59%로 남성(41%)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 사항으로는 고졸 이하 학력이 49.4%로 과반에 가까웠으며, 전문대졸 25.3%, 4년제 대졸 22.5%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2.8%였다. 활동지역으로는 서울(20.8%), 경기(15.7%), 경상(13.5%), 대전(10.1%) 순이었다. 그 외 지역은 10%를 넘지 않았다.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178		빈도	비율 (%)
연령	20대	43	24.2
	30대	62	34.8
	40대	58	32.6
	50대 이상	15	8.4
성별	남성	73	41.0
	여성	105	59.0
학력	고졸 이하	88	49.4
	전문대졸 이하	45	25.3
	4년제 대졸 이하	40	22.5
	대학원 이상	5	2.8
활동지역	서울	37	20.8
	부산	15	8.4
	대구	5	2.8
	인천	6	3.4
	광주	5	2.8
	대전	18	10.1
	울산	7	3.9
	세종	0	0
	경기	28	15.7
	강원	6	3.4
	충청	17	9.6
	전라	5	2.9
	경상	24	13.5
	제주	5	2.8

응답자 중 문신만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2.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시술한다는 응답은 37.1%였다.

〈표 3-2〉 활동 분야

활동 분야	빈도	비율 (%)
문신	112	62.9
문신+반영구화장	66	37.1

응답자 중 25.8%는 전업으로 문신 기술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74.2%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비전업으로 문신 기술을 한다고 밝혔다. 비전업인 경우 미용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43.5%, 비 미용 분야 56.5%로 조사되었다. 비 미용 분야의 직업으로는 자영업(10.9%), 회사원(8.7%), 건축설계(4.3%), 아르바이트(4.3%), 간호사(2.2%)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다. 활동경력으로는 평균 5.9년이었으며, 3~5년이 3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1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23.6%에 달했다.

〈표 3-3〉 전업 여부 및 활동 경력

전업 여부	빈도	비율 (%)
전업	46	25.8
비전업(다른 직업 있음)	132	74.2
활동 경력	빈도	비율 (%)
3년 미만	51	28.7
3~5년	67	37.6
6~9년	18	10.1
10년 이상	42	23.6
평균 경력 5.9년		

〈표 3-4〉 비전업인 경우 직업

활동 분야	빈도	비율 (%)
미용 분야	20	43.5%
비 미용 분야	26	56.5%

문신 기술을 배우게 된 동기는 어느 하나로 제한하지 않고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배우기 쉬워서’라는 응답에 있어서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은 6.2%로 낮은 편이었다. ‘직업으로서 유망하기 때문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66.3%로 나타나, 문신 업이 직업으로서 유망하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수입의 목적’으로 문신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는 응답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25.3%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흥미’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85.9%로 나타나 상당히 높았으며, ‘예술적 관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응답이 91.6%로 가장 높았다. 즉, 문신 기술을 배우게 된 동기로서는 예술적 관심과 개인적인 흥미가 가장 주된 동기였고, 직업적으로 유망하다는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우기는 어려우며 부수입으로서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응답자 중 대부분은 협회에 가입하고 있었으며(77.5%), 나머지 22.5%는 협회 소속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문신 기술을 배우게 된 동기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5점 척도 평균
배우기 쉬워서	0.6	5.6	12.9	24.2	56.7	1.69
직업으로 유망해서	35.4	30.9	15.7	6.2	11.8	3.72
부수입의 목적	5.1	20.2	16.9	20.2	37.6	2.35
개인적 흥미	61.2	24.7	3.9	1.1	9.0	4.28
예술적 관심	71.4	20.2	5.1	0.6	2.8	4.57

〈표 3-6〉 문신 관련 소속 협회의 유무

구분	빈도	비율 (%)
있음	138	77.5
없음	40	22.5

나. 기술 장소 관련 현황

문신 기술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62.9%,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중은 23%, 다른 기술자에게 고용된 비중은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37.1%는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고, 나머지 62.9%는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 교육(학원)(22.7%), 도안 제작(19.7%), 마사지(12.1%), 네일(12.1%), 피부관리(6.1%), 화장품 도소매(6.1%), 도소매(4.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7〉 문신업소 운영 여부

구분	빈도	비율 (%)
다른 기술자에게 고용되어 있음	11	6.2
운영 중임	112	62.9
프리랜서로 활동함	41	23.0
기타	14	7.9

〈표 3-8〉 사업자 등록 여부

구분	빈도	비율 (%)
등록함	66	37.1
무허가	112	62.9

〈표 3-9〉 사업자 등록 분야

사업자등록 분야	응답 건수	비중
교육(학원)	15	22.7%
도안 제작	13	19.7%
마사지	8	12.1%
네일	8	12.1%
피부관리	4	6.1%
화장품 도소매	4	6.1%
도소매	3	4.5%
디자인 사무실	2	3.0%
토탈뷰티샵	2	3.0%
교육 서비스	1	1.5%
서비스업	1	1.5%
속눈썹	1	1.5%
이·미용업	1	1.5%
지금은 쉬는 중	1	1.5%
시술 교육	1	1.5%
디자인	1	1.5%
총응답자	66	100.0%

한 달 평균 문신 시술 건수는 평균 15.8건이었으며, 11~20건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5~10건 정도라는 응답이 32.2%로 뒤를 이었다. 전업으로 문신을 하는 경우 한 달 평균 시술 건수는 17.3건으로 응답하였다. 몸통에 하는 큰 작업의 경우 4~5시간 정도 소요된다.

문신 시술 당 가격은 명함 사이즈 크기의 문양 기준으로 11~20만 원이라는 응답이 47.3%였고, 5~10만 원 정도라는 응답이 33.9%인 것으로 나타나 대략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0〉 한 달 평균 문신 시술 건수

구분	빈도	비율 (%)
5건 미만	13	11.6
5~10건	36	32.2
11~20건	39	34.8
21~50건	23	20.6
51건 이상	1	0.9
평균	15.8건	

〈표 3-11〉 한 달 평균 문신 시술 건수 (전업인 경우, N=95)

구분	빈도	비율 (%)
5건 미만	8	8.4
5~10건	30	31.6
11~20건	34	35.8
21~50건	22	23.2
51건 이상	1	1.1
평균	17.3건	

〈표 3-12〉 시술 당 가격(명함 사이즈 가격 기준)

구분(N=112)	빈도	비율 (%)
5만원 미만	6	5.4
5~10만원	38	33.9
11~20만원	53	47.3
21만원 이상	15	13.4
평균	154,830원	

연평균 매출은 평균 2,970만 원이었다. 3,001~5,000만 원 이하가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 원 이하(28.6%), 1,001~3,000만 원 이하(20.6%), 501~1,000만 원 이하(11.6%) 순으로 나타났다.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4.5%였다.

〈표 3-13〉 연평균 매출액

	빈도	비율 (%)
500만 원 이하	32	28.6
501~1,000만 원 이하	13	11.6
1,001~3,000만 원 이하	23	20.6
3,001~5,000만 원 이하	39	34.8
5,000만 원 초과	5	4.5
평균	2,970만 원	

〈표 3-14〉 연평균 매출액 (전업인 경우, N=95)

	빈도	비율 (%)
500만 원 이하	27	28.4
501~1,000만 원 이하	11	11.6
1,001~3,000만 원 이하	18	19.0
3,001~5,000만 원 이하	35	36.8
5,000만 원 초과	4	4.2
평균	2,546만 원	

문신 시술의 주된 장소를 파악한 결과, ‘문신 전문샵’이라는 응답이 6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룸/오피스텔’ 15.7%, ‘미용 시설’ 13.5%, 출장 5.6%, 기타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문신 시술 장소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문신 전문샵의 경우 60.19%가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업소였으며, 원룸(오피스텔)의 경우 96.43%, 출장의 경우 90%가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미용 시설만이 70.83%가 사업자 등록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보건소, 구청 및 민생사법경찰의 단속 및 처벌 경험을 물어본 결과, 단속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3%로 전체 응답자의 1/5 수준이었다. 경찰이나 국가 기관에 의해 불법 시술에 의해 처벌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18%로 대략 1/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5〉 주된 문신 시술 장소

주된 문신 시술 장소	빈도	비율 (%)
미용 시설	24	13.5
원룸/오피스텔	28	15.7
병·의원	1	0.6
출장	10	5.6
문신 전문샵	108	60.7
기타	7	3.9

〈표 3-16〉 주된 문신 시술 장소의 사업자 등록 여부

	미용 시설	원룸 (오피스텔)	병·의원	출장	문신 전문샵	기타	계
사업자 등록	70.83	3.57	0	10	39.81	57.14	36.87
사업자 등록하지 않음(무허가)	29.17	96.43	100	90	60.19	42.86	62.5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17〉 경찰, 보건소, 구청 및 민생사법경찰의 단속 및 처벌 경험

구분	단속		처벌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있음	41	23.0	32	18.0
없음	137	77.0	146	82.0

다. 재료 및 기기 관련

문신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색소’의 대부분은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73%)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여부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26.9%에 달하였다. 색소의 구입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다는 응답이 46.1%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5.7%였다. 해외직구를 한다는 응답도 14.6% 정도로 나타났다. 색소의 구입 기준으로는 ‘품질’이라는 응답이 61.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원산지의 경우에는 해외 63.5%, 국내 36.5%로 나타나 해외산 제품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문신용 색소의 환경부 허가 여부

	빈도	비율 (%)
그렇다	130	73.0
그렇지 않다	7	3.9
모른다	41	23.0

〈표 3-19〉 문신용 색소 구입 경로

	빈도	비율 (%)
인터넷 카페, 밴드 등	28	15.7
국내 인터넷 쇼핑몰	82	46.1
방문판매 업체	5	2.8
전화주문	24	13.5
해외직구	26	14.6
기타	13	7.3

〈표 3-20〉 문신용 색소 선택기준

	빈도	비율 (%)
가격	5	2.8
브랜드	46	25.8
품질	110	61.8
평판	13	7.3
기타	4	2.3

〈표 3-21〉 문신용 색소 원산지

	빈도	비율 (%)
국내	65	36.5
해외	113	63.5

문신용 머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사용 중인 머신이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받은 제품은 48.9%로 절반 수준이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5.1%였으며, ‘잘 모른다’라는 응답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신의 구입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32% 정도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신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품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4%였다. 머신의 원산지는 해외가 53.4%, 국내 46.6%로 비슷하였다.

〈표 3-22〉 사용 중인 문신용 머신의 의료기기 2등급 허가 여부

	빈도	비율 (%)
그렇다	87	48.9
그렇지 않다	9	5.1
모른다	82	46.0

〈표 3-23〉 문신 머신의 구입 경로

	빈도	비율 (%)
인터넷 카페, 밴드 등	24	13.5
국내 인터넷 쇼핑몰	57	32.0
방문판매 업체	4	2.3
전화주문	21	11.8
해외직구	30	16.9
제품회사 홍보 및 교육 참석시	23	12.9
기타	19	10.7

〈표 3-24〉 문신 머신의 선택 기준

	빈도	비율 (%)
가격	4	2.3
브랜드	34	19.1
품질	120	67.4
평판	17	9.6
기타	3	1.7

〈표 3-25〉 문신 머신의 원산지

	빈도	비율 (%)
국내	83	46.6
해외	95	53.4

세척기 또는 소독기의 보유 여부 및 관리/청소 주기를 살펴본 결과, 문신 시술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는 ‘자외선 소독기’로 77.5%에 달하였다. 각 기기 보유에 대한 중복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기를 기본적으로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청소 주기에 있어서 ‘초음파 세척기’와 ‘자외선 소독기’를 매일 관리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고, ‘고압증기 멸균기’는 39.3% 정도가 매일 관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건열 멸균 소독기’의 경우 1주일에 1~2회 정도 관리/청소한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다.

〈표 3-26〉 문신 시술 관련 세척기(소독기)의 보유율 및 관리(청소) 주기

	보유		관리(청소) 주기 비율(%)			
	빈도	비율 (%)	잘 못함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매일
초음파 세척기	58	32.6	5.2	6.9	31.0	56.9
자외선 소독기	138	77.5	4.4	13.8	29.7	52.2
고압증기 멸균기	28	15.7	—	21.4	39.3	39.3
건열멸균 소독기	39	21.7	5.1	15.4	48.7	30.8

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 및 위생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시술 전 동의서의 작성과 내용에 대한 부분, 의료 및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문신 시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35.9% 정도였으며, 그 내용에서는 부작용이나 비용, A/S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29.8%에 달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구두로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의료 및 위생의 차원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59.6%로 나타났고, 튜브와 바늘대와 같은 기구들을 세척 후 멸균한다는 응답 비율이 64%로 나타나 위생관리나 감염 등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였다. 한편, 문신 시술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소독 위생 등의 안전 관리 교육에 대해서는 82.6%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74.7%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세척 및 소독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6.7%, 세면대가 시술 공간 안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6.4%, 대기실과 시술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9.9% 등으로 나타나 시술 공간과 관련하여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에 사용하는 국내 문신용 염료, 마취제, 기기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6.5%, 39.3%, 35.9%로 나타났으나 유통되고 있는 국내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시술을 위하여 정부의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자의 자격 관리’에 대한 응답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바늘, 장갑, 일회용 마스크 등 일회용품 관리’ 19.5%, ‘안전한 색소 사용 관리’ 16.7%, 소독 및 멸균 장비 구비에 대한 관리 16.4%, 업소의 시설기준 관리(세면대, 대기실 공간의 분리 등) 10.8%, 폐기물 처리 9.1%, 기타 9.8%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문신용 염료에 대해서는 해외 제품을 많이 사용하여 국내 염료는 시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위생관리가 취약하고, 변색이 잘되는 등 품질이 낮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취제의 경우에도 가짜가 많고,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 등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신 머신의 경우에도 해외 제품이 많이 사용되며 국내 제품은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기술력이 부족하여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3-27〉 운영 실태

연번	문항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시술 전 동의서를 작성한다	64.0	35.9
2	동의서에 부작용, 비용, A/S 등이 포함되어 있다	70.2	29.8
3	피시술자와 구체적으로 상의 후 시술을 한다	97.8	2.2
4	피시술자의 피부 특성이나 알러지 등을 확인한다	96.1	3.9
5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99.4	0.6
6	일회용 바늘을 사용한다	99.4	0.6
7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97.8	2.2
8	일회용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59.6	40.4
9	미성년자에게 시술하지 않는다	98.3	1.7
10	튜브와 바늘대는 세척 후 멸균 과정을 거친다	64.0	36.0
11	염료는 멸균된 일회용 캡에 덮어서 사용한다	98.9	1.1
12	B형 감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77.0	23.0
13	세척 및 소독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56.7	43.3
14	세면대가 시술 공간 안에 있다	76.4	23.6
15	대기실과 시술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89.9	10.1
16	A/S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다	97.8	2.2
17	국내 문신용 염료의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다	36.5	63.5
18	국내 마취제의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다	39.3	60.7
19	국내 문신용 기기의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다	35.9	64.0

〈표 3-28〉 직무 관련 소독 위생 등 안전 관리 교육 경험

	빈도	비율 (%)
있음	147	82.6
없음	31	17.4

〈표 3-29〉 질병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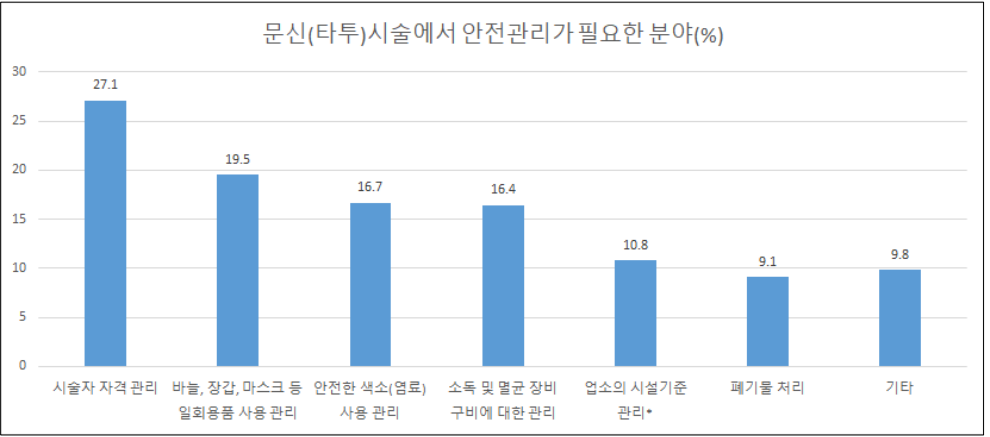
	빈도	비율 (%)
있음	133	74.7
없음	45	25.3

〈표 3-30〉 문신 기술 관련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

연번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안전한 색소(염료) 사용 관리	16.7	10.3
2	소독 및 멸균 장비 구비에 대한 관리	16.4	9.0
3	기술자 자격 관리	27.1	14.7
4	업소의 시설기준 관리*	10.8	6.3
5	바늘, 장갑, 마스크 등 일회용품 사용 관리	19.5	11.4
6	폐기물 처리	9.1	5.9
7	기타	9.8	4.7

주: 세면대, 대기실 공간의 분리 등

[그림 3-1] 문신 기술 관련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분야



라. 교육, 자격증 관련

문신 기술자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93.3%였고, 그중 41.6%는 개

인 샵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데미(민간학원)를 통한 교육 35.5%, 협회 교육이 22.9%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 기간은 8.2개월이었으며, 평균 교육 시간은 154.5시간이었다.

〈표 3-31〉 문신 관련 교육 수강 여부

	빈도	비율 (%)
받았다	166	93.3
받지 않았다	12	6.7

〈표 3-32〉 문신의 교육 형태

	빈도	비율 (%)
1:1 교육	69	41.6
아카데미(민간학원)	59	35.5
기타	38	22.9

〈표 3-33〉 가장 효과적인 문신의 교육 형태

	빈도	비율 (%)
개인 샵 교육	87	48.9
아카데미(민간학원)	52	29.2
정규 학교교육	35	19.7
기타	4	2.2
합계	178	100.0

〈표 3-34〉 문신 교육 기간(개월 수)

	빈도	비율 (%)
1~3개월	57	34.3
4~6개월	37	22.3
7개월 이상	72	43.4
평균 교육 기간	8.2개월	

〈표 3-35〉 문신 교육 기간(시간)

	빈도	비율 (%)
60시간 이하	85	51.2
61~150시간	27	16.3
151~300시간	24	14.4
300시간 초과	23	13.8
평균 교육 시간	154.5시간	

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증은 응답자의 29.7%는 국가자격증(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40.7%는 문신 관련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격증이 전혀 없다는 응답 또한 29.7%로 나타났다.

현재 다른 사람에게 문신 기술 교육을 하는 비율이 64% 정도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문신 기술 교육을 하고 있었다.

문신 관련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92.7%로 높았고, 반영구화장 자격증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는 94.4%의 비율로 나타나 자격증에 대한 필요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증(61.2%)을 ‘민간’ 자격증(37.6%)보다 선호하였다.

〈표 3-36〉 문신 기술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빈도	비율 (%)
국가자격증	62	29.7
관련 민간자격증	85	40.7
자격증 없음	62	29.7

〈표 3-37〉 타인에게 문신 기술 교육 실시 여부

	빈도	비율 (%)
실시함	114	64.0
실시하지 않음	64	36.0

〈표 3-38〉 문신 관련 자격증 신설에 대한 의견

	빈도	비율 (%)
필요함	165	92.7
필요하지 않음	13	7.3

〈표 3-39〉 반영구화장 관련 자격증 신설에 대한 문신 기술자의 의견

	빈도	비율 (%)
필요함	168	94.4
필요하지 않음	10	5.6

〈표 3-40〉 문신 기술 자격 신설 시 자격 부여 주체에 대한 의견

	빈도	비율 (%)
국가	109	61.2
민간	67	37.6
기타	2	1.2

문신 기술 및 업체에 대한 허가제와 신고제 중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3%였고, 신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2%인 것으로 나타나, 허가제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기술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기술 행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기술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9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문신 기술의 허가제/신고제에 대한 의견

	빈도	비율 (%)
허가제	118	66.3
신고제	57	32.0
현행 제도 유지(합법화 반대)	—	—
기타	3	1.7

〈표 3-42〉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기술 허용 관련 본인의 의견

	빈도	비율 (%)
비의료인에 의한 기술 허용	176	98.9
허용하면 안됨	—	—
의견 없음	2	1.1

2. 반영구화장 기술자 현황분석 결과

가. 기술자의 일반적 특성

반영구화장 기술자 현황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628명 중 20대(19.2%), 30대(47.0%), 40대(28.1%), 50대 이상(5.9%)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9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 사항으로는 고졸 이하 28.7%, 전문대 졸업 이하의 비율이 36.8%, 4년제 대졸 이하 29.55, 대학원 이상 5.1%를 차지하였다. 활동지역으로는 경기(24.2%), 서울(20.5%)에 집중된 편이었다. 그 외 지역은 10%를 넘지 않았다.

〈표 3-4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628		빈도	비율 (%)
연령	10대	1	0.2
	20대	120	19.2
	30대	295	47
	40대	176	28.1
	50대 이상	36	5.9
성별	남성	17	2.7
	여성	611	97.3
학력	고졸 이하	180	28.7
	2년제 대졸 이하	231	36.8
	4년제 대졸 이하	185	29.5
	대학원 이상	32	5.1
활동지역	서울	129	20.5
	부산	56	8.9
	대구	34	5.4
	인천	34	5.4
	광주	26	4.1
	대전	29	4.6
	울산	16	2.5
	세종	8	0.5
	경기	152	24.2
	강원	19	3.0
	충청	42	6.7
	전라	23	3.7
	경상	58	9.3
	제주	7	1.1

응답자 중 85.7%가 반영구화장 기술 영역에서만 활동하고 있었으며, 7.6% 정도는 문신 기술을 겸하고 있었다. 현재 활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였다.

응답자의 46%는 전업으로 반영구화장 기술을 하고 있었고, 54%는 비전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비전업인 경우 미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2.0%에 달하여 미용 분야에 활동하면서 겸업으로 반영구화장 기술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경력으로는 5년 이하의 경력이 73.3%로 다수였다.

〈표 3-44〉 활동 분야

활동 분야	빈도	비율 (%)
반영구화장	538	85.7
문신+반영구화장	48	7.6
현재 활동하지 않음	42	6.7

〈표 3-45〉 전업 여부 및 활동 경력

전업 여부	빈도	비율 (%)
전업	289	46.0
비전업(다른 직업 있음)	339	54.0
활동 경력	빈도	비율 (%)
3년 미만	253	40.3
3~5년	209	33.0
6~9년	55	9.0
10년 이상	111	18.0
평균 경력 4.9년		

〈표 3-46〉 비전업인 경우 직업

활동 분야	빈도	비율 (%)
미용분야	237	82.0%
비미용분야	52	18.0%

반영구화장 기술을 배우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5점 척도 조사에서 예술적 관심(4.48)이 가장 높았고, 개인적 흥미(4.27), 직업으로 유망(4.25), 부수입 목적(3.40), 배우기 쉬워서(1.9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으로 유망’하다는 동기에서 84.1%가 긍정적인(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을 하였으며, ‘개인적 흥미’ 동기에 있어서도 8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예술적 관심’이라는 측면에서도 90.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반영구화장 기술을 배우는 주요한 동기는 예술적 관심, 개인적인 흥미와 직업적으로 유망할 것이라는 인식이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4%는 협회 가입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47〉 반영구화장 기술을 배우게 된 동기

구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5점 척도 평균
배우기 쉬워서	2.7	2.9	16.4	40.6	37.4	1.93
직업으로 유망	47.5	36.6	11.9	1.8	2.2	4.25
부수입의 목적	22.8	32.6	17.5	16.2	10.8	3.40
개인적 흥미	54.6	29.1	9.4	2.2	4.6	4.27
예술적 관심	62.1	28.0	6.8	1.4	1.6	4.47

〈표 3-48〉 반영구화장 관련 소속 협회의 유무

	빈도	비율 (%)
있음	230	36.6
없음	398	63.4

나. 기술 관련 제반 환경

응답자 중 54.1%는 반영구화장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16.6%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었다. 응답자들의 56.1%는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고, 나머지 43.9%는 무허가라고 응답하였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피부(34.9%), 메이크업(20.7%), 화장품 도소매(16.5%), 네일(11.4%), 토탈뷰티샵(5.7%), 헤어(5.4%), 교육 서비스(1.7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49〉 반영구화장 업소 운영 여부

	빈도	비율 (%)
다른 기술자에게 고용되어 있음	66	10.5
운영 중임	340	54.1
프리랜서로 활동함	104	16.6
기타	118	18.8

〈표 3-50〉 반영구화장 업소 사업자 등록 여부

	빈도	비율 (%)
등록함	352	56.1
무허가	276	43.9

<표 3-51> 반영구화장 기술자의 사업자 등록 분야

	피부	메이크업	화장품 도·소매	네일	토탈 뷰티샵	헤어	교육 서비스	기타	합계
비율	34.9	20.7	16.5	11.4	5.7	5.4	1.7	4.0	100.0
응답자수	123	73	58	40	20	19	6	14	352

〈표 3-52〉 주된 반영구화장 기술 장소의 사업자 등록 여부

(단위: %)

	미용 시설	원룸 (오피스텔)	병·의원	출장	문신 전문샵	기타	계
등록	184(52.3)	12(3.4)	6(1.7)	8(2.3)	126(35.8)	16(4.5)	352(100)
미등록	90(32.6)	43(15.6)	7(2.5)	67(24.3)	41(14.9)	28(10.1)	276(100)
계	274	55	13	75	167	44	628

한 달 평균 반영구화장 기술 건수는 평균 21.9건이었으며, 5~10건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고, 11~20건 정도라는 응답이 28.5%였다.

주로 기술하는 반영구화장의 종류로는 눈썹(53.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라

인(45.2%)이었다. 입술과 두피는 각각 29.5%,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당 가격은 눈썹은 평균 190,485원, 아이라인 128,091원, 입술 260,929원, 두피 347,722원으로 응답하였다. 시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눈썹과 아이라인의 경우에 11~20만 원에 주로 분포하였으며, 입술과 두피의 경우 대부분 2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 한 달 평균 반영구화장 시술 건수

N=340	빈도	비율 (%)
5건 미만	50	14.7
5~10건	105	30.9
11~20건	97	28.5
21~50건	69	20.3
51건 이상	19	5.6
평균	21.9건	

〈표 3-54〉 한 달 평균 반영구화장 시술 건수 (전업인 경우, N=179)

N=340	빈도	비율 (%)
5건 미만	9	5.0
5~10건	47	26.3
11~20건	56	31.3
21~50건	51	28.5
51건 이상	16	8.9
평균	28.5건	

〈표 3-55〉 주로 시술하는 반영구화장의 종류

	빈도	비율 (%)
눈썹	338	53.8
아이라인	284	45.2
입술	185	29.5
두피	101	16.1
기타	13	2.1

〈표 3-56〉 반영구화장 시술 당 가격의 분포

(단위: %)				
구분	눈썹	아이라인	입술	두피
10만원 이하	9.0	44.0	3.2	5.9
11~20만원	87.0	53.9	24.9	16.8
20만원 초과	2.0	2.1	71.9	77.2
평균	190,485원	128,091원	260,929원	347,722원

연평균 매출은 평균 1,838만 원으로,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연평균 500만 원 이하의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0만 원 이하 23.0%, 1,000만 원 이하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7〉 반영구화장 기술자의 연평균 매출액

	빈도	비율 (%)
500만 원 이하	170	50.0
1,000만 원 이하	41	12.0
3,000만 원 이하	78	23.0
5,000만 원 이하	31	9.0
5,000만 원 초과	20	6.0
평균	1,838만 원	

〈표 3-58〉 반영구화장 기술자의 연평균 매출액 (전입인 경우, N=179)

	빈도	비율 (%)
500만 원 이하	74	41.3
501~1,000만 원 이하	22	12.3
1,001~3,000만 원 이하	46	25.7
3,001~5,000만 원 이하	22	12.3
5,000만 원 초과	15	8.4
평균	2,272만원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주요 장소로는 ‘미용 시설’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반영구화장 전문샵’이라는 응답이 26.6%였다. 이어서 ‘출장’이 11.9%였으며, ‘원룸 또는 오피스텔’이라는 응답이 8.8%로 응답하였다. 기타로 응답한 건수는 7%로 현재 활동을 하지 않거나, 준비 중인 경우가 많았다.

기술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보건소, 구청 및 민생사법경찰의 단속 및 처벌 경험을 물어본 결과, 단속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0.5%로 낮은 편이었으며, 처벌 경험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9〉 반영구화장 기술 장소

구분	빈도	비율 (%)
미용 시설	274	43.6
원룸/오피스텔	55	8.8
병·의원	13	2.1
출장	75	11.9
반영구화장 전문샵	167	26.6
기타	44	7.0

〈표 3-60〉 경찰, 보건소, 구청 및 민생사법경찰의 단속 및 처벌 경험

구분	단속		처벌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있음	129	20.5	74	11.8
없음	499	79.5	554	88.2

다. 재료 및 기기 관련

반영구화장 기술에 사용되는 ‘색소’의 대부분은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95.7%)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색소의 구입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다는 응답이 29.6%, 전화로 주문 24.2%,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 20.5%, 방문판매업체 7.0%, 해외 직구 6.7%, OEM, ODM의 방식으로 소량 주문 후 라벨링 3.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색소의 구입 기준으로는 ‘품질’이라는 응답이 85.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원산지의 경우에는 국내 47.6%, 해외 44.1%로 나타나 국내산 제품이 낮았다.

〈표 3-61〉 반영구화장용 색소의 환경부 허가 여부

	빈도	비율 (%)
그렇다	601	95.7
그렇지 않다	3	.5
모른다	24	3.8

〈표 3-62〉 반영구화장용 색소 구입 경로

	빈도	비율 (%)
인터넷 카페, 밴드 등	129	20.5
국내 인터넷 쇼핑몰	186	29.6
방문판매 업체	44	7.0
전화주문	152	24.2
해외직구	42	6.7
OEM, ODM의 방식으로 소량 주문 후 라벨링	20	3.2
기타	55	8.8

〈표 3-63〉 반영구화장용 색소 선택기준

	빈도	비율 (%)
가격	4	.6
브랜드	28	4.5
품질	535	85.2
평판	53	8.4
기타	8	1.3

〈표 3-64〉 반영구화장용 색소 원산지

	빈도	비율 (%)
국내	299	47.6
해외	277	44.1

반영구화장용 머신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사용 중인 머신이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는 응답은 79.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3%였으며,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신의 구입은 머신 관련 회사의 홍보 또는 교육 참석을 통하여 26.3%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인터넷 쇼핑몰(19.1%)이나 전화 주문(17.7%)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타 경로로는 수강한 학원을 통해서 구입하였다는 응답이 대부분 이었다.

머신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품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7%였으며, 머신의 대부분은 국내 제품(83.3%)이었다.

〈표 3-65〉 사용 중인 반영구화장용 머신의 의료기기 2등급 허가 여부

	빈도	비율 (%)
그렇다	502	79.9
그렇지 않다	21	3.3
모른다	105	16.7

〈표 3-66〉 반영구화장 머신의 구입 경로

	빈도	비율 (%)
인터넷 카페, 밴드 등	94	15.0
국내 인터넷 쇼핑몰	120	19.1
방문판매 업체	48	7.6
전화 주문	111	17.7
해외직구	19	3.0
제품회사 홍보 및 교육 참석 시	165	26.3
기타	71	11.3

〈표 3-67〉 반영구화장 머신의 선택 기준

	빈도	비율 (%)
가격	8	1.3
브랜드	21	3.3
품질	513	81.7
평판	72	11.5
기타	14	2.2

〈표 3-68〉 반영구화장 머신의 원산지

	빈도	비율 (%)
국내	523	83.3
해외	105	16.7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세척기 또는 소독기의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자외선 소독기’ 81.1%는 높게 나타났으나 초음파 세척기 22.85, 고압증기 멸균기 12.3%, 건열멸균 소독기 22.6% 등으로 구비 비율이 낮았다. 관리/청소 주기에 있어서 1주일에 1~2회 이상 관리한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80%가량 나타났다.

〈표 3-69〉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세척기(소독기)의 보유율 및 관리(청소) 주기

	보유		관리(청소) 주기(%)			
	빈도	비율 (%)	잘 못함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매일
초음파 세척기	143	22.8	.7	11.9	31.5	55.9
자외선 소독기	509	81.1	4.1	16.9	30.6	48.3
고압증기 멸균기	77	12.3	2.6	13.0	39.0	45.5
건열멸균 소독기	142	22.6	4.2	12.0	42.3	41.5

라. 시술 서비스 관련 현황

반영구화장 시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2.4% 정도였으며, 동의서에 내용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비용, A/S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37.4%였다.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문신 시술자들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피시술자와 충분히 구두로 의사소통을 해서 따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합법화된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응답도 가끔 눈에 띄었다.

일회용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취급하는 경우는 45.9%로 나타나 절반 이하였고, 튜브와 바늘대와 같은 기구들을 세척 후 멸균한다는 응답 비율은 55.1%에 불과하였다. 한편, 반영구화장 시술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소독 위생 등의 안전 관리 교육에 대해서는 39.6%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20.1%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에 사용하는 색소, 마취제, 기기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17.7%, 23.9%, 10.0%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미 신뢰의 이유는 문신 시술자들의 의견과 유사한 맥락이 주를 이루었다. 즉, 반영구화장이 불법인 상황에서 시술 재료나 기기 역시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 3-70〉 반영구화장 운영 전반

연번	문항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기술 전 동의서를 작성한다	57.6	42.4
2	동의서에 부작용, 비용, A/S 등이 포함되어 있다	62.6	37.4
3	피기술자와 구체적으로 상의 후 기술을 한다	99.5	0.5
4	피기술자의 피부 특성이나 알러지 등을 확인한다	97.1	2.9
5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99.4	0.6
6	일회용 바늘을 사용한다	99.7	0.3
7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97.0	3.0
8	일회용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45.9	54.1
9	미성년자에게 기술하지 않는다	87.4	12.6
10	튜브와 바늘대는 세척 후 멸균 과정을 거친다	55.1	44.9
11	염료는 멸균된 1회용 캡에 덮어서 사용한다	97.8	2.2
12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76.1	23.9
13	세척 및 소독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35.0	65.0
14	세면대가 기술 공간 안에 있다	70.1	29.9
15	대기실과 기술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85.0	15.0
16	A/S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다	96.5	3.5
17	국내 문신용 염료의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다	17.7	82.3
18	국내 마취제의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다	23.9	76.1
19	국내 문신용 기기의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다	10.0	90.0

〈표 3-71〉 반영구화장 기술자의 직무 관련 소독 위생 등 안전 관리 교육 경험

	빈도	비율 (%)
있음	379	60.4
없음	249	39.6

〈표 3-72〉 반영구화장 기술자의 질병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경험

	빈도	비율 (%)
있음	502	79.9
없음	126	20.1

반영구화장 기술과 관련한 안전 관리에 있어서 ‘기술자의 자격 관리’에 대한 응답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바늘, 장갑, 일회용 마스크 등 일회용품 관리’와 ‘소독 및 멸균 장비 구비에 대한 관리’라는 응답이 각각 19.2%, 18.3%로 뒤를 이었다.

〈표 3-73〉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도

연번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안전한 색소(염료) 사용 관리	18.2	9.877
2	소독 및 멸균 장비 구비에 대한 관리	18.3	9.120
3	시술자 자격 관리	25.8	13.182
4	업소의 시설기준 관리*	9.4	4.739
5	바늘, 장갑, 마스크 등 일회용품 사용 관리	19.2	11.645
6	폐기물 처리	8.3	4.598
7	기타	12.66	9.056

마. 교육, 자격증 관련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98.7%였고, 그중 58.6%는 민간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샵을 통해서 개별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는 34.4%였다. 평균 교육 기간은 1~3개월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52%), 교육 시간으로 보면 150시간 이하의 교육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3-74〉 반영구화장 관련 교육 수강 여부

	빈도	비율 (%)
받았다	620	98.7
받지 않았다	8	1.3

〈표 3-75〉 반영구화장의 교육형태- 반영구

	빈도	비율 (%)
개인샵	216	34.4
아카데미(민간학원)	368	58.6
정규 학교교육	12	1.9
기타	24	3.8

〈표 3-76〉 반영구화장 교육받은 개월 수

	빈도	비율 (%)
1~3개월	325	52.0
4~6개월	215	35.0
7개월 이상	77	12.0
평균 4.9개월		

〈표 3-77〉 반영구화장 교육받은 시간

	빈도	비율 (%)
60시간 이하	225	36.0
61~150시간	239	39.0
151~300시간	104	17.0
300시간 초과	52	8.0
평균 142시간		

응답자의 82%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29.9%는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격증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종류로는 미용(헤어, 네일,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이나 피부 관련 자격증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다른 사람에게 반영구화장 기술 교육을 하는 비율이 31.8% 정도로, 교육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68.2%).

반영구화장 관련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문신 관련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81.5%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라는 입장이 81.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3-78〉 반영구화장 기술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빈도	비율 (%)
국가자격증	515	82.0
관련 민간자격증	188	29.9
자격 없음	69	11.0

〈표 3-79〉 타인에게 반영구화장 기술 교육 실시 여부

	빈도	비율 (%)
실시함	200	31.8
실시하지 않음	428	68.2

〈표 3-80〉 반영구화장 자격증 신설에 대한 의견

	빈도	비율 (%)
필요함	496	79.0
필요하지 않음	132	21.0

〈표 3-81〉 문신 관련 자격증 신설에 대한 반영구기술자의 의견

	빈도	비율 (%)
필요함	512	81.5
필요하지 않음	116	18.5

〈표 3-82〉 반영구화장 기술 자격 신설 시 부여 주체에 대한 의견

	빈도	비율 (%)
국가	511	81.4
민간	99	15.8
기타	18	2.9

반영구화장 기술 및 업체에 대한 허가제 또는 신고제 운용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였고, 신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6.0%인 것으로 나타나, 허가제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기술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99.0%인 것으로 나타나, 반영구화장 기술이 의료상의 성격 이외의 기술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3〉 반영구화장 기술의 허가제/신고제에 대한 의견

	빈도	비율 (%)
허가제	334	53.2
신고제	289	46.0
현행 제도 유지(합법화 반대)	3	.5
기타	2	.3

〈표 3-84〉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기술 허용 관련 본인의 의견

	빈도	비율 (%)
비의료인에 의한 기술 허용	622	99.0
허용하면 안 됨	2	.3
의견 없음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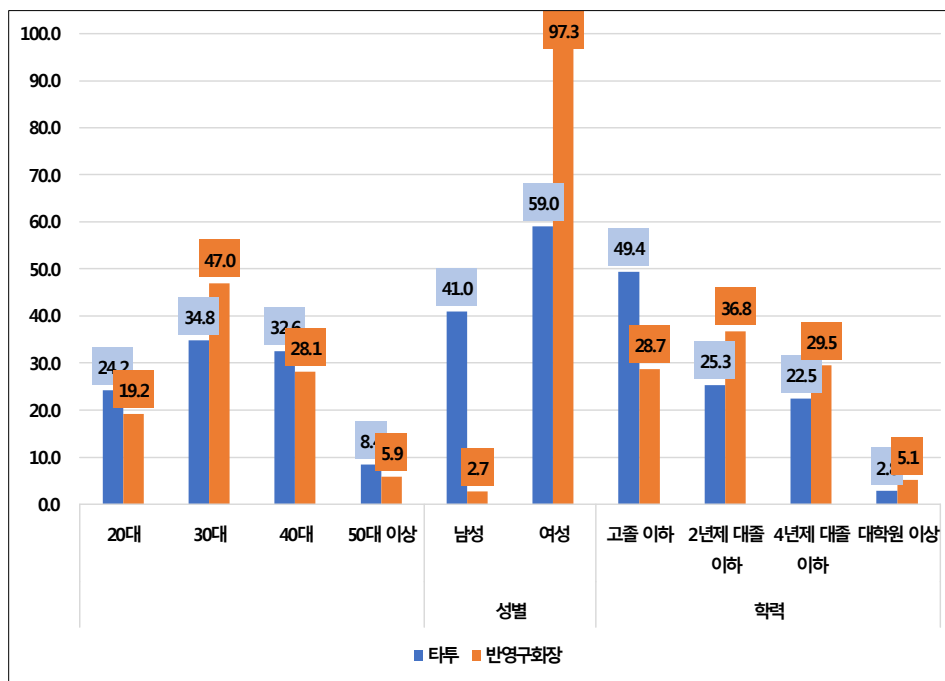
3.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 요약 및 소결

가. 문신 및 반영구화장 기술자의 일반적 특성

문신 기술을 문신/반영구화장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신 기술자의 경우 남성이 41%, 여성이 59%로 성별로 비등하였다. 반영구 기술자는 여성이 97.3%로 압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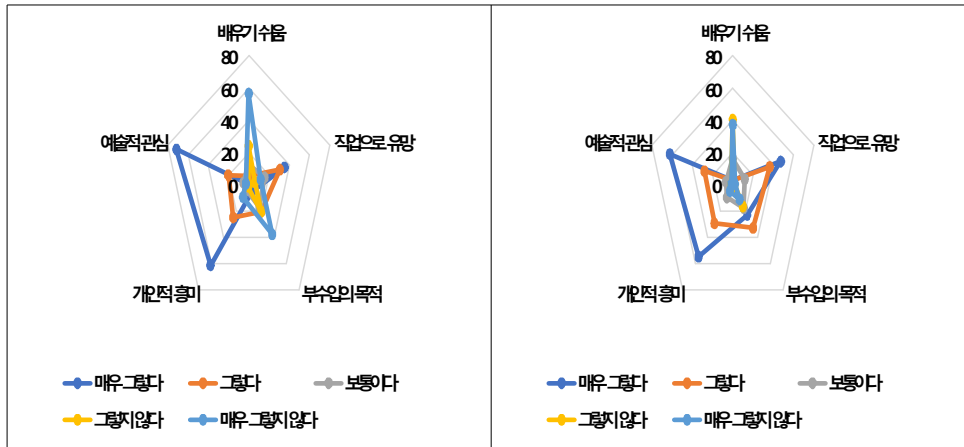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와 40대의 문신/반영구화장 기술자가 많았다. 반영구 기술의 경우 30대가 눈에 띄게 많은 비율을 보였으나, 문신 기술자는 20~40대에 고르게 분포된 편이었다.

[그림 3-2] 문신 기술자의 일반적 현황



문신 기술자의 기술 동기를 살펴본 결과, 문신과 반영구화장 기술 모두에서 예술적 관심 및 개인적 흥미의 동기가 가장 컸고, 직업으로서 유망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수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수입의 동기로는 문신과 비교해서 반영구화장 기술이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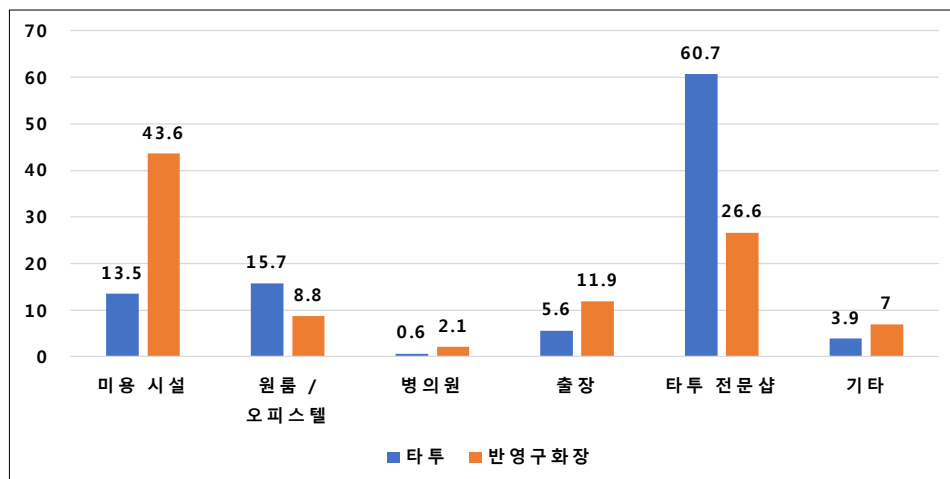
[그림 3-3] 문신 시술자의 동기(좌: 문신 / 우: 반영구화장)



나. 시술 관련 제반 환경

문신/반영구화장의 시술을 하는 주요 장소는 다음 [그림 3-4]와 같이 차이를 보였다. 우선 문신의 경우 대부분 문신 전문샵을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원룸 / 오피스텔이나 미용 시설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구화장의 경우 미용 시설을 중심으로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문신 전문샵에서도 시술이 많이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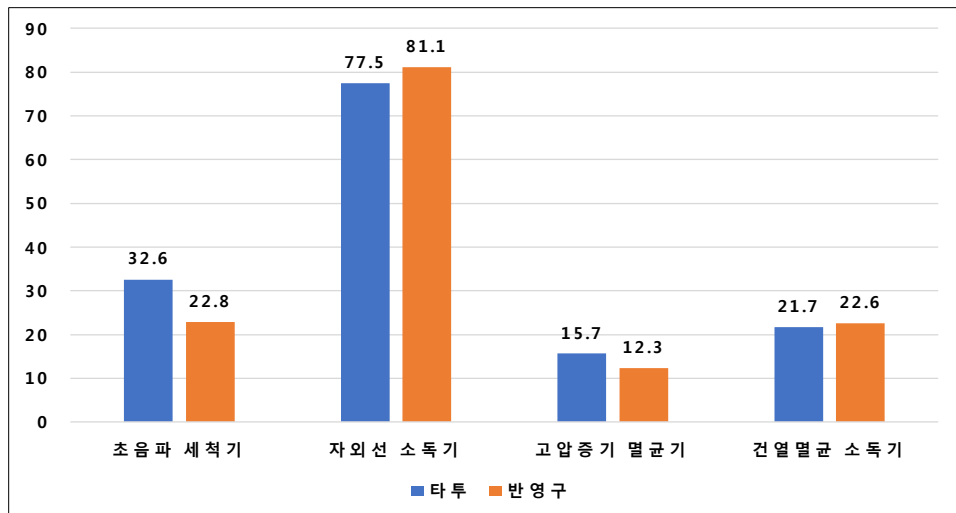
[그림 3-4] 문신 시술을 주로 실시하는 장소



다. 재료 및 기기 관련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세척기/소독기 보유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자외선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초음파 세척기를 운용하고 있었다. 고압증기 멸균기나 건열멸균 소독기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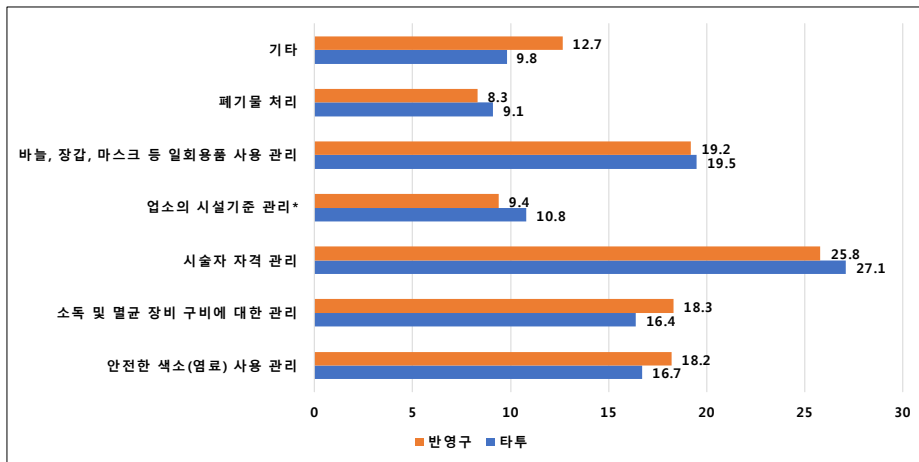
[그림 3-5] 세척기/소독기 운용 현황



라. 기술 서비스 관련 현황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살펴본 결과, 문신/반영구화장의 구분과 상관없이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기술자 자격 관리’로서 응답자의 25%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바늘, 장갑, 마스크 등 일회용품 사용관리’와 ‘소독 및 멸균 장비 구비에 대한 관리’로서, 의료 및 위생 관련 안전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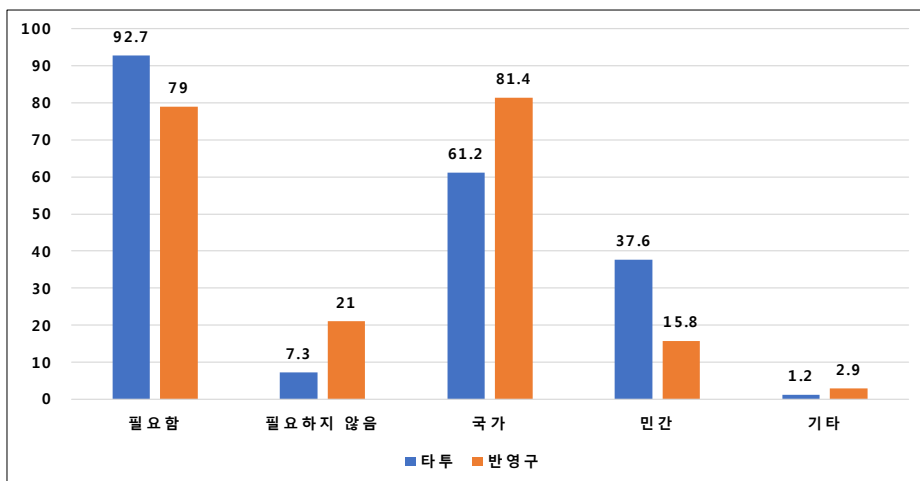
[그림 3-6]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



마. 교육, 자격증 관련

문신 기술자들 대부분은 문신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격증 발급 및 관리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보인다. 자격증 발급과 관리에 있어서 문신의 경우 ‘민간’을 선호하는 비율이 37.6%로 반영구 15.8%에 비해서 두 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림 3-7] 문신 기술 관련 자격증 신설 및 자격부여 주체에 대한 인식



제2절 문신 염료 및 기기 질적 조사 결과

1. 면담 분석 결과

면담 분석 결과는 문신 염료 및 기기에 대한 제조, 수입, 유통에 관한 허가 및 안전성과 시장 효율성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다.

면담참여자들의 상황 및 영업상의 입장들을 고려할 때 허가시장보다 무허가시장이 더 크게 형성하고 법망을 피하여 영업하기 쉬운 점조직 형태로 시장지배가 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 및 허가된 시장구조를 지향함에 의견을 일치하며 면담에 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체

염료 원자재 수입업체와 염료 완제품 수입업체 경쟁력 약화: 원자재 및 완제품을 수입하여 허가 절차를 거치는 동안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표 3-85> 문신용 염료업체 관계자들의 면담으로 도출된 허가 및 무허가제품 생산

	허가	무허가	비고
염료 원자재 수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수입국 : 독일, 일본, 미국 - 한국에서 분산기술 및 믹싱작업 - 허가작업을 거쳐 자가검사 번호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국 ; 중국, 인도 등 - 한국에서 믹싱작업 - 허가작업 없이 바로 유통 	염료 원자재 수입 ->염료 완제품 국내생산 ->국내소비 및 국외수출
염료 완제품 수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수입국 : 미국 - 허가작업을 통해 자가검사 번호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수입국 : 중국 - 색소 대량(벌크)수입 후 국내에서 소분 작업을 거친 후 유통 -벌크 수입(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수입 코드신고만 수입 가능) 	완제품 수입 -> 국내유통 및 아시아 시장 거점유통

염료원자재를 수입하여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투자하여 업체마다 원천기술을 가지고 최고품질의 반영구염료를 만들어 국내 및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을 잠식당함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나가고 고객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함에 억울해한다.

안전성 검사 없는 통관절차로, 문신용 염료는 관세법상 ‘수입통관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수입통관 집중관리 품목’은 수입국·제품 일치성(수입 목록과 실제 제품이 같은지) 등만 검사한다. 문신용 염료도 ‘수입통관 집중관리 품목’으로 안전성 검사 없이 세관 통과한다.

환경부 산하 시장감시단(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시판 중인 염료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을 어기지 않았는지 안전성을 조사한다.

선 수입, 후 관리 체제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입 시 유해성 검사 등이 이뤄졌는지, 또 제대로 승인받은 제품인지를 따져 어길 경우 국내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벌크로 문신용 염료를 수입할 때부터 목적이 드러남에도 어떠한 제제도 없이 수입 통관해 그들에게 편하게 무허가 영업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 보통 다른 수입제품은 유해성 검사 및 승인 절차 인가확인 등을 받아오게 한 다음 관세청에 그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시켜준다면지 하여, 불법 수입에 대한 일차 안전장치가 있지만, 염료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수입코드 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으므로 그 원료를 활용하여 추후 허가받지 않고 반영구염료를 생산함으로 상대적으로 허가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는 출발 선상이 다르다.”

(면담참여자 #2)

완제품 생산방식은 “생산”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 수가 난립하고 있다.

<표 3-86> 반영구화장 염료완제품 생산방식

업체 허가유무	생산방식	업체 수	비고
허가업체	기술력과 공장 규모 갖추어 생산	약 7곳	무허가업체의 시장잠식으로 위기
	주로 소 분업	약 33곳	
무허가업체	소분업 및 불법 상표부착	확인 불가	허가업체 수보다 많음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공급업체 등록 수는 환경부 등록 업체 수 약 40여 곳이다. 기술력 및 규모를 갖춘 공장을 가진 업체 수는 약 7곳이다. 나머지 등록 업체는 주로 대용량 완제품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하는 소 분업 위주 업체로 추정된다. 무허가 업체의 불법 상표부착 방식의 소량주문으로, 반영구화장시술자 상표 스티커 부착 방식 무허가 제품이 난립한다.

“무허가 업체에서 20 미만의 개수의 염료도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이름과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에 위기의식을 느낀다. 공개적으로 안전성을 강조하고 염료의 질적인 것을 강조해도 사용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을 가장 크게 느끼는데 출발이 다르니 따라갈 수가 없다.”
(면담참여자 #1)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당하는 것 같다. 허가업체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잘 감시당하고 있는 듯하다. 어차피 외국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안전기준으로 보도되는 것은 허가업체의 몫이지 않은가? 오히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제품은 더욱 자유롭게 유통되는 듯하다.”
(면담참여자 #3)

나. 검사 및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는 염료를 피부 내에 주입해 잔존하여 색을 입히는 시술함에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검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2015.6.26)되어 2015.9.26.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받고, <환경기술연구원>에 신고하여 신고번호를 받아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신고번호를 제품에 ‘자가검사번호’로 표시한다.

“검사받는 과정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 없이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참 황당하고 마치 도박하는 심정이다. KTR에서 검사항목은 다 통과되어 환경기술연구원 신고까지 마쳤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니켈이 검출되었다 하여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엄청난 위해 물질이라면 검사항목에 넣어야 하지 않나? 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만 지우나? 불경기에도 열심히 살아간다. 참 억울하기 그지없다. 하도 억울해서 ‘니켈’에 대하여 확인해보니 내 제품에 함유된 정도가 미세먼지나 담배에 포함된 양보다 적더라.”

(면담참여자 #5)

유해물질은 유해물질 기준(중금속 12가지 포함 15종류)과 사용 제한물질(64가지)로 구성한다. 유해물질 기준은 15종으로 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다. 사용제한물질은 64종으로 유해물질검사 전 자진신고형식의 ‘사용제한물질 불포함 확인서’를 제출한다.

“중금속 12가지 검사까지는 이해하겠다. 하지만 사용 제한 물질 64가지에 있어서는 참 알 수 없는 사항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64가지가 없다는 것을 검사 전, 자진 신고 형식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검사를 받으려면 확인서에 사인하고 제출하였다. 하지만 64가지가 포함되었는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

(면담참여자 #4)

검사기준은 유해물질 포함 제한 및 사용 제한물질 불포함 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 물질’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5개의 등급 중 인체와 관련 있는 1군, 2A, 2B군을 유해물질 및 사용 제한물질에 포함한다. 유해물질(15종)은 허용기준치를 두고 있으며, 사용제한물질 64종은 포함되면 안되는 물질이다. 유해물질 15종 중 중금속 12종은 ‘인체발암물질’ 1군, 2A, 2B군에 해당한다. 사용제한물질 중 니켈은 ‘인체발암물질’ 2B군에 해당함에도 사용제한물질로 규정함으로 허용기준치를 두고 있지 않다.

<표 3-87> 주요 유해물질의 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물질 등급

물질명	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물질 등급	허용기준치	국내검사기준항목 구분
비스	1군	2mg/kg	유해물질
카드뮴	1군	0.2mg/kg	유해물질
납	2B	2mg/kg	유해물질
니켈	2B	0	사용제한물질
아연	-	50mg/kg	유해물질
구리	-	25mg/kg	유해물질

“금도 순도 100% 없다. 문신 염료는 기본적으로 아연 옥사이드 즉 철이 주성분이다. 어떻게 니켈이 안 나올 수 있느냐? 차라리 미국 FDA처럼 원재료를 검사해서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말한 1군 발암물질도 허용기준치를 두는데 2B군인 니켈을 사용제한물질에 둔다는 것조차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좋다! 이것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해성이 있다면 유해물질 항목에 넣어서 검사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면담참여자 #2)

국내 검사 기준은 완제품 검사이고, 외국 검사 기준은 주로 제품 구성 주재료 검사이다.

“미국에서 FDA 승인 받은 완제품을 15mL 단위로 많은 양을 수입하여

소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국내유통을 위해 제출서류가 얼마
무마 하고 심지어 염료의 핵심기술인 ‘배합 비율’까지 요구한다. 미국회사
에게 그 사안을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한마다로 ‘넌센스’라고 한다. 참 여러
해 사업을 하면서 미국회사와 의사소통 중 마지막 들은 답변이 ‘내가 한국
유통과 동남아권 독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한다 해도 가끔씩 지나친 요
구사항에 답을 줄 수가 없다 너 보다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일본
바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유난히 한국에서만 왜 문제가 자꾸 생기냐
미안하지만 다른 업체를 알아봐라’라는 답변을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지나친 검사기준이 아니겠느냐?”

(면담참여자 #2)

“나도 할 말이 많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독일완제품을 수입하여
한국 검사기준에 넣었지만 전 제품라인이 불합격 나왔다. 물론 그 제품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제품 이었다. 현재는 수입을 포기
하고 원자재만 수입하여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 또한도 어려움이 많지만
제조 규정을 만들어 공장 설비부터 단속하여 처음부터 관리·감독하던지
아니면 추후 생산품만 관리·감독하든지 우린 지금 현재 시작할 때도 힘들
고 추후 시장 감시하면서도 힘들고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럴 바엔 내가 처
음부터 뭐 하러 허가받고 영업을 시작했나 싶다. 아예 무허가 영업하다 걸
려도 처벌 규정은 비슷한데...”

(면담참여자 #1)

불이행 시 제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7조, 유통매
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제49조, 안전·표시기준 위반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제재에 대한 세부 규칙이 부족한 실정이며, 허가
업체, 무허가업체 또는 허용기준치를 얼마나 위해한 물질로 얼마큼의 위해성을 가지는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고려사항은 부재하다.

“모두가 힘들게 사업하는 작은 업체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하라는 검사 이행 하고 세금 신고하고, 하지만 적발 시에는 기준치에 넘어가는 정도와 상관없이 또 허가업체나 무허가업체나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 죽어 한다. 사실 한번 나오면 보도자료 송출, 내수 시장 및 수출 반 토막 난다. 2016년에 한번 겪었다. 그사이 무허가 업체는 역이용해서 오히려 우리 안 걸렸어 하며 안전하다고 거짓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장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면담참여자 #3)

시장감시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의 화학 안전 관리단이 하는데, 이용자 수에 비해 감시단체 규모가 작다. 문신 염료공급자협의체를 만들어 시장의 자정 역할이 필요하고, 공급업체들의 한편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수의 업체는 양성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단속에 대상이 될까 하여 오히려 숨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허가업체도 답답함이 많다. 무허가업체가 난립함에 개인적으로 신고도 해보고 했다. 하지만 감시하는 곳에서는 서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밀고 밀더니 결국 감시단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담당자 숫자가 적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우리가 감시하고 관할 기관에 넘겨서 자정하는 대표협의체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제야 절감한다. 하지만 서로 눈치 보는 상황이며 더불어 관할 정부 부처에서는 이러한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업체 모두를 모아 오라고 한다. 몇몇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해야지, 시장구조를 무시하고 모두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서 허가 업체들 중 뜻을 같이하는 몇몇이라도 이사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면담참여자 #1)

다. 표시사항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표시사항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차 포장 또는 초소포장 표시사항은 품목,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일, 생산국, 생산회사명(국내생산품

에 한함), 수입 회사명, 수입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수입품에 한함), 성분, 중량, 자가검사번호, 사용상 주의사항이다.

[그림 3-8] 자가검사 표시 예시

<그림> 자가검사 표시 예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원산지 표기에 대한 혼돈으로, 문신 염료에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문신 공급업체에서 산자부 질의 결과 국내생산 표기 범위는 국내생산 원료물질 85% 이상을 함유해야지만 한다.

“기준법이 없어서 표기에 혼돈이 많습니다. 염료의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국내기술로 재조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산이라고 하는지 외국산으로 표기하는지에 대해 혼돈이 많아 질의했습니다. 저희 업체의 결론은 <main ingredient ***, packing Korea>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조율해서 기준안을 제시해 주시면 소비자들도 혼돈이 없으리라 봅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저가형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단순 믹싱작업으로 ‘made in Korea’를 표기하는 것은 혼돈을 초래할 뿐입니다.”
(면담참여자 #1)

판매업체명과 연락처는 화장품과 같이 국산 및 수입품 모두 판매업체 표시가 있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 2차 포장에 표시 가능 사항은 포장면적이 70cm² 미만인 경우 유해성분, 위험 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 방법은 2차 포장 및 첨부 문서 등에 포함 가능하다.

라. 유통구조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이 병행되고 있으나 점점 온라인 시장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표 3-88> 업체별 유통구조

허가 유무	온라인마켓	오프라인마켓	비고
허가업체	- 업체별 홈페이지, 쇼룸몰 운영 - SNS 마케팅	- 정기재교육 세미나 - 방문판매 - 전화주문	- 점점 온라인 판매가 커지고 있음
무허가업체	- 주로 SNS 마케팅	- 소모임 세미나 - 방문판매 - 전화주문	- 무허가업체의 유통에 제약 적음

마. 시술자를 위한 색소교육

문신기술자들의 색소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정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정규 교육기관에서 문신 색소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 문신기술자들의 수요도를 반영해 문신 염료 전문제조사들 각자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교육자료로 각 회사별로 제품소개 위주의 색소자료를 제본하여 사용한다. 표준화된 교육자료 부재하여 문신 염료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교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피부타입과 기술숙련도에 따라 염료의 선택이 달라져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색이 달라진다. 염료와 안료에 대한 정의도 일반적인 학술용어와 차이가 있다.

바. 문신 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준수는 다음과 같다. 문신용 기기는 의료기기 2등급이고, 문신용 의료기기는 일반인도 구매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시술을 하면 불법이다. 문신사법 합법화 이후 어떻게 분류될지 의문이다.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고수하며,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전자기기 공산품 인증

한다. 니들은 의료기기 1등급, 의료기기 2등급이다.

“문신용 기기는 의료기기로 GMP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화 이후 변화를 지켜볼 뿐이고 일반전자기기 공산품으로 인증이 된다면 저가형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더불어 수출시장까지 한국을 거쳐 수출하는 경로를 가짐으로 국내생산 수출품은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다. 국내법은 의료기기로 현행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면담참여자 #5)

제3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기술자 수 추정

1.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기술자 수 추정

가. 문신 기술자 수

문신 기술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1년 동안 추정되는 문신 기술 건수와 기술자 1명당 1년 동안의 평균 기술 건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문신 수요자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된 남성 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문신 기술 경험을 설문한 조사에서 남성은 21.2%, 여성은 9.3%가 문신 기술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모집단이 되는 인구는 13세 이상 인구로 2018년 인구 총조사에서 남성의 인구는 22,974,065명, 여성의 인구는 23,006,868명으로 이를 가정하였을 때 남성 문신 피기술자 수는 4,870,501명($=22,974,065 \text{명} \times 21.2\%$), 여성 문신 피기술자 수는 2,139,638명이었다($23,006,868 \times 9.3\%$).

문신 기술을 경험한 사람 중 최근 1년 이내에 문신 기술을 경험한 비중은 남성의 경우 40.3%, 여성의 경우 46.1%로 응답하였으므로, 최근 1년 이내에 문신 기술을 받은 남성은 1,962,811명($=4,870,501 \text{명} \times 40.3\%$), 여성은 986,373명($=2,139,638 \text{명} \times 46.1\%$)임. 남성과 여성을 합할 경우 2,949,184명이 최근 1년 이내에 기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년 이내에 1회 기술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29.4%, 2회 41.1%, 3회 16.1%, 4회 4.4%, 5회 1.1%, 6회 1.4%로서 이를 건수로 환산한 경우 1년 동안 기술 건수는 3,079,295건으로 계산된다.

공급자 대상 1달 평균 문신 기술 건수를 조사한 결과 1달 평균 15.8건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를 1년 동안 기술한 건수로 환산할 경우 1년 평균 190건으로 계산이 된다.

문신 기술자 수는 1년 동안 피기술자의 기술 건수 3,079,295건에 대해 1명당 190건으로 산출하면 16,206 기술자($=1 \text{년 기술 건수 } 3,079,295 \text{건} / 1 \text{년 기술자 } 1 \text{명당 } 190 \text{건}$)로 추정된다.

나. 반영구화장 기술자 수

문신 수요자의 경우 남성은 16.3%, 여성은 45.1%가 반영구화장 기술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2018년 인구 총조사에서 남성의 인구는 22,974,065명, 여성의 인구는 23,006,868명을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하였으므로 이를 가정하였을 때 남성 반영구화장 기술자 수는 3,744,772명($=22,974,065 \times 16.3\%$), 여성 반영구화장 기술자 수는 10,376,097명이었다($23,006,868 \times 45.1\%$).

문신 기술을 경험한 사람 중 최근 1년 이내에 문신 기술을 경험한 비중은 남성의 경우 44.3%, 여성의 경우 40.4%로 응답하였으므로, 최근 1년 이내에 문신 기술을 받은 남성은 1,658,933명($=3,744,772 \times 44.3\%$), 여성은 4,191,943명($=10,376,097 \times 40.4\%$)임. 남성과 여성을 합할 경우 5,850,876명이 최근 1년 이내에 기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년 이내에 1회 기술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34.4%, 2회 40.5%, 3회 19.1%, 4회 3.0%, 5회 3.0%로서 이를 건수로 환산한 경우 1년 동안 기술 건수는 5,850,874건으로 계산된다.

공급자 대상 1달 평균 반영구화장 기술 건수를 조사한 결과 1달 평균 21.9건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를 1년 동안 기술한 건수로 환산할 경우 1년 평균 263건으로 계산이 된다.

반영구화장 기술자 수는 1년 동안 피 기술 5,850,874건에 대해 1명당 263건으로 산출하면 기술자 수는 22,246명($=5,850,874 \text{건} / 260 \text{건}$)으로 추정된다.

2. 문신 및 반영구화장 관련 협회 회원 리스트를 이용한 추정

총 공급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문신 기술업소 및 기술자 리스트를 각 협회에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협회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사전에 공문(안)을 보내 의견 수렴 후 발송하였다. 자료 조사 협조 요청 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3-89> 자료 조사 협조 요청 단체

구분	단체명
문신	한국타투협회
	한국패션타투협회
	한국타투문화협회
반영구화장	대한반영구화장협회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사)K뷰티전문가연합회
	(사)국제K뷰티소상공인협회
	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
	(사)한국뷰티총연합회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사)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요청 사항은 상호, 지역(시군구), 이메일 주소, 기술자였다.

자료 협조 요청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3개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영구 문신 단체 3개, 반영구화장 단체 4개로부터 회신받았다. 파악 규모(인원)는 총 6,807명으로, 영구 문신 단체 2,807명, 반영구화장 단체 4,000명이었다.

<표 3-90> 자료 조사 협조 요청 결과

구분	단체명	자료 회신 여부	규모(인원)
영구	한국타투협회	○	1379명
	한국패션타투협회	○	1391명
	한국타투문화협회	○	37명
	합계		2807명
반영구화장	대한반영구화장협회	○	599명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	—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	558명
	(사)K뷰티전문가연합회	×	—
	(사)국제K뷰티소상공인협회	×	—
	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	○	679명
	(사)한국뷰티총연합회	×	—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	—
	(사)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	×	—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	2164명
	합계		4000명
	총합		6807명

공급자 설문조사에서 문신 기술자 응답자 중 협회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7.5%, 반영구화장 기술자 중 협회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6.6% 수준이다. 이를 이용하여 업체 수를 추정하면 문신 기술자 수는 8,784명, 반영구화장 기술자 수는 18,598명 정도로 추정된다.

3. 문신 기술 용구 재료상을 통해 파악한 기술자 수 추정

현재 영업 중인 문신 기술 용구 재료상을 통해 파악한 결과, 문신 및 반영구화장 재료를 납품하는 대구 경북 기준 재료상 업체 수는 20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 거래처 등록사항을 보면 한 업체당 약 500 업소의 거래처가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이용하여 단순계산하면 약 10,000 업소가 있으나 중복과 지역 외 분포를 최대 50% 예상하여 적용 시 약 5,000개 업소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 네입샵, 피부샵, 헤어샵, 에이크업샵, 단독샵, 기타 등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 경북 기준 인구가 약 500만 명 기준 5,000개 업소를 전국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단순 확장할 경우 약 50,000개 업소로 예상되며, 주로 1인 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 1.2배 할 경우 종사자 수는 60,000명으로 예상한다.

제 4 장

수요자 실태조사 결과

- 제1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상담 신고(소비자원)
사례분석
- 제2절 수요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4

수요자 실태조사 결과 <

<

제1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상담 신고(소비자원) 사례분석

1. 개요

이 절에서는 문신 시술과 관련된 상담 신고 사례를 분석하여 문신 시술의 부작용 등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문신’ 또는 ‘반영구’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은 다양한 질적 자료를 객관적, 수량적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다. 연구에서는 문신 / 반영구화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담의 내용에 대한 단위화 및 범주화 과정을 거친 후 이의 빈도를 측정하는 통계적 내용분석 방법 및 질적 차원에서의 분석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2016~2018년 상담자료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다.. 자료의 원출처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10개의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신 /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하여 상담했던 텍스트 형태의 질적 자료를 제공받아서 상담내용을 확인, 주요 키워드별로 재구성하였다.

3년간의 상담자료는 총 342건으로 2016년 86건, 2017년 130건, 2018년 126건이었다.

〈표 4-1〉 문신 / 반영구화장 관련 상담건수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342	86	130	126

2. 분석내용

가. 상담사례 유형별 현황 파악

2016~2018년 상담사례를 문신, 반영구화장, 기타로 크게 구분한 후, 반영구화장은 서비스 품질, 계약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하위영역 구분을 하였다. 구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신은 반영구화장이 아닌,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신체 문신으로서 팔, 어깨, 등, 가슴 등과 같은 신체 부위에 새겨지는 문신을 의미한다. 둘째, 반영구화장은 주로 미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실시한 부위별로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눈썹의 경우 눈썹 문신, 눈썹 반영구화장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 시술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두피, 미인 점과 같은 시술 케이스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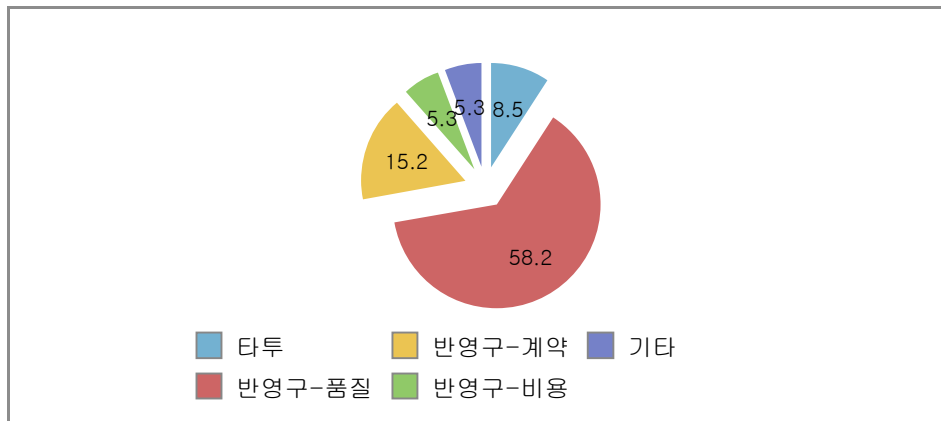
<표 4-2>는 문신/반영구화장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현황을 제시하였다. 내용이 겹치거나,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담사례를 제외한 후, 문신의 경우 연간 8~11건 정도로 3년간 합계 건수 비율로는 9.1% 정도였다. 반면 반영구화장의 경우 2016년 66건, 2017년 102건, 2018년 103건으로 나타나 3년간 8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상담 건수는 3년 합계 건수 비율로 5.7% 정도였다.

반영구화장의 경우 ‘서비스 품질’, ‘계약 관련’, ‘서비스 비용’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서비스 품질’로 구분한 상담사례는 ‘시술받았으나 색이 금방 빠짐’, ‘염증, 알러지 등의 부작용’, ‘비대칭, 시술 상담 내용과 전혀 다른 시술 결과 등 불만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 관련’으로 구분한 상담사례는 ‘리터칭 관련 구두 계약 불이행’, ‘연락 두절’, ‘환불 약속 후 지연/연락 두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비용’으로 구분한 상담사례는 ‘제각각인 시술 비용’, ‘시술자-피시술자 간 사전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 ‘과다한 리터칭 비용 청구’ 등과 같이 시술 비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사례는 시술자가 상담한 경우나 문신 강습과 관련한 등의 내용이다.

〈표 4-2〉 문신 / 반영구화장 상담사례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문신	반영구화장				기타
			소계	서비스품질	계약관련	서비스비용	
2016	78(건)	8	66	44	13	9	6
	100(%)	10.3	84.6	56.4	16.7	11.5	7.7
2017	121(건)	10	102	78	18	6	9
	100(%)	8.3	84.3	64.5	14.9	5.0	7.4
2018	119(건)	11	103	77	21	5	5
	100(%)	9.2	86.6	64.7	17.6	4.2	4.2
합계	318(건)	29	271	199	52	20	18
	100(%)	9.1	85.2	62.6	16.4	6.3	5.7

[그림 4-1] 2016~2018년 발생한 상담사례 유형별 비율



반영구화장을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세 가지 유형이 각각 독립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가령 서비스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시술자가 리터칭을 요구한 경우, 시술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피시술자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청구하는 식의 부적절한 사건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공받은 상담기록의 내용을 살펴보고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이슈별로 하위유형에 대한 구분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하위유형별 건수와 비율은 관점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임.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3〉 문신 / 반영구화장 상담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건	%			
성별	남성	51	15.8	6	32	13
	여성	271	84.2	76	89	106
연령대	10대	2	0.7	—	2	—
	20대	70	25.4	13	27	30
	30대	97	35.1	15	43	39
	40대	51	18.5	11	24	16
	50대	38	13.8	8	13	17
	60대 이상	18	6.5	2	7	9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88	58.4	53	68	67
	강원	7	2.2	—	4	3
	충청(대전, 세종)	35	10.9	10	10	15
	전라(광주)	24	7.5	6	12	6
	경상(대구, 울산, 부산)	64	19.9	11	27	26
	해외 및 기타	4	1.2	2	—	2
상담처리결과	설명 및 정보제공	266	82.4	68	102	96
	부당행위 시정 (계약이행, 환급 등)	12	3.7	2	5	5
	피해구제 접수	0	0.0	7	10	8
	합의 불성립	25	7.7	1	2	2
	처리 불능, 타기관알선, 반려	5	1.5	4	4	7

주 : 상담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항목별로 기입된 응답의 숫자가 다를 수 있음

나. 상담사례 내용분석

상담 사례의 내용분석은 문신 / 반영구화장의 예약(계약)-기술-AS(리터칭)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키워드별로 재구성하여 주제별 분석을 하였다.

1) 예약 또는 계약 관련 상담이슈

예약 또는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환불 거절’과 ‘일방적 피해’라고 할 수 있음. 키워드에 따라 상담내용의 주제를 구분하자면 ‘예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다양한 이유들’, ‘누가, 언제, 어디서 기술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계약’, ‘기술자 중심의 계약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접수된 상담사례에 따르면, 장례식이나 독감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예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예약금을 돌려주는 대신 시술 날짜를 연기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시술 날짜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처리 결과는 대부분 ‘상담 및 정보제공’으로서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을 설명하거나 기타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표 4-4> 예약(계약) 관련 상담내용의 분석결과

핵심키워드	주제	상담내용
환불 거절	예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다양한 이유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나 독감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예약금을 환불받지 못하였음 - 시술업체와 합의한 날짜는 절대적인. 날짜를 어기거나 연기를 하는 것도 예약자의 책임으로 돌림 - 예약금 환불은 불가하나, 이후의 시술은 가능한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몇 개월 지났을 경우에는 시술 서비스도 불가하다는 통보받음
일방적 피해	누가, 언제, 어디서 시술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된 경력을 믿고 찾아갔으나, 실제 경력은 그보다 훨씬 짧았음 - 처음 예약 상담 시 매칭된 시술자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술함 - 시술 시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음 - 전문샵으로 알고 예약했으나 찾아가 보니 개인 가정집이었음 - 네일샵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여러 가지 시술을 실시함
	시술자 중심의 계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터칭이 포함된 계약이었으나, 리터칭 일정은 감감무소식임 - 리터칭을 위하여 시술자를 찾아갔으나 폐업, 업체변경, 이사 등의 미리 고지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 - 1차 시술에서 생긴 상처로 인해서 2차 시술(리터칭)이 미뤄진 경우, 시술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음

2) 문신 /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이슈

문신 /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상담내용은 시술의 효과가 없거나, 시술 결과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1차 시술 이후에 2차, 3차 시술인 리터칭으로 이어지는데, 리터칭 시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1차 시술 후 2차 시술을 받기 위한 조건들-시술 시 발생한 상처 등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또는 1차 시술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후 2차 시술을 받아야 하는-이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특히 기존의 시술을 제거하고 2차로 시술받는 경우에 피시술자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감과 고민을

안게 된다. 이는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바, 피시술자의 입장에서 1차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시술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술자에게서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며, 시술자와의 작은 언쟁이라도 생기는 경우에는 2차 시술의 결과가 1차에 비해서 더 안 좋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2차 시술부터 다른 시술자 또는 병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차 시술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가중된다. 즉 피시술자 입장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갖지도 못한 채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술을 시작 전, 중, 후로 구분해보았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착된다. 시술 전에 시술자-피시술자 간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작 결과물이 엉뚱하게 나오기도 하였고, 시작 전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술자가 임의대로 시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술은 환불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사유로 환불을 거절당하는 상담사례가 많았으며 환불 대신 추가 시술로 유도하는 시술자도 많았다.

시술 중에 일어나는 문제로는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 방식과 시술 환경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시술 시작단계에서 도포하는 마취 크림은 제품의 품질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발라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 너무 적게 바르거나 심지어는 바르지 않은 채 시술을 실시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로 인한 통증이나 상처, 부작용 발생 시 그 원인을 피시술자의 개인적 특성 탓으로 돌린다는 상담내용이 여러 건 발견되었다.

또한 시술 환경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인데, 개와 고양이가 함께 거주하는 개인 공간에서 시술을 했다는 상담사례, 피시술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시술자의 시술 장비만을 갖춘 채 시술하는 경우 등 시술 환경에 대한 면밀한 준비 또는 고려 없이 시술 그 자체에만 신경을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시술 후에는 리터칭에 대한 안내 불친절, 사후 관리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시술자가 단독으로 시술 부위에 대해 관리를 하고, 문제 발생 시에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여타의 여러 업체를 전전공공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신 / 반영구화장의 시술과 관련한 상담내용의 핵심키워드는 ‘불충분한 상담’, ‘기

준 없는 시술’, ‘말뿐인 A/S’라고 할 수 있으며, 내용별 주제는 ‘막연한 상담이 영구적인 결과로’, ‘과정은 모르지만, 믿고 맡겨야 함’, ‘아무도 모르는 시술 결과’, ‘시술 책임은 피시술자의 몫’, ‘리터칭 의지가 보이지 않음’, ‘결국,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좁힐 수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5> 시술 관련 상담내용의 분석결과

핵심키워드	주제	상담내용
불충분한 상담	막연한 상담이 영구적인 결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술 전 특별한 상담 없이 시술을 받았음(피시술자는 금속 알려지가 있음). 눈을 떴다 감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염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 - 상담시 피시술자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시술자 마음대로 칼라를 집어넣었음(문신이므로 지우기 어려움) - 잉어 문신을 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모양의 잉어 문신을 하였음(시술자 임의대로 더 멋있어 보이는 잉어를 넣었다고 함) - 상담 없이 바로 마취 후 아이라인 시술하였음
	과정은 모르지만 믿고 맡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디자인 없이 반영구화장(눈썹) 시술하여 비대칭 발생(이후 10개월 넘도록 지워지지 않음) - 시술업체에서 받은 재생 크림의 출처도 없고,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가 없음 -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름이 나고 통증이 있었음. 업체에서는 누구나 거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기다리라고 답변함
기준 없는 시술	아무도 모르는 시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구화장 시술 후 붉은색으로 착색된 부분을 발견, 시술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원래 착색되었던 것이라고 함 - 눈썹 시술 시 일자 눈썹 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했으나, 일자 눈썹으로 시술되었음 - 누가 봐도 비대칭인데, 시술자는 비대칭이 아니라고 함
	시술 책임은 피시술자의 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피시술자의 체질 탓이라고 함 - 시술 시 통증은 피시술자의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임(통증만 있었고 시술효과가 없었던 케이스) - 시술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을 시술자가 인정하였으나, 리터칭 또는 환불은 거절하였음
말뿐인 A/S	리터칭 의지가 보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합의된 리터칭임에도 시술자가 너무 바빠서 리터칭이 어렵다고 함(이후에 연락 두절) - 1차 시술로 인한 상처 등이 나은 후에 리터칭하기로 하였으나, 상처가 아문 후 연락하니 시간이 너무 지나서 리터칭이 안된다고 함 - 업체에 방문하여 리터칭을 요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리터칭을 연기함
	결국,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터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해짐 - 시술 제거를 위하여 병원 방문 시에 비용이 너무 올라감 - 시술자가 리터칭 전문가라는 다른 업체를 소개함 - 여러 차례의 리터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현상이 나타남(시술 효과 없음 또는 수정안 됨)

3) 문신 / 반영구화장 비용 관련 이슈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비용은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계약시 리터칭 몇 회에 얼마라는 식의 비용 홍보 후 리터칭 횟수를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약의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 1차 시술 결과에 따라서 리터칭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술 시 마다 추가되는 비용이 케이스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계약에 다 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피시술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특별한 기준 없이 시술업체(자)마다 시술비용이 다른 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더욱이 1차 시술이 마친 후에도 최초에 구두로 합의했던 계약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며, 리터칭에 경우에는 그러한 변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용 관련 이슈는 원 시술업체(자)와 피시술자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피시술자의 경우에 리터칭을 원 시술자에게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시술자가 시술제거의 능력이 안되어서 제거만 다른 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시술의 결과물이 불만족스러워서 새로운 시술자에게 리터칭을 의뢰하거나 아예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피시술자는 원시술자에게 리터칭이 포함된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원 시술자의 환불 거절과 새로운 시술업체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였다.

문신/반영구화장 비용 관련한 핵심 키워드는 ‘고무줄 시술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주제는 ‘추가된 줄도 몰랐던 시술비용’, ‘비제도권 사업의 민낯’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6〉 비용 관련 상담내용의 분석결과

핵심 키워드	주제	상담내용
고무줄 시술비용	추가된 줄도 몰랐던 시술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터칭 기간에 대한 안내는 받았으나, 리터칭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추가금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했음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터칭은 불가, 추가 비용 안내함 - 협의 없는 추가 시술 후 비용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비제도권 사업의 민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터칭 비용이 타 업체에 비해서 너무 비쌌 - 카드 결제는 불가함 - 시술비를 선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포한 마취 크림을 닦아내었음 - 허가받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쉽게 이사 또는 폐업할 수 있음. 1차 시술 이후 업체가 사라졌음

3. 결론 및 시사점

현대인의 삶 속에서 문신/반영구화장은 그 목적에 따라 개성을 드러내거나 일상의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차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6년~2018년 문신/반영구화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상담 건수는 342건으로 대부분이 반영구화장(특히 눈썹 반영구화장) 관련된 사례였다.

상당수의 사례가 피시술자의 불만족 또는 시술의 효과가 없음, 비대칭적 결과물, 부작용과 같은 서비스 품질의 문제였으며, 상담의 내용상 제대로 된 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상담사례 중에서 피시술자들의 많은 수가 시술 실패로 인한 외모적인 결함의 문제가 정신적, 금전적인 큰 피해를 가져다주었음을 호소하였으며, 이러한 피해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보였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 또한 음성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영세한 개인 업체에서 1:1 강습을 하기도 하였고 전문 교육업체처럼 교육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교육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한 수강생들은 중도에 이탈하게 된다. 그러나 수강료는 제대로 환불받기 어려웠다.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상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시술이 비전문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러한 시술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제2절 수요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1. 수요자 대상 조사 개요

문신 및 반영구화장 기술이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이 문신 및 반영구화장 기술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인구 비례할당을 통한 표본 1,000명을 추출한 뒤 웹 설문 구축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하였다.

〈표 4-7〉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웹 설문 구축을 통한 온라인 조사
표본크기	1,000명
표본할당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0\%p$
조사기간	2019년 11월 20일 ~ 2019년 11월 28일

〈표 4-8〉 모집단(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남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수도권	909,730	1,887,524	2,071,702	2,197,008	4,318,030
대전/충청권	224,334	429,317	422,486	462,064	988,220
대구/경북권	194,667	363,661	344,951	403,498	985,571
부산/경남/울산권	287,820	552,560	575,394	640,880	1,470,330
광주/전라권	206,751	348,473	322,939	405,368	979,875
강원/제주권	85,395	154,590	139,173	175,601	426,153
합계	1,908,697	3,736,125	3,876,645	4,284,419	9,168,179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수도권	863,196	1,773,537	1,946,401	2,145,339	4,782,543
대전/충청권	205,008	350,586	372,107	426,301	1,092,775
대구/경북권	171,605	288,022	309,264	391,837	1,134,980
부산/경남/울산권	255,909	448,825	514,449	617,531	1,674,706
광주/전라권	186,766	288,732	299,770	379,944	1,123,695
강원/제주권	76,014	119,139	128,041	163,512	476,334

〈표 4-9〉 표본할당

	남자					여자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수도권	20	41	45	48	94	19	39	42	47	104	499
대전/충청권	5	9	9	10	21	4	8	8	9	24	107
대구/경북권	4	8	7	9	21	4	6	7	9	25	100
부산/경남/울산권	6	12	13	14	32	6	10	11	13	36	153
광주/전라권	4	8	7	9	21	4	6	7	8	24	98
강원/제주권	2	3	3	4	9	2	3	3	4	10	43
합계	41	81	84	94	198	39	72	78	90	223	1,000

〈표 4-10〉 조사완료

	남자					여자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수도권	18	15	50	31	10	17	40	48	38	26	293
대전/충청권	2	16	17	7	11	7	14	10	11	13	108
대구/경북권	7	29	17	10	19	7	28	17	20	6	160
부산/경남/울산권	14	40	22	28	35	13	13	20	19	20	224
광주/전라권	6	9	28	8	11	5	12	13	17	12	121
강원/제주권	1	1	14	14	2	2	11	31	16	2	94
합계	48	110	148	98	88	51	118	139	121	79	1000

실제 조사된 표본조사 결과값에 대한 대표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가중치는 전국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 모집단(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에 대한 표본할당 추출비율²⁶⁾의 역수로 산출하였다. 가중치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text{가중치}(w_{ijk}) = \left(\frac{N_{ijk}}{n_{ijk}} \right)$$

여기서,

n = 표본, N = 모집단

n_{ijk} = i 번째 지역, j 번째 성, k 번째 연령의 표본 수

N_{ijk} = i 번째 지역, j 번째 성, k 번째 연령의 모집단 층의 수

$i(\text{지역}) = 1, 2, 3, 4, 5, 6$, $j(\text{성}) = 1, 2$, $k(\text{연령}) = 1, 2, 3, 4, 5$

〈표 4-11〉 가중치 적용 예시

구분	내용
① : 지역	수도권
② : 성	(남)
③ : 연령	(10대)
①*②*③의 모집단 층의 수	(909,730명)
①*②*③의 조사된 표본 수	(18명)
가중치	(909,730/18 = 50540.6)

다음 절부터의 분석 결과는 상기한 가중치를 각 표본 층별로 적용함으로써 결과값의 대표성을 제고하였다. 지역 6개, 성 2개, 연령 5개로 층화됨에 따라 총 60개의 층별 가중치가 적용된 raw-data 기반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26) 추출비율 = n_h/N_h (n_h =세부 층별 표본 수, N_h =세부 층별 모집단 수)

〈표 4-12〉 수요자 대상 조사 응답자 특성표(전체)

구분		비율(%)
성별	남성	49.2
	여성	50.8
연령	10대	9.9
	20대	22.8
	30대	28.7
	40대	21.9
	50대 이상	16.7
결혼여부	기혼	47.9
	미혼	52.1
최종학력	고졸이하	19.5
	2년 대졸이하	14.0
	4년 대졸이하	56.1
	대학원 이상	10.4
직업	학생	14.6
	공무원	7.2
	회사원	36.4
	자영업	9.2
	전문직	12.1
	주부	11.5
	서비스업	6.6
	기타	2.4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4.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0.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0.8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9.5
	600만원 이상	13.6
거주지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29.3
	대전/충청권	10.8
	대구/경북권	16.0
	부산/경남/울산권	22.4
	광주/전라권	12.1

1,000명 중 15.3%는 문신, 30.7%는 반영구화장을 경험하였으며, 59.2%는 둘 모두를 경험하지 않았다. 문신의 경험 비중은, 여성(9.3%)보다 남성(21.2%)이 높았으며, 20대(26.9%)가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8.8%)이 가장 낮았다. 반영구화장의 경험 비중은, 남성(16.3%)보다 여성(45.1%)이 높았으며, 20대(37.9%)가 가장 높았고 10대(14.9%)가 가장 낮았다. 둘 모두의 경험이 없는 비중은, 여성(50.4%)보다 남성(68.0%)이 높았으며, 10대(81.8%)가 가장 높았고 30대(47.2%)가 가장 낮았다.

〈표 4-13〉 문신 및 반영구화장 경험

(단위: %)

		사례수	문신	반영구화장	경험없음
전체		(1000)	15.3	30.7	59.2
성별	남성	(492)	21.2	16.3	68.0
	여성	(508)	9.3	45.1	50.4
연령	10대	(99)	7.4	14.9	81.8
	20대	(228)	26.9	37.9	48.4
	30대	(287)	25.5	37.6	47.2
	40대	(219)	14.9	35.3	55.1
	50대 이상	(167)	8.8	26.4	65.2
결혼여부	기혼	(479)	13.4	33.0	57.6
	미혼	(521)	18.1	27.1	61.7
최종학력	고졸이하	(195)	10.6	31.3	59.8
	2년 대졸이하	(140)	18.5	33.4	54.3
	4년 대졸이하	(561)	15.6	29.9	59.8
	대학원 이상	(104)	18.9	30.2	60.6
직업	학생	(146)	9.3	13.5	82.3
	공무원	(72)	24.7	33.5	50.8
	회사원	(364)	18.5	32.6	55.2
	자영업	(92)	24.7	15.5	63.3
	전문직	(121)	18.3	32.1	57.6
	주부	(115)	6.8	39.4	55.7
	서비스업	(66)	2.9	48.6	48.5
	기타	(24)	5.4	7.1	92.9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4)	4.1	10.9	86.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6)	12.3	37.2	59.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43)	19.2	37.2	49.1

		사례수	문신	반영구화장	경험없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8)	15.9	37.1	54.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08)	13.7	27.1	65.5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5)	18.7	24.8	60.0
	600만원 이상	(136)	15.4	28.9	57.7
거주지	수도권지역(서울/인천 /경기)	(293)	16.7	36.0	53.7
	대전/충청권	(108)	11.5	23.3	69.7
	대구/경북권	(160)	11.9	22.5	69.2
	부산/경남/울산권	(224)	17.5	28.2	59.8
	광주/전라권	(121)	12.5	32.6	57.1
	강원/제주권	(94)	14.7	10.2	76.4

2. 문신 경험자 대상 조사 결과

가. 문신 경험과 만족도

문신 경험이 있는 171명 중, 최근 1년 이내의 경험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3~5년 사이의 경험이 15.6%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 1년 이내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남성: 40.3%, 여성: 46.1%), 최근 3~5년 사이의 경험이 가장 낮았다(남성: 5.6%, 여성: 11.7%).

모든 연령대에서 최근 1년 이내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나, 가장 적은 경험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표 4-14〉 가장 최근 문신 실시

(단위: %)

		사례수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2년 사이	최근 2년~3년 사이	최근 3년~5년 사이	5년 이전	합계
전체		(171)	42.1	23.8	15.6	7.5	10.9	100.0
성별	남성	(109)	40.3	25.7	14.8	5.6	13.5	100.0
	여성	(62)	46.1	19.6	17.5	11.7	5.1	100.0
연령	10대	(7)	66.4	—	15.1	—	18.5	100.0
	20대	(49)	45.4	37.3	12.1	2.5	2.8	100.0
	30대	(66)	46.0	22.3	16.5	10.4	4.8	100.0
	40대	(32)	34.7	25.5	31.1	7.7	1.0	100.0
	50대 이상	(17)	35.6	13.5	7.4	10.8	32.8	100.0
결혼여부	기혼	(87)	44.4	18.7	15.7	9.5	11.6	100.0
	미혼	(84)	39.4	29.9	15.5	5.1	10.1	100.0
최종학력	고졸이하	(14)	64.3		4.4	21.3	10.0	100.0
	2년 대졸이하	(32)	50.5	19.5	13.8	3.3	12.9	100.0
	4년 대졸이하	(104)	36.1	28.5	19.2	6.6	9.5	100.0
	대학원 이상	(21)	33.1	36.0	15.1		15.8	100.0
직업	학생	(12)	37.6	31.1	20.8		10.5	100.0
	공무원	(13)	66.6	24.8	3.9		4.7	100.0
	회사원	(77)	33.0	28.6	19.9	4.6	13.9	100.0
	자영업	(23)	45.6	20.5	8.5	12.4	13.0	100.0
	전문직	(30)	54.9	23.8	18.5		2.8	100.0
	주부	(9)	28.7		14.3	41.2	15.8	100.0
	서비스업	(5)	33.9	4.7		47.1	14.3	100.0
	기타	(2)	53.9		46.1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26.4	6.9	66.8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81.1	8.3	5.4		5.2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	27.0	23.5	16.3	8.2	25.0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36.6	42.1	13.9	4.7	2.7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	43.7	21.4	27.2	2.5	5.2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63.1	10.8		6.5	19.5	100.0
	600만원 이상	(30)	34.4	23.0	21.7	17.8	3.1	100.0

문신 경험이 있는 171명 중, 문신 실시 횟수를 1회부터 6회까지 조사하였다. 평균 횟수는 2.25회였으며, 2회가 가장 많은 응답빈도를 보였다. 여성의 평균 횟수가 2.49회로서 남성의 2.14회보다 높았다. 20대가 2.91회로 가장 높은 평균 횟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0대 2.56회, 30대 2.26회, 40대 2.21회, 50대 이상 1.49회 순으로 높았다.

〈표 4-15〉 지금까지 문신 실시 횟수 (1-6회)

(단위: 회)

		사례수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전체		(171)	2.25	2	2
성별	남성	(109)	2.14	2	2
	여성	(62)	2.49	2	2
연령	10대	(7)	2.56	2	2
	20대	(49)	2.91	3	1
	30대	(66)	2.26	2	2
	40대	(32)	2.21	2	
	50대 이상	(17)	1.49	1	1
결혼여부	기혼	(87)	2.06	2	2
	미혼	(84)	2.46	2	2
최종학력	고졸이하	(14)	1.70	1	1
	2년 대졸이하	(32)	2.89	2	2
	4년 대졸이하	(104)	2.15	2	2
	대학원 이상	(21)	2.55	3	3
직업	학생	(12)	3.03	3	1
	공무원	(13)	2.24	1	2
	회사원	(77)	2.23	2	
	자영업	(23)	1.90	2	2
	전문직	(30)	2.12	2	2
	주부	(9)	2.47	2	3
	서비스업	(5)	3.25	3	1
	기타	(2)	1.46	1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1.76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3.61	3	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	2.11	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2.73	2	2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	2.21	2	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1.88	2	2
	600만원 이상	(30)	1.69	1	1

문신의 부위별 빈도수는, 팔다리 101명, 얼굴 59명, 몸통 48명, 손발 44명, 목 31명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각 부위의 평균 횟수는 거의 비슷하였으며, 얼굴, 목, 팔다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0.1회 높았으며, 몸통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0.2회 높았고, 손발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0.1회 높았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얼굴의 문신 빈도는 50대 이상이 1.9회로 가장 높았고, 목의 경우 40대가 1.3회로 가장 높았고, 몸통의 경우 10대가 1.3회로 가장 높았고, 팔다리의 경우 10대가 2.0회로 가장 높았고, 손발의 경우 20대가 1.4회로 가장 높았다.

〈표 4-16〉 현재까지 실시한 문신의 부위별 빈도수

(단위: 회)

		문신 빈도_얼굴		문신 빈도_목		문신 빈도_몸통		문신 빈도_팔다리		문신 빈도_손발	
		유효 수	평균	유효 수	평균	유효 수	평균	유효 수	평균	유효 수	평균
전체		(59)	1.5	(31)	1.1	(48)	1.2	(101)	1.4	(44)	1.2
성별	남성	(34)	1.5	(18)	1.0	(31)	1.1	(72)	1.4	(18)	1.3
	여성	(25)	1.6	(13)	1.1	(17)	1.3	(29)	1.5	(26)	1.2
연령	10대	(3)	1.6	(1)	1.0	(0)		(4)	2.0	(4)	1.0
	20대	(17)	1.7	(14)	1.0	(18)	1.2	(25)	1.5	(9)	1.4
	30대	(24)	1.4	(10)	1.0	(18)	1.2	(39)	1.4	(24)	1.2
	40대	(12)	1.2	(5)	1.3	(6)	1.2	(23)	1.5	(5)	1.3
	50대 이상	(3)	1.9	(1)	1.0	(6)	1.1	(10)	1.4	(2)	1.0
결혼여부	기혼	(29)	1.9	(10)	1.2	(24)	1.1	(56)	1.3	(22)	1.1
	미혼	(30)	1.2	(21)	1.0	(24)	1.2	(45)	1.6	(22)	1.3
최종학력	고졸이하	(4)	1.6	(1)	1.0	(6)	1.0	(6)	2.4	(3)	1.0
	2년 대졸이하	(15)	2.7	(5)	1.0	(8)	1.4	(12)	1.2	(11)	1.4
	4년 대졸이하	(32)	1.2	(22)	1.0	(26)	1.2	(70)	1.4	(24)	1.1
	대학원 이상	(8)	1.0	(3)	1.3	(8)	1.0	(13)	1.4	(6)	1.4
직업	학생	(4)	1.4	(2)	1.0	(2)	1.1	(7)	2.3	(5)	1.0
	공무원	(6)	1.1	(5)	1.2	(5)	1.1	(5)	1.6	(3)	1.8
	회사원	(23)	1.9	(14)	1.0	(21)	1.2	(50)	1.3	(16)	1.2
	자영업	(9)	1.0	(3)	1.0	(5)	1.4	(15)	1.4	(4)	1.0
	전문직	(11)	1.2	(6)	1.0	(9)	1.0	(16)	1.2	(11)	1.1
	주부	(3)	2.4	(1)	1.0	(4)	1.2	(6)	1.6	(3)	1.4
	서비스업	(2)	4.7	(0)		(2)	1.0	(1)	2.0	(2)	1.0
	기타	(1)	2.0	(0)		(0)		(1)	1.0	(0)	

		문신 빈도_얼굴		문신 빈도_목		문신 빈도_몸통		문신 빈도_팔다리		문신 빈도_손발	
		유효 수	평균	유효 수	평균	유효 수	평균	유효 수	평균	유효 수	평균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	2.0	(0)		(0)		(4)	1.4	(3)	1.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3.2	(2)	1.0	(1)	1.0	(8)	1.7	(5)	1.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4)	1.7	(5)	1.0	(12)	1.4	(22)	1.4	(11)	1.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	1.1	(13)	1.1	(12)	1.3	(24)	1.5	(13)	1.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1.0	(3)	1.0	(9)	1.1	(16)	1.3	(3)	1.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1.7	(1)	1.0	(7)	1.0	(8)	1.5	(4)	1.3
	600만원 이상	(10)	1.1	(7)	1.0	(7)	1.3	(19)	1.3	(5)	1.0

문신의 부위별 회당 지출 비용은 팔다리가 178,798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손발이 107,756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 팔다리가 190,806원으로 가장 높았고 손발이 126,113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 팔다리가 171,501원으로 가장 높았고 손발이 92,107원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 가장 비용이 높은 부위는 10대와 50대 이상은 팔다리로서 각각 357,010원, 200,220원이었으며, 20대, 30대, 40대에서는 몸통으로서 모두 각각 209,097원, 204,032원, 304,721원이었다.

〈표 4-17〉 현재까지 실시한 문신의 부위별 회당 지출 비용

(단위: 원)

		문신 회당가격_얼굴		문신 회당가격_목		문신 회당가격_몸통		문신 회당가격_팔다리		문신 회당가격_손발	
		유효수	평균	유효수	평균	유효수	평균	유효수	평균	유효수	평균
전체		(59)	131,023.4	(31)	119,649.1	(48)	177,963.3	(101)	178,798.2	(44)	107,756.9
성별	남성	(34)	136,280.0	(18)	117,313.4	(31)	190,805.5	(72)	181,083.5	(18)	126,112.7
	여성	(25)	122,259.0	(13)	123,912.4	(17)	147,326.6	(29)	171,501.0	(26)	92,107.0
연령	10대	(3)	183,324.9	(1)	250,000.0	(0)		(4)	357,009.7	(4)	57,484.4
	20대	(17)	122,638.8	(14)	119,573.8	(18)	209,056.6	(25)	181,574.7	(9)	135,892.9
	30대	(24)	128,903.6	(10)	115,570.5	(18)	204,032.2	(39)	162,942.8	(24)	110,798.5
	40대	(12)	140,523.1	(5)	111,138.6	(6)	304,720.6	(23)	143,437.4	(5)	98,756.4
	50대 이상	(3)	113,834.1	(1)	35,000.0	(6)	94,797.0	(10)	200,219.8	(2)	62,349.7

문신 경험이 있는 171명 중, 정보의 획득 경로는 지인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포털사이트 또는 SNS 검색이 15.0%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또한 정보의 획득 경로는 지인이 각각 45.5%, 44.6%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가장 낮은 정보 획득 경로는 남성은 포털사이트 또는 SNS 검색이었고(11.2%) 여성은 시술자와의 직접 상담이었다(8.6%).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가장 높은 정보의 획득 경로는, 10대는 포털사이트 또는 SNS 검색이었으며(47.9%), 20대는 시술자와의 직접 상담이었고(25.9%), 30대, 40대, 50대 이상은 지인이었다(각각 40.5%, 47.6%, 76.4%).

〈표 4-18〉 문신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사례수	오프라인 지인 (친구, 가족 등)	블로그, 밴드, 인터넷 카페	시술자와 의 직접 상담	포털사 이트 또는 SNS 검색	합계
전체		(171)	45.2	21.4	18.3	15.0	100.0
성별	남성	(109)	45.5	20.6	22.6	11.2	100.0
	여성	(62)	44.6	23.2	8.6	23.6	100.0
연령	10대	(7)	26.0		26.0	47.9	100.0
	20대	(49)	22.9	25.6	25.9	25.7	100.0
	30대	(66)	40.5	38.0	8.1	13.4	100.0
	40대	(32)	47.6	13.1	27.7	11.5	100.0
	50대 이상	(17)	76.4	7.9	13.2	2.5	100.0
결혼여부	기혼	(87)	53.4	21.2	17.5	7.9	100.0
	미혼	(84)	35.7	21.7	19.3	23.3	100.0
최종학력	고졸이하	(14)	76.7		13.7	9.7	100.0
	2년 대졸이하	(32)	44.4	27.9	25.4	2.2	100.0
	4년 대졸이하	(104)	39.1	21.5	17.3	22.0	100.0
	대학원 이상	(21)	36.7	38.1	20.0	5.3	100.0
직업	학생	(12)	43.0		10.5	46.5	100.0
	공무원	(13)	64.4	27.3	1.3	7.0	100.0
	회사원	(77)	43.3	25.6	18.8	12.3	100.0
	자영업	(23)	24.5	32.5	39.8	3.2	100.0
	전문직	(30)	31.4	14.1	18.6	35.9	100.0
	주부	(9)	89.0	3.7	7.3		100.0
	서비스업	(5)	81.0	4.7	14.3		100.0
	기타	(2)			46.1	53.9	100.0

		사례수	오프라인 지인 (친구, 가족 등)	블로그, 밴드, 인터넷 카페	시술자와 의 직접 상담	포털사이 트 또는 SNS 검색	합계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27.4			72.6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24.9	39.8	10.2	25.2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	53.9	18.7	16.5	10.9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36.3	33.2	18.5	12.0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	33.7	22.2	12.9	31.2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55.7	11.0	25.0	8.3	100.0
	600만원 이상	(30)	53.6	14.3	23.2	8.9	100.0

문신 경험이 있는 171명에 대하여, 문신 시술 계기를 물어보았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항목은 개성 추구였으며(3.61점),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항목은 주변 친구들과의 유대감이었다(2.77점).

〈표 4-19〉 문신 시술계기 (N=171)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5점 척도
자존감 회복((스트레스, 우울 호전 계기)	3.7	38.7	36.2	14.7	6.6	100.0	3.18
개성 추구 (나만의 멋)	9.9	56.8	19.3	12.2	1.7	100.0	3.61
단순한 호기심	4.8	29.2	35.7	24.5	5.8	100.0	3.03
흉터나 반점 커버 등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	3.7	22.3	33.9	28.4	11.6	100.0	2.78
주변 친구들과의 유대감	4.6	14.3	46.3	23.0	11.8	100.0	2.77

문신 경험이 있는 171명 중, 문신 시술 장소는 문신 전문샵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병·의원이 2.7%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구분한 경우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으나, 문신 전문샵에서 시술한 비중이 남성이 70.7%로 여성의 56.4%보다 높았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으며, 문신 전문샵에서 시술한 비중은 10대 81.5%, 20대 72.1%, 30대 65.0%, 40대 60.9%, 50대 이상 62.9%로 나타났다.

〈표 4-20〉 문신 시술 장소

(단위: %)

		사례수	문신 전문 샵	미용 시설	원룸(오피 스텔)	병·의원	합계
전체		(171)	66.3	24.3	6.6	2.7	100.0
성별	남성	(109)	70.7	21.3	5.8	2.1	100.0
	여성	(62)	56.4	31.1	8.4	4.1	100.0
연령	10대	(7)	81.5	18.5			100.0
	20대	(49)	72.1	24.6	3.3		100.0
	30대	(66)	65.0	28.2	6.8		100.0
	40대	(32)	60.9	23.8	8.1	7.1	100.0
	50대 이상	(17)	62.9	20.9	10.1	6.1	100.0

병·의원 시술자 4명 중, 2명은 의사, 간호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았으며, 1명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간호사에게 시술을 받았다.

〈표 4-21〉 문신 병·의원 시술자

(단위: %)

		사례수	의사, 간호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받음	의사에게 시술을 받음	간호사에게 시술을 받음	합계
전체		(4)	46.2	26.9	26.9	100.0
성별	남성	(2)		50.0	50.0	100.0
	여성	(2)	100.0			100.0
연령	40대	(2)	100.0			100.0
	50대 이상	(2)		50.0	50.0	100.0

문신 경험이 있는 171명 중, 문신 기술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기술받은 사람의 평가가 61.8%로 가장 높았으며, A/S 가능성이 1.8%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미 기술받은 사람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63.6%, 여성은 57.8%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구분하는 경우, 10대는 기술자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으며(55.4%),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은 이미 기술받은 사람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각각 57.0%, 61.1%, 71.1%, 63.8%).

〈표 4-22〉 문신 기술자 선택기준

(단위: %)

		사례수	이미 기술 받은 사람의 평가	기술자 포트 폴리오	기술자 유명세	가격	자택과 의 거리	A/S 가능성	기타	합계
전체		(171)	61.8	14.7	13.9	4.1	3.7	1.8	0.1	100.0
성별	남성	(109)	63.6	11.9	17.4	2.2	3.1	1.9		100.0
	여성	(62)	57.8	21.0	6.0	8.4	4.8	1.5	0.5	100.0
연령	10대	(7)	44.6	55.4						100.0
	20대	(49)	57.0	22.4	5.5	3.1	9.4	2.1	0.5	100.0
	30대	(66)	61.1	16.3	16.4	4.9	1.2			100.0
	40대	(32)	71.1	5.1	5.9	10.8	4.5	2.6		100.0
	50대 이상	(17)	63.8	4.9	28.3			3.0		100.0
결혼 여부	기혼	(87)	61.8	11.0	18.8	3.9	2.2	2.2		100.0
	미혼	(84)	61.7	19.0	8.1	4.3	5.3	1.2	0.3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14)	44.4	9.7	41.1	3.7		1.2		100.0
	2년 대졸이하	(32)	60.4	16.4	6.2	1.1	5.3	10.5		100.0
	4년 대졸이하	(104)	66.7	15.5	9.6	3.5	4.4		0.3	100.0
	대학원 이상	(21)	62.0	14.7	10.1	10.6	2.5			100.0
직업	학생	(12)	53.5	41.5	2.9				2.1	100.0
	공무원	(13)	36.7		55.5	7.8				100.0
	회사원	(77)	69.4	17.9	7.1	2.7	0.9	2.0		100.0
	자영업	(23)	64.0	7.9	11.8	4.0	12.4			100.0
	전문직	(30)	60.6	10.7	14.6	6.2	2.4	5.5		100.0
	주부	(9)	66.3	15.8		7.3	10.6			100.0
	서비스업	(5)	85.7					14.3		100.0
	기타	(2)		46.1			53.9			100.0

		사례수	이미 시술 받은 사람의 평가	시술자 포트 폴리오	시술자 유명세	가격	자택과 의 거리	A/S 가능성	기타	합계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27.4	65.7					6.9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17.4	53.9	10.2	8.3	4.8	5.4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	67.2	14.0	9.8	0.9	5.3	2.8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63.8	20.2	9.2	3.6		3.3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	77.8	8.4	2.5	11.3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53.0		45.0		2.0			100.0
	600만원 이상	(30)	71.9	4.1	7.3	6.7	10.0			100.0

문신에 대해 후회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9.3%(후회 8.0%, 매우 후회 1.3%)로 나타났다. 문신 경험이 있는 171명 중, 문신 시술 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계산하였을 때 3.40이었다. 남성의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3.43점으로서 여성의 3.33점보다 높았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만족도와 높은 순은 10대 3.81점, 30대 3.58점, 40대 3.43점, 20대 3.40점, 50대 이상 3.10점이었다.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한 그룹들 모두에서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표 4-23〉 문신 시술 후 만족도

(단위: %)

		사례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후회	매우 후회	합계	문신 시술 후 만족도 평균
전체		(171)	2.2	45.7	42.7	8.0	1.3	100.0	3.40
성별	남성	(109)	2.5	47.0	42.7	5.9	1.8	100.0	3.42
	여성	(62)	1.6	42.9	42.7	12.9		100.0	3.33
연령	10대	(7)		81.5	18.5			100.0	3.81
	20대	(49)	1.2	47.4	41.4	9.9		100.0	3.40
	30대	(66)	7.0	56.7	23.3	13.0		100.0	3.58
	40대	(32)		50.3	42.6	7.1		100.0	3.43
	50대 이상	(17)		22.7	69.6	2.5	5.3	100.0	3.10
결혼여부	기혼	(87)	1.1	41.5	49.3	5.7	2.4	100.0	3.33
	미혼	(84)	3.5	50.8	35.0	10.7		100.0	3.47

		사례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후회	매우 후회	합계	문신 시술 후 만족도 평균
최종학 력	고졸이하	(14)		22.7	73.3	4.0		100.0	3.19
	2년 대졸이하	(32)	1.2	44.7	33.5	20.6		100.0	3.26
	4년 대졸이하	(104)	3.0	57.6	32.8	6.6		100.0	3.57
	대학원 이상	(21)	2.5	21.7	61.4	4.5	9.8	100.0	3.02
직업	학생	(12)		86.7	10.5	2.9		100.0	3.84
	공무원	(13)		11.3	78.9	9.8		100.0	3.01
	회사원	(77)	2.6	64.1	28.9	4.4		100.0	3.65
	자영업	(23)		27.6	52.5	11.1	8.8	100.0	2.99
	전문직	(30)	8.0	30.3	44.6	17.1		100.0	3.29
	주부	(9)		24.2	65.1	10.6		100.0	3.14
	서비스업	(5)		38.6	61.4			100.0	3.39
	기타	(2)		46.1	53.9			100.0	3.46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100.0				100.0	4.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37.4	54.3	8.3		100.0	3.2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	3.4	37.9	46.3	12.4		100.0	3.3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1.7	55.7	34.8	7.8		100.0	3.51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		75.7	24.3			100.0	3.7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2.0	29.7	53.4	6.9	7.9	100.0	3.11
	600만원 이상	(30)	4.1	35.4	50.6	9.9		100.0	3.34

문신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16명에 대해서 이유를 조사했다.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5.2%, 부작용 발생은 45.7%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평균 점수는 3.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이유로 여김), A/S 불만족이 3.3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이 3.08점으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4〉 문신 후회 이유 (사례수=16)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5점 척도 평균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모양, 색소변색)	—	55.2	44.8	—	—	100.0	3.55
부작용 발생		45.7	19.1	32.4	2.8	100.0	3.08
A/S 불만족	13.7	37.9	20.9	25.3	2.1	100.0	3.36

문신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16명의 대처법을 조사한 결과,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받은 장소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재시술하였다’가 12.7%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응답이 높은 비중은, 남성의 경우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였으며(46.1%) 여성의 경우 ‘받은 장소에서 비용 지불 없이 재수술하였다’였음(48.1%). 가장 응답이 낮은 비중은, 남성의 경우 ‘받은 장소에서 비용 지불 없이 재시술하였다’였으며(11.0%) 여성의 경우 ‘받은 장소에서 재시술이 안 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시술하였다’였다(13.4%).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가장 응답이 높은 응답만을 살펴보면, 20대는 ‘받은 장소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재시술하였다’였으며(44.8%), 30대는 ‘받은 장소에서 재시술이 안 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시술하였다’였으며(59.1%), 40대는 ‘받은 장소에서 비용 지불 없이 재시술하였다’였으며(100.0%), 50대 이상은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였다(100.0%).

〈표 4-25〉 문신 시술 불만족 대처법 (사례수 N=16)

(단위: %)

	사례수	받은 장소에서 비용 지불 없이 재시술 하였다	받은 장소에서 추가적으 로 비용을 지불하고 재시술 하였다	받은 장소에서 재시술이 안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시술하 였다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타	합계
전체	(16)	26.7	12.7	24.5	36.1	—	100.0

		사례수	받은 장소에서 비용 지불 없이 재시술 하였다	받은 장소에서 추가적으 로 비용을 지불하고 재시술 하였다	받은 장소에서 재시술이 안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시술하 였다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타	합계
성별	남성	(9)	11.0	10.3	32.6	46.1		100.0
	여성	(7)	48.1	16.0	13.4	22.5		100.0
연령	20대	(5)	23.9	44.8	7.4	23.9		100.0
	30대	(7)	16.8		59.1	24.1		100.0
	40대	(2)	100.0					100.0
	50대 이상	(2)				100.0		100.0
결혼 여부	기혼	(6)	43.5			56.5		100.0
	미혼	(10)	11.9	23.9	46.1	18.0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1)				100.0		100.0
	2년 대졸이하	(6)	61.3		18.4	20.4		100.0
	4년 대졸이하	(7)	15.8	31.6	29.9	22.7		100.0
	대학원 이상	(2)			31.6	68.4		100.0
직업	학생	(1)			100.0			100.0
	공무원	(2)	51.7			48.3		100.0
	회사원	(4)	55.4		31.0	13.6		100.0
	자영업	(4)		21.9	12.9	65.2		100.0
	전문직	(4)		23.9	48.6	27.4		100.0
	주부	(1)	100.0					100.0
월평 균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			100.0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	68.1			31.9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			32.4	67.6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			46.7	53.3		100.0
	600만원 이상	(3)	33.3	66.7				100.0

문신을 경험한 171명에 대해, 문신 시술 기관 및 시술자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았다.

‘문신 시술 전 피시술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가 47.0%, ‘동의서에 부작용, 비용, 애프터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56.4%, ‘동의서는 아니었지만, 문신 시술 전에 부작용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시술 전 후 정보 제공을 받았다’가 57.8%, ‘시술 전 피시술자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후 시술을 실시하였다’가 72.1%, ‘시술 전 피시술자의 피부 특성이나 알러지, 체질 등의 사항을 파악하였다’가 49.9%, ‘시술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였다’가 72.8%, ‘시술 시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였다’가 63.8%, ‘시술 후 애프터서비스에 만족하였다’가 42.4%, ‘시술 장소는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62.1%였다.

〈표 4-26〉 문신 시술기관 및 시술자에 대한 경험 (사례수 N=171)

(단위: %)

	그렇다	그렇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합계
문신 시술전 피시술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7.0	41.5	11.5	100.0
동의서에 부작용, 비용, 애프터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6.4	31.6	12.0	100.0
동의서는 아니었지만, 문신 시술 전에 부작용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시술 전 후 정보 제공을 받았다	57.8	29.8	12.4	100.0
시술전 피시술자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후 시술을 실시하였다	72.1	19.1	8.8	100.0
시술전 피시술자의 피부특성이나 알러지, 체질 등의 사항을 파악하였다	49.9	37.4	12.7	100.0
시술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였다	72.8	21.0	6.2	100.0
시술시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였다	63.8	21.3	14.9	100.0
시술 후 애프터서비스에 만족하였다	42.4	40.3	17.3	100.0
시술장소는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62.1	24.4	13.5	100.0

나. 문신 시술 후 부작용 및 피해경험

문신을 경험한 171명에 대해, 문신 시술 후 부작용의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20.6%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22.4%, 여성은 16.5%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10대는 18.6%, 20대는 36.5%, 30대는 19.2%, 40대는 12.8%, 50대 이상은 10.5%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4-27〉 문신 시술 부작용 경험여부 (사례수 N=171)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171)	20.6	79.4	100.0
성별	남성	(109)	22.4	77.6	100.0
	여성	(62)	16.5	83.5	100.0
연령	10대	(7)	18.6	81.4	100.0
	20대	(49)	36.5	63.5	100.0
	30대	(66)	19.2	80.8	100.0
	40대	(32)	12.8	87.2	100.0
	50대 이상	(17)	10.5	89.5	100.0
결혼 여부	기혼	(87)	18.6	81.4	100.0
	미혼	(84)	22.8	77.2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14)	8.5	91.5	100.0
	2년 대졸이하	(32)	23.5	76.5	100.0
	4년 대졸이하	(104)	20.7	79.3	100.0
	대학원 이상	(21)	30.3	69.7	100.0
직업	학생	(12)	36.6	63.4	100.0
	공무원	(13)	20.8	79.2	100.0
	회사원	(77)	18.6	81.4	100.0
	자영업	(23)	21.2	78.8	100.0
	전문직	(30)	28.1	71.9	100.0
	주부	(9)	7.3	92.7	100.0
	서비스업	(5)		100.0	100.0
	기타	(2)		100.0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100.0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45.6	54.4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	9.0	91.0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29.7	70.3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	9.1	90.9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19.1	80.9	100.0

문신 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한 31명에 대해, 부작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았다. 피부염증을 경험한 비율이 85.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통증(69.6%), 알레르기 반응(56.4%), 색소 변색(44.4%)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 4-28〉 문신 시술 부작용 경험여부 (사례수 N=31)

(단위: %)

	사례수	발생한 적이 있다	발생하지 않았다	합계
피부 염증	(31)	85.3	14.7	100.0
감염성 질환(B형, C형 바이러스, 메독, 에이즈 등)	(31)	2.8	97.2	100.0
알레르기 반응	(31)	56.4	43.6	100.0
통증	(31)	69.6	30.4	100.0
색소 변색	(31)	44.4	55.6	100.0
흉터	(31)	38.1	61.9	100.0
안구·눈꺼풀내 기관 손상(각막손상 등)	(31)	7.5	92.5	100.0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증상(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	(31)	12.1	87.9	100.0

〈표 4-29〉 문신 시술 부작용 세부 증상

	사례수	세부 증상
피부염증	(25)	두드러기, 빨간 반점, 부어오름 통증, 흉터가 남음, 고름 및 진물, 발열, 시술 주변 염증, 가렵 증, 알레르기 때문, 발진 통증, 가려우면서 조금 붉게 부풀어올랐다
통증	(20)	꼭꼭 쑤시고 아팠다, 화끈거리고 밤에 더 아픔, 쓰림, 가렵 증, 부어오름 통증, 물에 닿으니 주변에 홍반 현상, 두드러기, 경미한 통증, 빨간 반점, 발진 통증, 허리 아픔
색소변색	(10)	문신 색이 전체적으로 빠져갔다, 변색이 왔다, 두드러기, 검게 변함, 색깔이 파란색으로 주변에 번졌다
흉터	(10)	흉터가 남음, 두드러기
안구·눈꺼풀 내 기관 손상(각막 손상 등)	(3)	출혈, 흉터가 남음, 안구 건조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증상	(3)	부어오름 통증, 흉터가 남음, 가려우면서 조금 붉게 부풀어 올랐다

문신 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한 31명 중 병·의원을 방문한 비중은 70.6%였다. 남성은 73.6%, 여성은 61.2%가 병·의원을 방문하였다. 10대는 100.0%, 20대는 67.3%, 30대는 100.0%, 40대는 31.6%, 50대 이상은 50.0%가 병·의원을 방문하였다.

〈표 4-30〉 부작용 치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여부 (사례수 N=31)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31)	70.6	29.4	100.0
성별	남성	(21)	73.6	26.4	100.0
	여성	(10)	61.2	38.8	100.0
연령	10대	(1)	100.0		100.0
	20대	(11)	67.3	32.7	100.0
	30대	(14)	100.0		100.0
	40대	(3)	31.6	68.4	100.0
	50대 이상	(2)	50.0	50.0	100.0

다. 문신 인식조사

문신을 경험한 171명에 대하여 문신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문신 시술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58.3%,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15.1%였다. 남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은 57.9%, 부정적인 응답은 15.2%였으며,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은 59.1%, 부정적인 응답은 14.7%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였으며(75.1%),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24.2%).

〈표 4-31〉 문신 경험자들의 문신 시술 인식

(단위: %)

		사례수	매우 긍정적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	매우 부정적	합계
전체		(171)	2.2	56.1	26.7	12.5	2.6	100.0
성별	남성	(109)	1.1	56.8	26.9	11.5	3.7	100.0
	여성	(62)	4.6	54.5	26.2	14.7		100.0

		사례수	매우 긍정적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	매우 부정적	합계
연령	10대	(7)	10.7	52.3	18.5	18.5		100.0
	20대	(49)	3.8	49.0	23.0	24.2		100.0
	30대	(66)	2.7	51.3	29.6	14.2	2.2	100.0
	40대	(32)		75.1	16.2	4.7	4.1	100.0
	50대 이상	(17)		55.9	36.3	2.5	5.3	100.0
결혼여부	기혼	(87)	1.0	64.0	20.8	9.4	4.8	100.0
	미혼	(84)	3.5	46.8	33.6	16.2		100.0
최종학력	고졸이하	(14)	2.4	77.9	11.1	8.5		100.0
	2년 대졸이하	(32)	1.2	39.5	41.9	17.4		100.0
	4년 대졸이하	(104)	2.8	59.3	27.6	9.2	1.0	100.0
	대학원 이상	(21)		35.9	22.6	26.0	15.4	100.0
직업	학생	(12)	15.3	58.8	12.6	13.3		100.0
	공무원	(13)		60.6	15.2	19.4	4.7	100.0
	회사원	(77)	2.6	55.6	33.4	8.4		100.0
	자영업	(23)		50.0	28.6	12.6	8.8	100.0
	전문직	(30)		48.7	28.9	17.0	5.4	100.0
	주부	(9)		71.3	17.7	11.0		100.0
	서비스업	(5)		48.2	4.7	47.1		100.0
	기타	(2)		100.0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49.1	37.2	13.7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30.6	25.7	33.6	10.2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	2.4	37.2	47.9	12.5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1.7	56.0	30.9	8.8	2.6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	1.7	73.2	12.6	12.5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62.5	15.1	14.5	7.9	100.0

문신을 경험한 171명에 대하여 문신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비싸다고 응답한 비중은 44.4%였으며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2.5%였다. 남성의 경우 비싸다고 응답한 비중은 47.2%였으며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6.1%였으며, 여성의 경우 비싸다고 응답한 비중은 38.1%였으며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6%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비싸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였으며(55.6%),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1.2%).

〈표 4-32〉 문신 경험자들의 비용 인식

(단위: %)

		사례수	매우 비싼 편	비싼 편	보통	저렴한 편	매우 저렴	합계
전체		(171)	1.1	43.3	43.1	12.3	0.2	100.0
성별	남성	(109)	1.6	45.6	36.8	15.8	0.3	100.0
	여성	(62)		38.1	57.3	4.6		100.0
연령	10대	(7)		55.6	36.9	7.5		100.0
	20대	(49)		44.0	54.7	0.5	0.7	100.0
	30대	(66)	2.8	47.3	39.0	10.8		100.0
	40대	(32)	1.8	55.1	34.8	8.3		100.0
	50대 이상	(17)		27.5	41.8	30.7		100.0

문신을 경험한 171명에 대하여, 향후의 문신 기술 의향을 물어본 결과 58.1%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57.4%, 여성은 59.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0대는 63.0%, 20대는 61.8%, 30대는 71.0%, 40대는 55.7%, 50대 이상은 40.8%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3〉 향후 문신 기술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171)	58.1	41.9	100.0
성별	남성	(109)	57.4	42.6	100.0
	여성	(62)	59.7	40.3	100.0
연령	10대	(7)	63.0	37.0	100.0
	20대	(49)	61.8	38.2	100.0
	30대	(66)	71.0	29.0	100.0
	40대	(32)	55.7	44.3	100.0
	50대 이상	(17)	40.8	59.2	100.0

향후 문신 시술 의향이 없는 67명에 대하여,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경우 시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45.8%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43.9%, 여성은 50.3%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0대는 50.0%, 20대는 41.6%, 30대는 39.3%, 40대는 53.1%, 50대 이상은 47.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4〉 문신 시술 의향 없는 경우 안전 관리 강화 시 시술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67)	45.8	54.2	100.0
성별	남성	(45)	43.9	56.1	100.0
	여성	(22)	50.3	49.7	100.0
연령	10대	(2)	50.0	50.0	100.0
	20대	(17)	41.6	58.4	100.0
	30대	(22)	39.3	60.7	100.0
	40대	(14)	53.1	46.9	100.0
	50대 이상	(12)	47.7	52.3	100.0

문신을 경험한 171명에 대하여, 주변에 문신 시술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53.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53.1%, 여성은 55.0%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0대는 44.4%, 20대는 50.4%, 30대는 60.5%, 40대는 61.3%, 50대 이상은 45.8%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5〉 문신 시술 추천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171)	53.7	46.3	100.0
성별	남성	(109)	53.1	46.9	100.0
	여성	(62)	55.0	45.0	100.0
연령	10대	(7)	44.4	55.6	100.0
	20대	(49)	50.4	49.6	100.0
	30대	(66)	60.5	39.5	100.0
	40대	(32)	61.3	38.7	100.0
	50대 이상	(17)	45.8	54.2	100.0

문신을 경험한 171명에 대하여, 문신을 시술하기 좋은 장소를 물어본 결과 문신 전문샵이 58.1%로 가장 높았으며, 원룸(오피스텔)이 4.8%로 가장 낮았다.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여도 모두 문신 전문샵을 가장 좋은 장소로 선택하였음. 남성과 여성은 각각 53.1%, 74.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은 각각 74.0%, 53.0%, 61.1%, 51.8%, 62.5%가 문신 전문샵을 가장 좋은 장소로 선택하였다.

〈표 4-36〉 문신 시술하기 좋은 장소

(단위: %)

		사례수	문신 전문샵	병·의원	미용 시설	원룸(오피스텔)	기타	합계
전체		(171)	58.1	25.3	11.7	4.8	0.1	100.0
성별	남성	(109)	60.3	22.5	13.3	3.9		100.0
	여성	(62)	53.1	31.5	8.2	6.7	0.5	100.0
연령	10대	(7)	74.0	26.0				100.0
	20대	(49)	53.0	25.4	14.4	6.8	0.5	100.0
	30대	(66)	61.1	15.4	15.6	7.9		100.0
	40대	(32)	51.8	23.2	20.6	4.5		100.0
	50대 이상	(17)	62.5	37.5				100.0
결혼여부	기혼	(87)	50.3	30.8	15.1	3.8		100.0
	미혼	(84)	67.2	18.7	7.8	5.9	0.3	100.0
최종학력	고졸이하	(14)	69.1	26.0	4.9			100.0
	2년 대졸이하	(32)	51.6	16.3	25.3	6.7		100.0
	4년 대졸이하	(104)	60.3	22.7	11.6	5.2	0.3	100.0
	대학원 이상	(21)	43.4	45.9	4.5	6.2		100.0
직업	학생	(12)	85.2	12.6			2.1	100.0
	공무원	(13)	59.8	20.4	8.2	11.5		100.0
	회사원	(77)	66.1	15.7	15.5	2.7		100.0
	자영업	(23)	31.6	40.0	17.4	11.0		100.0
	전문직	(30)	46.6	42.7	6.6	4.1		100.0
	주부	(9)	54.3	42.0	3.7			100.0
	서비스업	(5)	95.3	4.7				100.0
	기타	(2)		46.1	53.9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86.3	6.9			6.9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46.3	15.3	30.1	8.3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	68.4	12.2	16.6	2.8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61.1	24.5	9.1	5.2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	78.1	16.6	5.3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56.2	33.9	9.9			100.0

문신을 경험한 171명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문신은 미용 행위이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5%였으며,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4.2%였다. 성별로 구분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이 61.9%로서 남성의 56.8%보다 높았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대가 7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0대 64.8%, 40대 59.8%, 50대 이상 56.1%, 30대 50.9% 순으로 높았다.

〈표 4-37〉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대한 인식

(단위: %)

		사례수	문신은 미용행위 이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행위 허용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 처벌	의견 없음	합계
전체		(171)	58.4	34.2	7.5	100.0
성별	남성	(109)	56.8	34.9	8.3	100.0
	여성	(62)	61.9	32.6	5.6	100.0
연령	10대	(7)	74.0	26.0		100.0
	20대	(49)	64.8	24.6	10.6	100.0
	30대	(66)	50.9	37.5	11.6	100.0
	40대	(32)	59.8	40.2		100.0
	50대 이상	(17)	56.1	37.9	6.1	100.0
결혼여부	기혼	(87)	59.2	35.8	4.9	100.0
	미혼	(84)	57.4	32.2	10.4	100.0
최종학력	고졸이하	(14)	50.4	49.6		100.0
	2년 대졸이하	(32)	66.5	16.3	17.2	100.0
	4년 대졸이하	(104)	59.3	32.2	8.6	100.0
	대학원 이상	(21)	54.3	45.7		100.0
직업	학생	(12)	53.2	44.6	2.1	100.0
	공무원	(13)	35.0	60.2	4.7	100.0
	회사원	(77)	59.6	31.8	8.6	100.0
	자영업	(23)	65.2	21.8	13.0	100.0
	전문직	(30)	64.9	29.6	5.5	100.0
	주부	(9)	76.9	23.1		100.0
	서비스업	(5)	43.5	51.8	4.7	100.0
	기타	(2)		46.1	53.9	100.0

		사례수	문신은 미용행위 이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행위 허용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 처벌	의견 없음	합계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76.5	16.7	6.9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	59.9	34.5	5.7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5)	60.3	27.8	11.9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1)	51.3	40.4	8.3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	57.9	32.0	10.1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	46.8	49.5	3.6	100.0

3. 반영구화장 경험자 대상 조사 결과

가. 반영구화장 경험과 만족도

반영구화장 경험이 있는 316명 중, 최근 1년 이내의 경험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전의 경험이 5.3%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 1년 이내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남성: 40.4%, 여성: 76.5%), 5년 이전의 경험이 가장 낮았다(남성: 1.6%, 여성: 6.7%).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10대, 20대, 30대, 50대 이상은 최근 1년 이내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나, 40대의 경우 최근 1~2년의 경험이 가장 많았다.

〈표 4-38〉 가장 최근 반영구화장 실시

(단위: %)

		사례수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2년 사이	최근 2년~3년 사이	최근 3년~5년 사이	5년 이전	합계
전체		(316)	41.4	28.0	14.1	11.2	5.3	100.0
성별	남성	(84)	44.3	37.5	13.3	3.3	1.6	100.0
	여성	(232)	40.4	24.5	14.4	14.0	6.7	100.0
연령	10대	(16)	76.5	15.2	8.3			100.0
	20대	(79)	41.8	35.4	12.2	7.2	3.4	100.0
	30대	(103)	39.7	32.9	16.3	3.7	7.4	100.0
	40대	(77)	29.6	31.3	19.4	13.4	6.4	100.0
	50대 이상	(41)	45.2	20.9	11.5	17.3	5.1	100.0

		사례수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2년 사이	최근 2년~3년 사이	최근 3년~5년 사이	5년 이전	합계
결혼여부	기혼	(176)	37.4	25.8	16.8	14.3	5.7	100.0
	미혼	(140)	49.0	32.1	9.1	5.3	4.5	100.0
최종학력	고졸이하	(51)	41.6	31.0	13.2	8.1	6.1	100.0
	2년 대졸이하	(48)	38.3	19.6	15.6	18.8	7.7	100.0
	4년 대졸이하	(182)	45.4	24.1	13.5	11.9	5.1	100.0
	대학원 이상	(35)	24.3	52.5	17.7	3.9	1.6	100.0
직업	학생	(21)	57.4	33.6	4.9	2.6	1.5	100.0
	공무원	(26)	43.1	29.1	10.3	8.9	8.6	100.0
	회사원	(130)	46.1	30.3	14.0	5.0	4.6	100.0
	자영업	(20)	31.8	38.6	16.3	7.0	6.4	100.0
	전문직	(42)	48.9	28.6	17.0	5.5		100.0
	주부	(51)	37.4	19.9	12.5	25.7	4.4	100.0
	서비스업	(23)	18.7	28.3	20.3	18.1	14.6	100.0
	기타	(3)	64.8		35.2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73.2	16.2	3.5	4.6	2.6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33.4	15.1	21.2	24.0	6.2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44.8	27.0	6.3	11.9	10.0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41.7	37.6	13.3	3.3	4.2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37.1	32.8	17.3	12.8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53.9	20.3	18.1	2.2	5.6	100.0
	600만원 이상	(36)	31.1	26.1	18.3	20.3	4.3	100.0

반영구화장 경험이 있는 316명 중, 반영구화장 실시 횟수를 1회부터 6회까지 조사하였다. 평균 횟수는 1.89회였으며, 2회가 가장 많은 응답빈도를 보였다. 여성의 평균 횟수가 1.94회로서 남성의 1.75회보다 높았다. 30대가 2.06회로 가장 높은 평균 횟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0대 2.02회, 20대 1.95회, 40대 1.83회, 50대 이상 1.80회 순으로 높았다.

〈표 4-39〉 지금까지 반영구화장 실시 횟수 (1-6회)

(단위: 회)

		사례수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전체		(316)	1.89	2	2
성별	남성	(84)	1.75	2	1
	여성	(232)	1.94	2	2

		사례수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연령	10대	(16)	2.02	2	2
	20대	(79)	1.95	2	1
	30대	(103)	2.06	2	2
	40대	(77)	1.83	2	1
	50대 이상	(41)	1.80	2	2
결혼 여부	기혼	(176)	1.84	2	2
	미혼	(140)	1.99	2	2
최종 학력	고졸이하	(51)	2.02	2	2
	2년 대졸이하	(48)	1.75	2	2
	4년 대졸이하	(182)	1.83	2	2
	대학원 이상	(35)	2.14	2	2
직업	학생	(21)	1.86	2	2
	공무원	(26)	2.12	2	2
	회사원	(130)	1.85	2	1
	자영업	(20)	2.03	2	2
	전문직	(42)	1.94	2	2
	주부	(51)	1.67	1	1
	서비스업	(23)	2.25	2	2
	기타	(3)	1.00	1	1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1.99	2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1.64	1	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2.00	2	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1.88	2	1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1.92	2	1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2.27	2	2
	600만원 이상	(36)	1.66	1	1

반영구화장의 부위별 빈도수는, 눈썹의 경우 283명, 아이라인 120명, 입술 2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눈썹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0.1회 높았으며, 아이라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0.3회 높았고, 입술의 경우에는 동일하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눈썹의 반영구화장 빈도는 50대 이상이 1.6회로 가장 높았고, 입술의 경우 모두 1.0회로 동일하였으며(단, 10대는 경험자 없음), 아이라인의 경우 50대 이상이 1.5회로 가장 높았다.

〈표 4-40〉 현재까지 실시한 반영구화장의 부위별 빈도수

(단위: 회)

		반영구화장 빈도_눈썹		반영구화장 빈도_입술		반영구화장 빈도_아이라인	
		유효수	평균	유효수	평균	유효수	평균
전체		(283)	1.5	(27)	1.0	(120)	1.4
성별	남성	(84)	1.5	(11)	1.0	(15)	1.1
	여성	(199)	1.6	(16)	1.0	(105)	1.4
연령	10대	(15)	1.5	(0)		(7)	1.4
	20대	(73)	1.5	(8)	1.0	(26)	1.3
	30대	(93)	1.5	(11)	1.0	(45)	1.4
	40대	(69)	1.5	(7)	1.0	(27)	1.2
	50대 이상	(33)	1.6	(1)	1.0	(15)	1.5
결혼 여부	기혼	(153)	1.5	(13)	1.0	(73)	1.4
	미혼	(130)	1.5	(14)	1.0	(47)	1.4
최종 학력	고졸이하	(45)	1.6	(2)	1.0	(21)	1.5
	2년 대졸이하	(40)	1.4	(5)	1.0	(18)	1.5
	4년 대졸이하	(164)	1.5	(16)	1.0	(68)	1.3
	대학원 이상	(34)	1.5	(4)	1.0	(13)	1.3
직업	학생	(18)	1.5	(2)	1.3	(7)	1.6
	공무원	(21)	1.7	(4)	1.0	(13)	1.2
	회사원	(118)	1.5	(12)	1.0	(49)	1.3
	자영업	(20)	1.6	(1)	1.0	(8)	1.1
	전문직	(40)	1.5	(5)	1.0	(16)	1.6
	주부	(42)	1.5	(1)	1.0	(17)	1.5
	서비스업	(21)	1.7	(2)	1.0	(10)	1.5
	기타	(3)	1.0	(0)		(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5)	1.5	(1)	2.0	(6)	1.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1.3	(0)		(8)	1.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7)	1.6	(6)	1.0	(34)	1.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8)	1.7	(9)	1.0	(28)	1.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7)	1.5	(3)	1.0	(13)	1.3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0)	1.7	(5)	1.0	(12)	1.4
	600만원 이상	(29)	1.3	(3)	1.0	(19)	1.6

반영구화장의 부위별 회당 지출 비용은 눈썹 130,821원, 아이라인 110,003원, 입술 91,358원 순으로 높았다.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에도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하였음. 다만, 3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입술의 비용이 아이라인의 비용보다 높았다.

〈표 4-41〉 현재까지 실시한 반영구화장의 부위별 회당 지출 비용

(단위: 원)

		반영구화장 빈도_눈썹		반영구화장 빈도_입술		반영구화장 빈도_아이라인	
		유효수	평균	유효수	평균	유효수	평균
전체		(283)	130,820.5	(27)	91,357.8	(120)	110,002.6
성별	남성	(84)	146,111.9	(11)	84,050.7	(15)	106,720.8
	여성	(199)	124,042.8	(16)	96,513.8	(105)	110,465.8
연령	10대	(15)	138,033.5	(0)		(7)	112,763.2
	20대	(73)	130,211.0	(8)	62,495.8	(26)	100,219.9
	30대	(93)	132,819.7	(11)	124,127.4	(45)	120,023.2
	40대	(69)	139,147.7	(7)	88,978.7	(27)	127,979.0
	50대 이상	(33)	123,761.4	(1)	100,000.0	(15)	96,407.2

반영구화장 경험이 있는 316명 중, 정보의 획득 경로는 지인이 69.5%로 가장 높았으며, 포털사이트 또는 SNS 검색이 8.5%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또한 정보의 획득 경로는 지인이 각각 64.0%, 71.5%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가장 낮은 정보 획득 경로는 남성은 포털사이트 또는 SNS 검색이었고(8.3%) 여성은 기술자와의 직접 상담이었다(8.3%).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가장 높은 정보의 획득 경로는, 10대는 블로그, 밴드, 인터넷 카페였으며(40.7%),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은 지인이었다(각각 62.1%, 53.7%, 74.6%, 82.7%).

〈표 4-42〉 반영구화장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사례수	오프라인 지인 (친구, 가족 등)	블로그, 밴드, 인터넷 카페	기술자와의 직접 상담	포털사이트 또는 SNS 검색	합계
전체		(316)	69.5	12.1	9.9	8.5	100.0
성별	남성	(84)	64.0	13.4	14.3	8.3	100.0
	여성	(232)	71.5	11.6	8.3	8.6	100.0
연령	10대	(16)	34.8	40.7	6.9	17.6	100.0
	20대	(79)	62.1	19.1	12.7	6.0	100.0
	30대	(103)	53.7	23.2	17.2	5.8	100.0
	40대	(77)	74.6	5.1	15.4	5.0	100.0
	50대 이상	(41)	82.7	3.4	1.6	12.3	100.0

		사례수	오프라인 지인 (친구, 가족 등)	블로그, 밴드, 인터넷 카페	시술자와의 직접 상담	포털사이트 또는 SNS 검색	합계
결혼 여부	기혼	(176)	74.8	7.2	8.4	9.6	100.0
	미혼	(140)	59.4	21.4	12.8	6.3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51)	68.7	11.5	1.1	18.7	100.0
	2년 대졸이하	(48)	73.7	13.9	10.2	2.2	100.0
	4년 대졸이하	(182)	67.1	12.7	13.6	6.6	100.0
	대학원 이상	(35)	78.7	7.6	8.8	4.9	100.0
직업	학생	(21)	36.3	31.5	22.9	9.3	100.0
	공무원	(26)	77.8	10.3	6.4	5.6	100.0
	회사원	(130)	69.7	14.5	12.8	2.9	100.0
	자영업	(20)	74.6	3.4	15.5	6.5	100.0
	전문직	(42)	50.4	20.5	10.3	18.7	100.0
	주부	(51)	76.1	2.9	4.2	16.8	100.0
	서비스업	(23)	86.2	8.3	3.8	1.7	100.0
	기타	(3)		23.6	41.2	35.2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55.5	22.1	3.5	18.9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59.1	26.4	7.3	7.2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71.4	13.7	6.1	8.7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70.6	7.6	15.4	6.4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59.7	8.4	14.5	17.4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69.5	18.3	12.3		100.0
	600만원 이상	(36)	81.0	4.6	4.5	10.0	100.0

반영구화장 경험이 있는 361명에 대하여, 반영구화장 시술 계기를 물어보았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항목은 미용, 메이크업의 편리성이었으며(4.06점),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항목은 흉터나 반점 커버 등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였다(2.64점).

〈표 4-43〉 반영구화장 시술계기 (N=316)

(단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5점 척도 평균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우울 호전 계기)	9.8	34.8	33.2	16.4	5.7	100.0	3.27
개성 추구 (나만의 멋)	10.3	33.8	36.9	13.9	5.2	100.0	3.30
단순한 호기심	3.1	19.3	33.2	34.0	10.5	100.0	2.71
흉터나 반점 커버 등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	2.8	18.4	36.2	25.7	16.9	100.0	2.64
주변 친구들과의 유대감	1.7	17.7	42.5	24.9	13.2	100.0	2.70
미용, 메이크업의 편리성	39.3	37.7	13.9	8.0	1.1	100.0	4.06

반영구화장 경험이 있는 316명 중,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는 반영구화장 전문샵이 44.3%로 가장 높았으며 출장이 5.4%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구분한 경우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문신 전문샵에서 시술한 비중은 남성이 46.5%, 여성 43.5%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으며, 문신 전문샵에서 시술한 비중은 10대 68.0%, 20대 48.9%, 30대 27.3%, 40대 31.8%, 50대 이상 25.0%로 나타났다.

〈표 4-44〉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

(단위: %)

	사례수	반영구 화장 전문샵	미용 시설	병·의원	원룸(오 피스텔)	출장	기타	합계
전체	(316)	44.3	26.1	13.1	10.9	5.4	0.2	100.0
성별	남성	(84)	46.5	24.1	20.2	5.8	3.4	100.0
	여성	(232)	43.5	26.8	10.6	12.8	6.2	100.0
연령	10대	(16)	68.0	9.0		13.7	9.3	100.0
	20대	(79)	48.9	23.9	10.6	3.5	12.2	100.0
	30대	(103)	36.3	27.3	17.8	14.9	3.7	100.0
	40대	(77)	41.9	31.8	17.8	8.1	0.3	100.0
	50대 이상	(41)	45.1	25.0	10.5	14.0	5.4	100.0

병·의원 시술자 41명 중, 48.2%는 의사, 간호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았으며, 21.0%는 의사에게 시술을 받았고, 19.2%는 간호사에게 시술을 받았다.

〈표 4-45〉 반영구화장 병·의원 시술자

(단위: %)

		사례수	의사, 간호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받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은	간호사에게 시술을 받은	합계
전체		(41)	48.2	21.0	19.2	11.6
성별	남성	(15)	40.7	5.5	25.3	28.4
	여성	(26)	53.3	31.7	14.9	
연령	20대	(7)	20.5		35.0	44.5
	30대	(18)	43.3	30.8	25.8	

반영구화장 경험이 있는 316명 중,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시술받은 사람의 평가가 69.2%로 가장 높았으며, A/S 가능성이 2.5%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미 시술받은 사람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63.5%, 여성은 71.2%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에서도 시술자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나타났다(10대 73.4%, 20대 53.8%, 30대 54.7%, 40대 78.0%, 50대 이상 79.4%).

〈표 4-46〉 반영구화장 시술자 선택기준

(단위: %)

		사례수	이미 시술 받은 사람의 평가	시술자 의 포트폴 리오	시술자 의 유명세	가격	자택과 의 거리	A/S 가능성	합계
전체		(316)	69.2	10.8	10.7	3.5	3.4	2.5	100.0
성별	남성	(84)	63.5	10.2	20.3	5.5	0.3	0.3	100.0
	여성	(232)	71.2	11.0	7.3	2.7	4.5	3.3	100.0
연령	10대	(16)	73.4	23.0				3.6	100.0
	20대	(79)	53.8	8.0	27.7	8.8	1.3	0.4	100.0
	30대	(103)	54.7	20.0	17.7	3.9	1.9	1.8	100.0
	40대	(77)	78.0	6.6	9.6	2.0	0.8	3.0	100.0
	50대 이상	(41)	79.4	8.3		1.6	7.2	3.6	100.0
결혼 여부	기혼	(176)	72.0	8.2	9.5	2.5	4.2	3.5	100.0
	미혼	(140)	63.6	15.6	13.2	5.2	1.8	0.6	100.0

		사례수	이미 기술 받은 사람의 평가	기술자 의 포트폴 리오	기술자 의 유명세	가격	자택과 의 거리	A/S 가능성	합계
최종 학력	고졸이하	(51)	64.9	12.3	3.1	0.9	11.9	6.9	100.0
	2년 대졸이하	(48)	71.1	4.4	16.1	7.3	1.2		100.0
	4년 대졸이하	(182)	73.3	11.5	10.6	2.2	1.1	1.3	100.0
	대학원 이상	(35)	54.1	12.0	20.9	10.2		2.8	100.0
직업	학생	(21)	74.4	14.9	7.9			2.8	100.0
	공무원	(26)	74.5	5.4	3.6	13.1	3.4		100.0
	회사원	(130)	69.8	7.7	12.6	4.6	4.3	1.0	100.0
	자영업	(20)	57.8	23.0	19.2				100.0
	전문직	(42)	54.3	16.7	25.2	1.4		2.4	100.0
	주부	(51)	67.3	15.2	6.8	2.1	6.7	1.8	100.0
	서비스업	(23)	86.4	1.2				12.4	100.0
	기타	(3)	41.2	58.8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60.7	16.9	17.4			5.0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70.8	16.4	12.8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67.8	15.9	6.2	3.7	6.4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77.2	5.8	10.3	4.1	2.0	0.5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68.5	10.3	16.2	2.9		2.1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71.4	11.1	12.9	3.1	1.5		100.0
	600만원 이상	(36)	57.7	7.3	10.0	5.4	7.8	11.9	100.0

반영구화장 경험이 있는 316명 중, 반영구화장 기술 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계산하였을 때 3.73이었다. 남성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3.68점으로서 여성의 3.75점보다 낮았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만족도와 높은 순은 10대 4.26점, 50대 이상 3.89점, 30대 3.64점, 20대 3.61점, 40대 3.56점이었다.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한 그룹들 모두에서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표 4-47〉 반영구화장 시술 후 만족도

(단위: %)

		사례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후회	매우 후회	합계	반영구 화장 시술 후 만족도 평균
전체		(316)	10.6	55.3	31.0	3.1	—	100.0	3.73
성별	남성	(84)	7.6	57.6	30.5	4.3		100.0	3.68
	여성	(232)	11.6	54.5	31.2	2.7		100.0	3.75
연령	10대	(16)	39.0	48.3	12.8			100.0	4.26
	20대	(79)	5.9	57.5	28.9	7.8		100.0	3.61
	30대	(103)	8.3	52.8	33.1	5.7		100.0	3.64
	40대	(77)	4.7	48.8	44.2	2.2		100.0	3.56
	50대 이상	(41)	14.6	60.1	25.3			100.0	3.89
결혼 여부	기혼	(176)	10.7	55.7	32.1	1.4		100.0	3.76
	미혼	(140)	10.2	54.5	29.0	6.2		100.0	3.69
최종 학력	고졸이하	(51)	22.5	50.1	25.7	1.7		100.0	3.94
	2년 대졸이하	(48)	6.5	40.9	46.8	5.8		100.0	3.48
	4년 대졸이하	(182)	5.1	62.2	29.8	3.0		100.0	3.69
	대학원 이상	(35)	19.3	49.3	28.4	3.0		100.0	3.85
직업	학생	(21)	26.5	35.1	38.4			100.0	3.88
	공무원	(26)	9.5	41.0	46.3	3.3		100.0	3.57
	회사원	(130)	9.7	61.5	23.7	5.1		100.0	3.76
	자영업	(20)	6.5	62.2	27.2	4.1		100.0	3.71
	전문직	(42)	5.5	56.4	32.8	5.4		100.0	3.62
	주부	(51)	7.1	57.9	34.7	0.3		100.0	3.72
	서비스업	(23)	22.0	44.2	33.8			100.0	3.88
	기타	(3)		64.8	35.2			100.0	3.65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34.9	43.0	22.1			100.0	4.1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10.0	46.6	40.4	2.9		100.0	3.6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12.1	56.0	28.9	3.0		100.0	3.7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4.2	60.0	32.4	3.5		100.0	3.6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8.9	60.7	27.2	3.3	100.0	3.75	3.7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13.0	48.7	32.5	5.7	100.0	3.69	3.11
	600만원 이상	(36)	14.4	55.4	28.8	1.5	100.0	3.83	3.34

반영구화장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13명에 대해서 이유를 조사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평균 점수는 3.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이유로 여김), A/S 불만족이 3.18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작용 발생이 2.71점으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48〉 반영구화장 후회 이유 (사례수=13)

(단위: %)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합계	5점 척도 평균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 (모양, 색소 변색)	(13)	10.2	57.1	10.6	22.1	100.0	3.55
부작용 발생	(13)	28.4	24.5	36.9	10.3	100.0	2.71
A/S 불만족	(13)	2.7	29.1	52.0	16.3	100.0	3.18

반영구화장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13명의 대처법을 조사한 결과, ‘받은 장소에서 재시술이 안 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시술하였다’로 응답한 비중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32.8%, ‘받은 장소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재시술하였다’가 19.1%로 응답했다.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응답이 높은 비중은, 남성의 경우 ‘받은 장소에서 재시술이 안 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시술하였다’였으며(49.7%) 여성의 경우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였다(36.8%).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가장 응답이 높은 응답을 살펴보면, 20대, 30대는 ‘받은 장소에서 재시술이 안 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시술하였다’였으며(각각 43.1%, 49.1%), 40대는 ‘받은 장소에서 재시술이 안 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시술하였다’였으며(59.1%), 40대는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였다(100.0%).

〈표 4-49〉 반영구화장 시술 불만족 대처법 (사례수 N=13)

(단위: %)

		사례수	받은 장소에서 비용 지불 없이 재시술 하였다	받은 장소에서 추가적으 로 비용 지불하고 재시술 하였다	받은 장소에서 재시술이 안되어 다른 장소에서 재시술 하였다	방법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타	합계
	전체	(13)	—	19.1	38.7	32.8	9.3	100.0
성별	남성	(5)		24.3	49.7	26.0		100.0
	여성	(8)		16.1	32.4	36.8	14.7	100.0
연령	20대	(6)		40.2	43.1	16.7		100.0
	30대	(5)			49.1	25.7	25.2	100.0
	40대	(2)				100.0		100.0
결혼 여부	기혼	(4)			31.0	38.7	30.3	100.0
	미혼	(9)		27.6	42.2	30.2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2)				100.0		100.0
	2년 대졸이하	(3)		39.9	23.6		36.5	100.0
	4년 대졸이하	(7)		17.0	43.0	40.0		100.0
	대학원 이상	(1)			100.0			100.0
직업	공무원	(1)		100.0				100.0
	회사원	(8)			36.1	48.9	15.0	100.0
	자영업	(1)			100.0			100.0
	전문직	(2)		50.0	50.0			100.0
	주부	(1)				100.0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		100.0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42.6	12.7		44.7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55.7	44.3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			80.2	19.8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			51.7	48.3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				100.0		100.0
	600만원 이상	(3)				33.3	66.7	100.0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316명에 대해, 반영구화장 기술 기관 및 기술자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았다. 2개의 문항에서는 그렇다 보다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음(반영구화장 기술 전 피기술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에 부작용, 비용, 애프터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7개의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50〉 반영구화장 기술 불만족 대처법 (사례수 N=316)

(단위: %)

	그렇다	그렇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합계
반영구화장 기술전 피기술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1.4	59.1	9.4	100.0
동의서에 부작용, 비용, 애프터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9.1	51.8	9.1	100.0
동의서는 아니었지만, 문신 기술 전에 부작용 및 안전 관리에 대해 기술 전 후 정보 제공을 받았다	50.1	35.1	14.9	100.0
기술전 피기술자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후 기술을 실시하였다	61.5	29.2	9.3	100.0
기술전 피기술자의 피부특성이나 알러지, 체질 등의 사항을 파악하였다	48.2	36.0	15.8	100.0
기술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였다	65.7	20.6	13.7	100.0
기술시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였다	59.9	18.3	21.9	100.0
기술 후 애프터서비스에 만족하였다	60.3	27.0	12.8	100.0
기술장소는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70.1	19.9	10.1	100.0

나. 반영구화장 기술 후 부작용 및 피해경험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316명에 대해, 반영구화장 기술 후 부작용의 경험여부를 물어보았다. 10.2%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15.5%, 여성은 8.3%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10대는 16.2%, 20대는 12.7%, 30대는 19.4%, 40대는 7.1%, 50대 이상은 5.2%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4-51〉 반영구화장 시술 부작용 경험여부 (사례수 N=316)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316)	10.2	89.8	100.0
성별	남성	(84)	15.5	84.5	100.0
	여성	(232)	8.3	91.7	100.0
연령	10대	(16)	16.2	83.8	100.0
	20대	(79)	12.7	87.3	100.0
	30대	(103)	19.4	80.6	100.0
	40대	(77)	7.1	92.9	100.0
	50대 이상	(41)	5.2	94.8	100.0
결혼 여부	기혼	(176)	10.6	89.4	100.0
	미혼	(140)	9.6	90.4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51)	4.4	95.6	100.0
	2년 대졸이하	(48)	4.4	95.6	100.0
	4년 대졸이하	(182)	12.7	87.3	100.0
	대학원 이상	(35)	17.3	82.7	100.0
직업	학생	(21)	28.2	71.8	100.0
	공무원	(26)	15.4	84.6	100.0
	회사원	(130)	6.0	94.0	100.0
	자영업	(20)	6.6	93.4	100.0
	전문직	(42)	28.6	71.4	100.0
	주부	(51)	5.8	94.2	100.0
	서비스업	(23)	3.5	96.5	100.0
	기타	(3)		100.0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100.0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8.6	91.4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9.5	90.5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11.8	88.2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16.3	83.7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12.2	87.8	100.0
	600만원 이상	(36)	6.3	93.7	100.0

반영구화장 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한 33명에 대해, 부작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 보았다. 피부염증을 경험한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증(54.5%), 색소 변색(33.7%), 알레르기 반응(27.1%)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 4-52〉 반영구화장 시술 부작용 경험여부 (사례수 N=33)

(단위: %)

	사례수	발생한 적이 있다	발생하지 않았다	합계
피부 염증	(33)	62.4	37.6	100.0
감염성 질환(B형, C형 바이러스, 매독, 에이즈 등)	(33)		100.0	100.0
알레르기 반응	(33)	27.1	72.9	100.0
통증	(33)	54.5	45.5	100.0
색소 변색	(33)	33.7	66.3	100.0
흉터	(33)	14.9	85.1	100.0
안구·눈꺼풀내 기관 손상(각막손상 등)	(33)	0.8	99.2	100.0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증상(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	(33)	18.5	81.5	100.0

〈표 4-53〉 반영구화장 시술 부작용 세부 증상

	사례수	세부 증상
피부염증	(23)	고름 및 진물, 시술 주변 염증, 발열, 가려우면서 조금 붉게 부풀어올랐다, 빨간 반점, 가렵증, 부어오름 통증, 얼굴이 뒤집힘, 발진 통증, 흉터가 남음, 따가움, 먼지 트러블로 인한 가려움
알레르기 반응	(13)	가렵증, 발열, 빨간 반점, 눈물 고임, 발진 통증, 비염 코막힘, 두드러기
통증	(21)	꼭꼭 쑤시고 아팠다. 따가움, 화끈거리고 밤에 더 아픔, 눈물 고임, 눈 주위가 붓고 눈을 뜰수가 없었다, 경미한 통증, 고름 및 진물, 눈 뼈가 아픔, 빨간 반점
색소변색	(10)	변색이 왔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주변에 번졌다, 빨간 반점, 문신 색이 전체적으로 빠져갔다, 부어오름 통증, 멜라닌 색소침착 피부접촉염
흉터	(6)	흉터가 남음, 빨간 반점
안구·눈꺼풀 내 기관 손상 (각막 손상 등)	(1)	쳐짐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증상	(7)	가려우면서 조금 붉게 부풀어 올랐다, 가렵증, 부어오름 통증, 고름 및 진물, 두드러기

반영구화장 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한 33명 중 병·의원을 방문한 비중은 54.3%였다.

남성은 86.5%, 여성은 32.8%가 병·의원을 방문하였다. 10대는 57.6%, 20대는 82.7%, 30대는 60.9%, 40대는 19.9%, 50대 이상은 31.3%가 병·의원을 방문하였다.

〈표 4-54〉 부작용 치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여부 (사례수 N=33)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33)	54.3	45.7	100.0
성별	남성	(14)	86.5	13.5	100.0
	여성	(19)	32.8	67.2	100.0
연령	10대	(2)	57.6	42.4	100.0
	20대	(6)	82.7	17.3	100.0
	30대	(16)	60.9	39.1	100.0
	40대	(7)	19.9	80.1	100.0
	50대 이상	(2)	31.3	68.7	100.0

다. 반영구화장 인식조사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316명에 대하여 반영구화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긍정적인 응답은 74.2%, 부정적인 응답은 5.6%였다. 남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은 70.2%, 부정적인 응답은 6.9%였으며,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은 75.7%, 부정적인 응답은 5.2%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였으며(100.0%),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였다(11.8%).

〈표 4-55〉 반영구화장 경험자들의 반영구화장 시술 인식

(단위: %)

		사례수	매우 긍정적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적	합계
전체		(316)	10.2	64.0	20.2	5.6	100.0
성별	남성	(84)	4.7	65.5	22.9	6.9	100.0
	여성	(232)	12.2	63.5	19.2	5.2	100.0
연령	10대	(16)	30.9	69.1			100.0
	20대	(79)	5.6	58.5	26.1	9.8	100.0
	30대	(103)	4.2	61.5	22.5	11.8	100.0
	40대	(77)	4.0	65.7	23.7	6.7	100.0
	50대 이상	(41)	17.4	66.7	15.9		100.0
결혼 여부	기혼	(176)	11.8	65.0	20.8	2.4	100.0
	미혼	(140)	7.2	62.1	18.9	11.8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51)	23.7	63.2	11.4	1.7	100.0
	2년 대졸이하	(48)	2.5	63.7	27.9	5.9	100.0
	4년 대졸이하	(182)	6.5	65.8	20.1	7.6	100.0
	대학원 이상	(35)	11.4	56.5	29.1	3.0	100.0
직업	학생	(21)	26.6	51.0	21.0	1.5	100.0

		사례수	매우 긍정적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적	합계
	공무원	(26)	10.8	54.5	25.8	8.8	100.0
	회사원	(130)	6.2	68.3	18.1	7.4	100.0
	자영업	(20)	8.3	77.9	6.6	7.2	100.0
	전문직	(42)	3.8	66.3	21.1	8.8	100.0
	주부	(51)	17.2	46.6	33.2	2.9	100.0
	서비스업	(23)	10.8	88.0	1.2		100.0
	기타	(3)		100.0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22.8	72.0	2.6	2.6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11.4	70.9	12.0	5.7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12.5	65.0	17.0	5.6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3.2	69.5	22.3	5.0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7.6	66.6	19.0	6.8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19.5	65.3	5.8	9.5	100.0
	600만원 이상	(36)	11.4	45.9	38.9	3.8	100.0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316명에 대하여 반영구화장 기술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물어 보았다. 비싸다고 응답한 비중은 42.5%였으며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6%였다. 남성의 경우 비싸다고 응답한 비중은 45.2%였으며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였으며, 여성의 경우 비싸다고 응답한 비중은 41.5%였으며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6%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비싸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이었으며(53.1%),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였다(1.9%).

〈표 4-56〉 반영구화장 경험자들의 비용 인식

(단위: %)

		사례수	매우 비싼 편	비싼 편	보통	저렴한 편	합계
전체		(316)	0.7	41.8	52.0	5.6	100.0
성별	남성	(84)		45.2	49.3	5.5	100.0
	여성	(232)	0.9	40.6	52.9	5.6	100.0
연령	10대	(16)		26.6	64.1	9.3	100.0
	20대	(79)	1.7	28.9	60.8	8.6	100.0
	30대	(103)		47.5	46.0	6.5	100.0
	40대	(77)	1.6	31.3	65.2	1.9	100.0
	50대 이상	(41)		53.1	41.7	5.2	100.0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316명에 대하여, 향후의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을 물어보았다. 72.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75.0%, 여성은 71.9%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0대는 86.2%, 20대는 76.2%, 30대는 72.1%, 40대는 59.6%, 50대 이상은 77.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57〉 향후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316)	72.7	27.3	100.0
성별	남성	(84)	75.0	25.0	100.0
	여성	(232)	71.9	28.1	100.0
연령	10대	(16)	86.2	13.8	100.0
	20대	(79)	76.2	23.8	100.0
	30대	(103)	72.1	27.9	100.0
	40대	(77)	59.6	40.4	100.0
	50대 이상	(41)	77.4	22.6	100.0

향후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이 없는 90명에 대하여,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경우 기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49.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49.8%, 여성은 49.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0대는 32.6%, 20대는 73.1%, 30대는 56.9%, 40대는 45.2%, 50대 이상은 37.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58〉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 없는 경우 안전 관리 강화 시 기술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90)	49.6	50.4	100.0
성별	남성	(25)	49.8	50.2	100.0
	여성	(65)	49.6	50.4	100.0
연령	10대	(2)	32.6	67.4	100.0
	20대	(23)	73.1	26.9	100.0
	30대	(26)	56.9	43.1	100.0
	40대	(29)	45.2	54.8	100.0
	50대 이상	(10)	37.6	62.4	100.0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316명에 대하여, 주변에 반영구화장 기술 추천 의향을 물어보았다. 77.2%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81.1%, 여성은 75.8%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0대는 90.7%, 20대는 87.4%, 30대는 78.6%, 40대는 70.5%, 50

대 이상은 73.5%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59〉 반영구화장 기술 추천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316)	77.2	22.8	100.0
성별	남성	(84)	81.1	18.9	100.0
	여성	(232)	75.8	24.2	100.0
연령	10대	(16)	90.7	9.3	100.0
	20대	(79)	87.4	12.6	100.0
	30대	(103)	78.6	21.4	100.0
	40대	(77)	70.5	29.5	100.0
	50대 이상	(41)	73.5	26.5	100.0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316명에 대하여, 반영구화장을 시술하기 좋은 장소를 물어보았다. 반영구화장 전문샵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원룸(오피스텔)이 4.5%로 가장 낮았다.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는 경우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구화장 전문샵을 가장 좋은 장소로 선택하였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41.8%, 56.3%, 10대, 20대, 30대, 50대 이상은 각각 69.5%, 47.3%, 41.1%, 67.5%가 반영구화장 전문샵을 가장 좋은 장소로 선택하였음. 40대는 병·의원을 가장 좋은 장소로 선택하였다(48.0%).

〈표 4-60〉 반영구화장 시술하기 좋은 장소

(단위: %)

		사례수	반영구화장 전문샵	병·의원	미용 시설	원룸(오피스 텔)	합계
전체		(316)	52.4	27.9	15.2	4.5	100.0
성별	남성	(84)	41.8	30.9	17.7	9.6	100.0
	여성	(232)	56.3	26.8	14.3	2.6	100.0
연령	10대	(16)	69.5	21.5	9.0		100.0
	20대	(79)	47.3	18.4	22.5	11.8	100.0
	30대	(103)	41.1	31.0	23.8	4.1	100.0
	40대	(77)	38.5	48.0	9.6	3.9	100.0
	50대 이상	(41)	67.5	20.2	10.6	1.6	100.0
결혼 여부	기혼	(176)	55.7	30.1	11.9	2.3	100.0
	미혼	(140)	46.2	23.7	21.5	8.5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51)	61.8	18.3	19.9		100.0
	2년 대졸이하	(48)	42.3	17.2	35.3	5.2	100.0
	4년 대졸이하	(182)	54.5	32.9	7.0	5.5	100.0
	대학원 이상	(35)	34.8	36.3	21.7	7.3	100.0

		사례수	반영구화장 전문샵	병·의원	미용 시설	원룸(오피스 텔)	합계
직업	학생	(21)	62.2	11.9	5.0	21.0	100.0
	공무원	(26)	51.1	17.8	20.3	10.8	100.0
	회사원	(130)	45.3	29.5	21.2	4.1	100.0
	자영업	(20)	54.6	27.3	18.1		100.0
	전문직	(42)	32.9	44.7	18.3	4.1	100.0
	주부	(51)	62.8	33.8	3.4		100.0
	서비스업	(23)	73.1	7.5	14.6	4.8	100.0
	기타	(3)	76.4	23.6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66.9	24.4	8.7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52.1	10.2	32.0	5.7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41.0	27.7	27.7	3.6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64.3	24.7	5.8	5.2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56.5	30.5	5.1	7.9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46.2	37.6	9.9	6.2	100.0
	600만원 이상	(36)	47.7	37.2	14.1	1.0	100.0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316명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비의료인에 대한 시술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4%였으며,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4.0%였다. 성별로 구분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59.6%, 여성이 59.3%로 거의 비슷하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대가 6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50대 이상 66.1%, 30대 57.9%, 20대 57.5%, 40대 49.0% 순으로 높았다.

〈표 4-61〉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대한 인식

(단위: %)

		사례수	반영구화장은 미용행위 이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행위 허용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 처벌	의견 없음	합계
전체		(316)	59.4	34.0	6.6	100.0
성별	남성	(84)	59.6	40.1	0.3	100.0
	여성	(232)	59.3	31.8	8.9	100.0

		사례수	반영구화장은 미용 행위 이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 행위 허용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 처벌	의견 없음	합계
연령	10대	(16)	69.1	30.9		100.0
	20대	(79)	57.5	36.0	6.6	100.0
	30대	(103)	57.9	37.1	5.0	100.0
	40대	(77)	49.0	48.4	2.7	100.0
	50대 이상	(41)	66.1	23.4	10.5	100.0
결혼 여부	기혼	(176)	60.6	31.4	8.0	100.0
	미혼	(140)	57.0	39.1	3.9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51)	72.1	20.1	7.9	100.0
	2년 대졸이하	(48)	73.1	25.3	1.6	100.0
	4년 대졸이하	(182)	52.3	39.1	8.7	100.0
	대학원 이상	(35)	51.6	48.4		100.0
직업	학생	(21)	47.7	52.3		100.0
	공무원	(26)	49.9	31.2	18.9	100.0
	회사원	(130)	59.2	38.0	2.8	100.0
	자영업	(20)	75.2	19.7	5.1	100.0
	전문직	(42)	47.3	50.5	2.2	100.0
	주부	(51)	56.5	33.6	9.9	100.0
	서비스업	(23)	86.4	2.4	11.1	100.0
	기타	(3)	35.2	23.6	41.2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61.8	37.1	1.0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69.9	16.7	13.4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64.7	32.4	2.9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57.8	33.1	9.1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49.8	48.5	1.6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65.3	31.0	3.8	100.0

반영구화장 경험이 있는 316명 중, 시술 개선점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시술자의 전문성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시술 장소가 14.8%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시술자의 전문성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으며(남성 40.7%, 여성 43.3%),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남성은 시술 장소였으며(10.8%) 여성은 시술비용이었다(10.2%). 연령대로 구분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을 살펴본 결과,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은 시술자의 전문성이었고(각각 48.0%, 51.9%, 38.7%, 46.7%), 20대는 사용제품(40.1%)이었다.

〈표 4-62〉 반영구화장 기술 개선점

(단위: %)

		사례수	기술자의 전문성	사용 제품(잉크, 니들 등) 안전성	기술 비용	기술 장소(위생 적인 기술 환경)	기타	합계
전체		(316)	42.6	27.5	15.0	14.8	0.1	100.0
성별	남성	(84)	40.7	20.1	28.4	10.8		100.0
	여성	(232)	43.3	30.2	10.2	16.2	0.1	100.0
연령	10대	(16)	48.0	29.3	18.2	4.5		100.0
	20대	(79)	28.2	40.1	20.9	10.4	0.4	100.0
	30대	(103)	51.9	17.1	16.5	14.5		100.0
	40대	(77)	38.7	29.3	13.0	19.1		100.0
	50대 이상	(41)	46.7	25.5	12.0	15.8		100.0
결혼 여부	기혼	(176)	47.2	26.1	13.0	13.6		100.0
	미혼	(140)	33.8	30.2	18.8	17.0	0.2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51)	55.2	26.4	7.9	10.5		100.0
	2년 대졸이하	(48)	52.3	11.2	13.4	23.1		100.0
	4년 대졸이하	(182)	37.2	32.4	15.9	14.4	0.1	100.0
	대학원 이상	(35)	31.6	25.7	27.5	15.3		100.0
직업	학생	(21)	39.2	49.8		9.5	1.5	100.0
	공무원	(26)	33.5	34.8	25.5	6.2		100.0
	회사원	(130)	42.1	20.8	19.0	18.1		100.0
	자영업	(20)	31.6	41.9	11.1	15.3		100.0
	전문직	(42)	27.6	30.6	28.3	13.5		100.0
	주부	(51)	52.6	31.4	4.8	11.3		100.0
	서비스업	(23)	55.9	16.1	6.9	21.0		100.0
	기타	(3)		76.4	23.6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	28.9	45.7	6.1	16.8	2.6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7)	57.2	19.6	15.4	7.8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4)	39.5	25.7	12.3	22.4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0)	38.4	27.5	22.7	11.4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	46.0	35.1	10.4	8.5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1)	45.4	38.2	15.0	1.5		100.0
	600만원 이상	(36)	42.1	20.1	10.8	26.9		100.0

4. 문신 및 반영구화장 미경험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가. 문신 인식 조사

문신 미경험자 8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응답이 13.6%, 부정적인 응답이 45.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 11.0%, 부정적인 응답이 52.2%였으며,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15.7%, 부정적인 응답이 49.5%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긍정적인 응답은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8.5%), 부정적인 응답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51.7%).

〈표 4-63〉 문신 시술 인식

(단위: %)

		사례수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계
전체		(829)	1.5	12.1	41.1	31.1	14.4	100.0
성별	남성	(383)	0.5	10.5	36.7	37.1	15.1	100.0
	여성	(446)	2.3	13.4	44.8	25.8	13.7	100.0
연령	10대	(92)	11.2	27.3	37.6	17.9	5.9	100.0
	20대	(179)	0.7	19.6	39.7	33.6	6.4	100.0
	30대	(221)	1.5	12.4	44.7	29.8	11.6	100.0
	40대	(187)	1.1	14.1	37.6	34.2	13.1	100.0
	50대 이상	(150)		6.0	42.3	32.0	19.7	100.0
결혼 여부	기혼	(392)	0.5	8.6	41.6	32.5	16.8	100.0
	미혼	(437)	3.1	17.9	40.1	28.7	10.3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181)	5.2	17.5	41.8	25.1	10.4	100.0
	2년 대졸이하	(108)		14.0	42.0	37.0	7.0	100.0
	4년 대졸이하	(457)	0.5	8.7	43.5	30.1	17.3	100.0
	대학원 이상	(83)		16.2	24.9	43.0	15.9	100.0
직업	학생	(134)	5.8	28.6	35.7	22.1	7.8	100.0
	공무원	(59)		7.6	34.4	46.1	11.8	100.0
	회사원	(287)	0.5	10.7	32.5	38.8	17.6	100.0
	자영업	(69)	1.2	16.2	52.0	16.9	13.8	100.0
	전문직	(91)	1.0	8.6	54.9	19.0	16.5	100.0
	주부	(106)	0.5	5.7	48.1	32.1	13.6	100.0
	서비스업	(61)	3.9	10.6	45.5	27.3	12.7	100.0
	기타	(22)		19.0	42.2	27.4	11.4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7)	4.9	30.6	39.0	17.1	8.3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4)	5.0	10.7	37.2	30.4	16.7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98)	1.2	20.3	42.1	27.4	9.1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7)	1.2	6.3	45.4	36.1	11.0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8)	0.8	6.4	33.9	37.4	21.5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9)		10.9	43.2	37.9	8.0	100.0
	600만원 이상	(106)		7.5	41.6	26.4	24.6	100.0

문신 미경험자 8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문신 시술 의향은 74.7%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77.1%가 여성은 72.6%가 향후 문신 시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향후 문신 시술 의향이 없는 비중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84.7%), 1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52.8%).

〈표 4-64〉 문신 시술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829)	25.3	74.7	100.0
성별	남성	(383)	22.9	77.1	100.0
	여성	(446)	27.4	72.6	100.0
연령	10대	(92)	47.2	52.8	100.0
	20대	(179)	33.7	66.3	100.0
	30대	(221)	31.4	68.6	100.0
	40대	(187)	29.0	71.0	100.0
	50대 이상	(150)	15.3	84.7	100.0
결혼 여부	기혼	(392)	20.4	79.6	100.0
	미혼	(437)	33.4	66.6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181)	29.1	70.9	100.0
	2년 대졸이하	(108)	27.4	72.6	100.0
	4년 대졸이하	(457)	22.6	77.4	100.0
	대학원 이상	(83)	28.8	71.2	100.0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직업	학생	(134)	41.5	58.5	100.0
	공무원	(59)	31.9	68.1	100.0
	회사원	(287)	19.3	80.7	100.0
	자영업	(69)	35.8	64.2	100.0
	전문직	(91)	28.2	71.8	100.0
	주부	(106)	15.5	84.5	100.0
	서비스업	(61)	29.3	70.7	100.0
	기타	(22)	26.6	73.4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7)	43.8	56.2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4)	19.9	80.1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98)	30.4	69.6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7)	27.4	72.6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8)	13.1	86.9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9)	28.3	71.7	100.0
	600만원 이상	(106)	18.1	81.9	100.0

문신 미경험자 829명 중 향후 문신 시술 의향이 있는 26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개성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74점), 주변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2.51점).

〈표 4-65〉 문신 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 이유

(단위: %)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5점 척도 평균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우울 호전 계기)	(262)	3.5	23.2	46.6	17.7	9.0	100.0	2.95
개성 추구 (나만의 멋)	(262)	16.2	54.7	17.8	8.9	2.3	100.0	3.74
단순한 호기심	(262)	3.8	28.9	45.5	17.4	4.3	100.0	3.11
흉터나 반점 커버 등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	(262)	6.2	26.8	33.5	21.9	11.6	100.0	2.94
주변 친구들과의 유대감	(262)	2.0	9.8	41.6	30.6	15.9	100.0	2.51
마용, 메이크업의 편리성	(262)	11.2	31.3	32.2	14.9	10.4	100.0	3.18

문신 미경험자 829명 중 향후 문신 시술 의향이 있는 262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시술 장소를 조사하였다. 문신 전문샵에 대한 선호가 68.4%로 가장 높았으며, 원룸(오피스텔)이 2.3%로 가장 낮았다. 문신 전문샵에 대한 선호는 남성이 67.6%, 여성이 69.1%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문신 전문샵에 대한 선호는 10대가 87.0%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이 64.7%로 가장 낮았다.

〈표 4-66〉 문신 시술 의향이 있는 시술 장소

(단위: %)

		사례수	문신 전문샵	병·의원	미용 시설	원룸 (오피스텔)	합계
전체		(262)	68.4	21.6	7.7	2.3	100.0
성별	남성	(116)	67.6	23.4	6.6	2.4	100.0
	여성	(146)	69.1	20.3	8.5	2.2	100.0
연령	10대	(45)	87.0	9.7	3.3		100.0
	20대	(63)	79.4	16.5	1.5	2.6	100.0
	30대	(67)	58.1	22.6	14.0	5.3	100.0
	40대	(57)	58.5	35.4	6.1		100.0
	50대 이상	(30)	64.7	20.5	11.4	3.3	100.0

문신 미경험자 829명 중 향후 문신 시술 의향이 없는 56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사용제품에 대한 소독 및 사균 등에 대한 신뢰 부족’이 3.82로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3.79점), 부작용 발생 우려(3.76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 문제가 3.08점으로서 가장 덜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표 4-67〉 문신 시술 의향이 없는 경우 이유

(단위: %)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5점 척도 평균
부작용 발생 우려	(567)	19.6	47.6	23.6	7.7	1.5	100.0	3.76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	(567)	26.3	41.7	18.2	11.9	1.8	100.0	3.79
비용문제	(567)	7.8	28.0	35.7	22.0	6.6	100.0	3.08
시술자의 교육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신뢰 부족	(567)	18.2	44.7	25.2	9.8	2.0	100.0	3.67
시술환경이 비위생적일 것이라는 인식	(567)	24.3	38.4	25.1	10.9	1.3	100.0	3.74
사용제품(잉크, 니들 등)에 대한 소독 및 살균 등에 대한 신뢰 부족	(567)	25.8	42.3	20.9	9.7	1.3	100.0	3.82
원하는 모양을 얻지 못하였을 때의 후회	(567)	21.9	34.7	27.6	11.7	4.1	100.0	3.59

문신 미경험자 829명 중 향후 문신 시술 의향이 없는 567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위생 안전 관리 시 향후 시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20.6%가 시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19.3%, 여성은 21.8%가 시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0대의 시술의향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의 시술 의향이 19.0%로 가장 낮았다.

〈표 4-68〉 공공기관 위생안전 관리 시 시술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567)	20.6	79.4	100.0
성별	남성	(267)	19.3	80.7	100.0
	여성	(300)	21.8	78.2	100.0
연령	10대	(47)	29.8	70.2	100.0
	20대	(116)	20.1	79.9	100.0
	30대	(154)	19.9	80.1	100.0
	40대	(130)	22.8	77.2	100.0
	50대 이상	(120)	19.0	81.0	100.0

문신 미경험자 829명을 대상으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52.8%가 허용해야 한다, 32.2%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이 56.6%로 남성의 48.4%보다 높았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가 56.6%로 가장 높았으며, 10대가 47.2%로 가장 낮았다.

〈표 4-69〉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문신은 미용행위 이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행위 허용해야 한다	문신은 미용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이므로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처벌하여야 한다	의견 없음	합계
전체		(829)	52.8	32.2	15.1	100.0
성별	남성	(383)	48.4	32.9	18.7	100.0
	여성	(446)	56.6	31.5	11.9	100.0
연령	10대	(92)	47.2	34.9	17.9	100.0
	20대	(179)	48.2	36.7	15.1	100.0
	30대	(221)	56.5	32.0	11.6	100.0
	40대	(187)	56.6	29.6	13.8	100.0
	50대 이상	(150)	52.5	31.4	16.1	100.0

나. 반영구화장 인식 조사

반영구화장 미경험자 6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응답이 34.3%, 부정적인 응답이 61.3%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 31.8%, 부정적인 응답이 21.0%였으며,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38.1%, 부정적인 응답이 19.8%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긍정적인 응답은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54.5%), 부정적인 응답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29.9%).

〈표 4-70〉 반영구화장 시술 인식

(단위: %)

		사례수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계
전체		(684)	2.6	31.7	45.2	16.1	4.4	100.0
성별	남성	(408)	2.6	29.2	47.2	17.8	3.2	100.0
	여성	(276)	2.6	35.5	42.1	13.6	6.2	100.0
연령	10대	(83)	9.6	44.9	32.7	9.0	3.9	100.0
	20대	(149)	4.7	38.7	48.0	4.8	3.8	100.0
	30대	(184)	3.9	32.7	50.4	11.1	1.9	100.0
	40대	(142)	2.7	34.3	46.9	11.8	4.3	100.0
	50대 이상	(126)		25.4	44.7	24.4	5.5	100.0
결혼 여부	기혼	(303)	1.2	29.8	44.1	21.3	3.6	100.0
	미혼	(381)	4.6	34.5	46.8	8.5	5.6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144)	3.7	43.6	37.2	8.4	7.1	100.0
	2년 대졸이하	(92)	1.7	34.4	35.7	23.2	5.0	100.0
	4년 대졸이하	(379)	2.8	29.1	47.4	17.0	3.7	100.0
	대학원 이상	(69)	0.3	18.8	60.4	18.8	1.8	100.0
직업	학생	(125)	8.3	38.3	41.1	8.8	3.5	100.0
	공무원	(46)	0.2	39.3	49.0	11.3	0.2	100.0
	회사원	(234)	1.7	26.5	50.5	17.0	4.3	100.0
	자영업	(72)	1.8	20.5	66.7	9.3	1.7	100.0
	전문직	(79)	1.3	40.2	25.6	23.2	9.7	100.0
	주부	(64)	1.6	27.1	39.7	26.0	5.6	100.0
	서비스업	(43)		66.4	21.3	8.1	4.2	100.0
	기타	(21)	11.4	14.1	54.6	14.9	5.0	100.0

		사례수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계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86)	8.0	35.8	47.8	5.6	2.8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9)	1.5	27.9	51.3	10.9	8.5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9)	2.5	41.7	41.0	10.5	4.3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28)	4.0	27.0	53.2	10.1	5.7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8)	0.3	19.5	40.1	39.2	0.9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4)	0.3	43.6	39.5	16.3	0.3	100.0
	600만원 이상	(100)	2.2	27.0	44.4	18.6	7.9	100.0

반영구화장 미경험자 6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은 62.7%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68.1%가 여성은 54.4%가 향후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향후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이 없는 비중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70.6%),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63.5%).

〈표 4-71〉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684)	37.3	62.7	100.0
성별	남성	(408)	31.9	68.1	100.0
	여성	(276)	45.6	54.4	100.0
연령	10대	(83)	46.4	53.6	100.0
	20대	(149)	36.5	63.5	100.0
	30대	(184)	47.6	52.4	100.0
	40대	(142)	44.7	55.3	100.0
	50대 이상	(126)	29.4	70.6	100.0
결혼 여부	기혼	(303)	35.7	64.3	100.0
	미혼	(381)	39.7	60.3	100.0
최종 학력	고졸이하	(144)	44.6	55.4	100.0
	2년 대졸이하	(92)	34.6	65.4	100.0
	4년 대졸이하	(379)	36.2	63.8	100.0
	대학원 이상	(69)	31.7	68.3	100.0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직업	학생	(125)	41.0	59.0	100.0
	공무원	(46)	43.1	56.9	100.0
	회사원	(234)	32.3	67.7	100.0
	자영업	(72)	38.5	61.5	100.0
	전문직	(79)	33.8	66.2	100.0
	주부	(64)	37.9	62.1	100.0
	서비스업	(43)	63.0	37.0	100.0
	기타	(21)	23.7	76.3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86)	45.8	54.2	1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9)	42.0	58.0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9)	44.3	55.7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28)	34.3	65.7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8)	20.2	79.8	1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4)	52.0	48.0	100.0
	600만원 이상	(100)	28.4	71.6	100.0

반영구화장 미경험자 684명 중 향후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이 있는 28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미용, 메이크업의 편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92점), 단순한 호기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2.66점).

〈표 4-72〉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 이유

(단위: %)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5점 척도 평균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우울 회전 계기)	(286)	7.8	50.9	24.4	14.2	2.7	100.0	3.47
개성 추구 (나만의 멋)	(286)	8.0	50.2	27.8	11.7	2.3	100.0	3.50
단순한 호기심	(286)	3.3	14.0	38.5	33.8	10.4	100.0	2.66
흉터나 반점 커버 등으로 인한 외모 컴플렉스	(286)	9.7	44.3	22.0	16.9	7.2	100.0	3.32
주변 친구들과의 유대감	(286)	3.0	14.7	47.4	22.9	12.1	100.0	2.74
미용, 메이크업의 편리성	(286)	25.3	49.6	17.5	7.3	0.3	100.0	3.92

반영구화장 미경험자 684명 중 향후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이 있는 286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기술 장소를 조사하였다. 반영구화장 전문샵에 대한 선호가 54.8%로 가장 높았으며, 원룸(오피스텔)이 1.3%로 가장 낮았다. 반영구화장 전문샵에 대한 선호는 남성이 55.7%, 여성이 53.7%였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반영구화장 전문샵에 대한 선호는 10대가 65.8%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52.3%로 가장 낮았다.

〈표 4-73〉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이 있는 기술 장소

(단위: %)

		사례수	반영구화장 전문샵	병·의원	미용 시설	원룸 (오피스텔)	합계
전체		(286)	54.8	32.3	11.6	1.3	100.0
성별	남성	(148)	55.7	28.8	12.9	2.6	100.0
	여성	(138)	53.7	36.0	10.2		100.0
연령	10대	(39)	65.8	18.8	15.5		100.0
	20대	(63)	59.2	17.2	22.8	0.8	100.0
	30대	(86)	53.8	26.3	18.7	1.1	100.0
	40대	(61)	50.3	38.5	8.2	2.9	100.0
	50대 이상	(37)	52.3	42.2	4.2	1.2	100.0

반영구화장 미경험자 684명 중 향후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이 없는 39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원하는 모양을 얻지 못하였을 때의 후회’이 3.76로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사용제품에 대한 소득 및 사균 등에 대한 신뢰 부족’(3.72점), 부작용 발생 우려(3.65점) 순으로 나타났음. 비용 문제가 3.00점으로서 가장 덜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표 4-74〉 반영구화장 기술 의향이 없는 경우 이유

(단위: %)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5점 척도 평균
부작용 발생 우려	(398)	19.3	41.5	25.8	11.7	1.7	100.0	3.65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	(398)	11.3	19.5	37.4	27.8	4.0	100.0	3.06
비용문제	(398)	6.7	21.1	43.4	22.9	6.0	100.0	3.00
기술자의 교육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신뢰부족	(398)	18.5	34.4	33.1	11.0	3.0	100.0	3.55
기술환경이 비위생적일 것이라는 인식	(398)	18.8	40.4	28.8	9.3	2.6	100.0	3.64
사용제품(잉크, 니플 등)에 대한 소득 및 살균 등에 대한 신뢰 부족	(398)	24.0	37.7	27.2	9.0	2.2	100.0	3.72
원하는 모양을 얻지 못하였을 때의 후회	(398)	28.8	30.8	29.8	8.9	1.7	100.0	3.76

반영구화장 미경험자 684명 중 향후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이 없는 39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위생 안전 관리 시 향후 시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20.6%가 시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25.0%, 여성은 12.4%가 시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대의 시술 의향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의 시술 의향이 15.6%로 가장 낮았다.

〈표 4-75〉 반영구화장 시술 의향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 위생안전 관리 시 시술 의향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합계
전체		(398)	20.6	79.4	100.0
성별	남성	(260)	25.0	75.0	100.0
	여성	(138)	12.4	87.6	100.0
연령	10대	(44)	29.7	70.3	100.0
	20대	(86)	32.9	67.1	100.0
	30대	(98)	17.1	82.9	100.0
	40대	(81)	24.3	75.7	100.0
	50대 이상	(89)	15.6	84.4	100.0

반영구화장 미경험자 684명을 대상으로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 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48.7%가 허용해야 한다, 36.8%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이 56.7%로 남성의 43.4%보다 높았다. 연령대로 구분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대 이상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10대가 36.7%로 가장 낮았다.

〈표 4-76〉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반영구화장은 미용 행위가 의료인에 의한 시술 행위 허용해야 한다	반영구화장은 미용 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이므로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처벌하여야 한다	의견 없음	합계
전체		(684)	48.7	36.8	14.5	100.0
성별	남성	(408)	43.4	42.1	14.5	100.0
	여성	(276)	56.7	28.8	14.5	100.0
연령	10대	(83)	36.7	42.9	20.4	100.0
	20대	(149)	44.0	36.9	19.0	100.0
	30대	(184)	46.2	36.5	17.3	100.0
	40대	(142)	48.7	35.6	15.7	100.0
	50대 이상	(126)	53.5	36.0	10.5	100.0

제 5 장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실태 해외 사례 조사

제1절 문신 시술 인구 통계

제2절 미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제3절 호주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제4절 영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제5절 프랑스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제6절 태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5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실태 < 해외 사례 조사 <

제1절 문신 시술 인구 통계

2016년에 조사된 유럽연합국 중 14개국 기준 평균 문신율은 12%로 대부분의 국가가 7~19% 범위에 있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각각 24%로 북아메리카의 경우 문신율은 유럽연합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²⁷⁾. 호주의 경우 14.5%²⁸⁾, 뉴질랜드 20% 등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기준 유럽연합에서 조사된 평균 문신율은 5~10%로 2016년 조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젊은 연령 인구의 문신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신을 한 사람의 최대 50% 정도는 후회하지만, 실제로 문신을 제거하는 비율은 일부다²⁹⁾ 프랑스의 문신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프랑스의 대표적인 설문조사 업체인 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 (IFOP)에서 2016년 조사³⁰⁾한 연구 결과 의하면 18세 이상 인구 중 14%가 문신 시술을 하였다고 응답함. 이는 2010년 조사 당시의 10%보다 4%가량 증가한 수치다. 반영구화장 시술율은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3%, 불가리아 8%, 사이프러스 20%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문신과 별도로 반영구화장을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점 등 때문으로 보였다.

미국의 경우 문신 스튜디오는 약 21,000개 정도³¹⁾, 영국의 경우 3,000개³²⁾, 프랑스의 경우 3,500~4,000개³³⁾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Blackpool시는 인구수가 140,000명이며 문신 스튜디오가 49개(인구 2,867명당 1개의 스튜디오), Norwich시는 인구 137,000명에 38개의 문신 스튜디오가 있다.³⁴⁾ 프랑스의 경우, 인구 13만 명의 Limoges시에는 문신 스튜디오가 18개가 영업중이며, 최근 급증

27) 유럽연합,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 Final report, 2016

28) <https://disappearink.com.au/tattoo-statistics-australia/>

29) Laux, P., et al., A medical-toxicological view of tattooing. The Lancet, 2016. 387(10016): p. 395-402.)

30) 2016년 11월 15일~16일 동안 인구 표본 추출을 통해 추출된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31) <https://tattooschool.com/americas-booming-tattoo-economy-1-5-billion-industry/>

32) <https://www.sectorsdonut.co.uk/sectors/consumer-services/tattoo-studio/market-research>

33) <https://www.tattoos.fr/tatouage/actus-tatouage/chiffres-tatouage-france>

34) <https://www.mirror.co.uk/news/uk-news/tattoo-capital-britain-one-inking-6117530>

세에 있다³⁵⁾. 그러나 프랑스 문신협회에서는 약 50% 정도의 업소가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신 잉크는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지만, 반영구화장(Permanent make-up) 잉크는 유럽산 특히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등록된 문신 시술자 이외에 비공식적 시술자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값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표 5-1> 전 세계 주요 국가 문신 시술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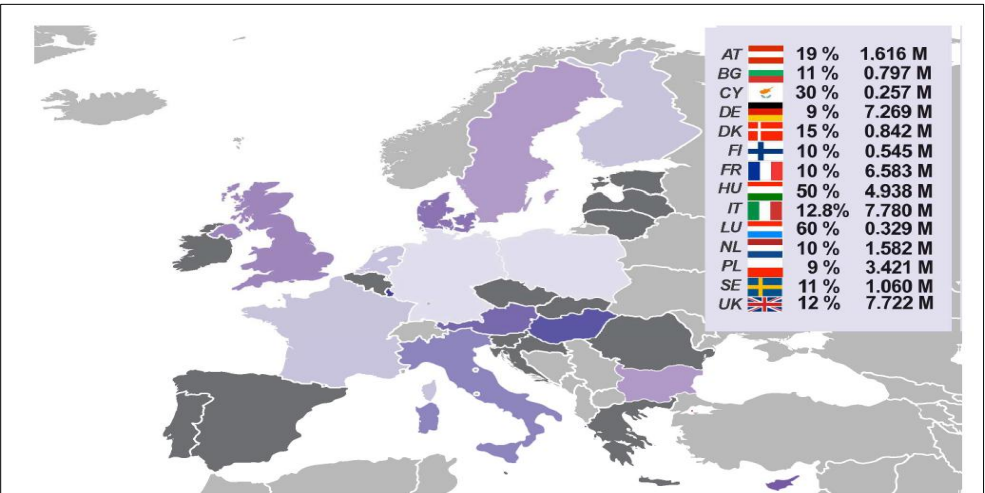
문신		반영구화장	
국가	시술률(prevalence)(%)	국가	시술률(prevalence)(%)
유럽	12	이탈리아	3
호주	14.5	불가리아	8
뉴질랜드	20	사이프러스	20
미국	24		
캐나다	24		

자료: 유럽연합,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 Final report, 2016

주 1)호주의 경우 <https://disappearink.com.au/tattoo-statistics-australia/>에서는 14.5%로 수치 제시함

2) 미국의 경우 Laumann AE, Derick AJ: Tattoos and body piercing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data set. J Am Acad Dermatol 2006;55:413-421

[그림 5-1] 유럽연합국 평균 문신율



자료: 유럽연합,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 Final report, 2016

35)

<https://www.tatouage-partage.com/fr/tatouage/explosion-nombre-salons-tatouage-france-limites>

1. 문신에 따른 부작용

문신에 따른 부작용은 감염(infection), 육아종 반응(granulomatous reaction) 또는 알레르기 반응(allergic reaction), 종양(tumour)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서베이 자료 이외에 역학조사 데이터가 부족하여 부작용에 대한 임상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Kluger(2010)³⁶⁾, Desai 등(2011)³⁷⁾)

문신 시술 도중에 발생하는 급성 염증(Acute aseptic inflammation), 피부 박테리아 감염은 시술 이후 수일 내에 발생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은 수 주 동안 또는 수 년 동안 만성적인 피부질환 또는 면역체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Brady³⁸⁾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뉴욕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중 10.3% 정도가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4.3%는 경미한 급성 증상을 보인 반면(통증, 가려움증, 부풀림), 6%는 만성적인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991~2011년 동안 발간된 논문을 기준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색조 문신 잉크가 피부 부작용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색조 잉크에는 azo 안료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인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zo 안료는 방향족 아민(aromatic amine)에 쉽게 분해되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³⁹⁾.

Klug(2010)⁴⁰⁾의 연구에 의하면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 3,411명을 대상으로 인터

36) Kluger, N., Cutaneous complications related to permanent decorative tattooing.

Expert Rev Clin Immunol, 2010. 6(3): p. 363-71.

37) Desai, N.A. and M.L. Smith, Body art in adolescents: paint, piercings, and perils.

Adolesc Med State Art Rev, 2011. 22(1): p. 97-118.

38) Brady, B.G., et al., Self-reported adverse tattoo reactions: a New York City

Central Park study. Contact Dermatitis, 2015. 73(2): p. 91-9.

39) Engel E, Vasold R, Santarelli F, Maisch T, Gopee NV, Howard PC, Landthaler M, Baumler W: Tattooing of skin results in transportation and light-induced decomposition of tattoo pigments - a first quantification in vivo using a mouse model. Exp Dermatol 2010; 19: 54-60.

40) Klugl, I., et al., Incidence of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tattooed skin: a nation-wide survey in German-speaking countries. Dermatology, 2010. 221(1): p. 43-50.

넷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67.5%가 문신 기술 이후 피부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6.6%가 전신 반응(systemic reactions)을 보였다. 문신 기술 이후 문신으로 인해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킨 비중은 6%에 달한다.

색조를 이용한 문신이 검은색 문신보다 단기적으로 더 많은 단기적인 피부 트러블을 일으켰다.

Laux 등(2016)⁴¹⁾에 의하면 문신 기술을 한 사람 중 약 50%가 문신 기술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문신 잉크를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고(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ections 601 and 602), 그리고 잉크 안에 사용되는 안료는 색조 첨가물(colour additives)로서 동 법률의 721조의 규제를 받는다. 화장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전 문신 잉크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시판된 이후 라벨링과 관련하여 1970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등 규제를 받았다. 특히 색조 첨가물을 인체에 투입할 때는 색조 첨가물에 인체에 투입됨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 FDA에서는 문신 잉크에 사용되는 색조 첨가물에 대해 안전성 등을 허가하여 규제한 바는 없다. 이는 관행이었기도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적었던 것이 원인이기도 하였다. 현재 FDA는 최근 부작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문신 잉크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화학물 리스트 등을 규제하고 있다.

41) Laux, P., et al., A medical-toxicological view of tattooing. The Lancet, 2016. 387(10016): p. 395-402.

제2절 미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문신과 관련한 시술 절차나 시술 행위와 관련한 규제를 다루는 법안은 없지만 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 면허제도(license)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주의 경우에는 문신 면허가 별도로 없다. 시술자의 경우 주 정부의 집행기관에 등록하고, 시술업소 운영과 관련한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Connecticut 주의 경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감독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문신을 허용하고 있다. Connecticut 주의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문신은 (1) Connecticut 주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2) Connecticut 주의 의사 지도(direction) 하에 면허를 받은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APRN)); (3) Connecticut 주의 의사 감독 또는 책임하에 간호사(registered nurse (RN)); (4) Connecticut 주의 의사 감독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technician); (CGS § 19a-92a; Public Health Code, § 19a-92a-1 참고)만이 문신을 시술할 수 있다.

Arizona 주의 경우에는 문신 면허가 별도로 있지 않으며, 이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 훈련 요구사항도 없다. Arizona 주의 경우 규제 완화 성향이 강한 주로 최소한의 규제(미성년자에 대한 시술 시 부모 동의 필요 등)만 실시하고 있다.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의 경우 문신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licensing requirements)은 주별로 상이하다. 최소한의 견습과정(Apprenticeship)이 필요한 경우는 Alaska(380시간 이상의 견습 훈련 (380+)), Arkansas(최소 6개월, 최대 24개월) 등이다. 공식적인 시험(formal exam)에 합격해야 하는 경우는 Alaska, Arkansas, Kansas 등이다. 업소등록만 필요하고 개인 면허는 필요 없는 경우는 Delaware, Idaho, Illinois, Indiana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 인증(Bloodborne Pathogen Training Certificate), AHA 응급 처치 교육, Body Art 교육 프로그램 완료 등)이다. 반영구화장의 경우 American Academy of Micropigmentation(AAM)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AAM 인증서가 필요한 주는 New Jersey, Massachusetts, Maine 등이다. AAM인증서는 구두시험, 이론시험,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 금지는 1)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완

전 금지하는 경우 2)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시술 시에 참관하거나 동의 시에 물리적으로 함께 주재하여야 하는 경우에 따라 주별로 각각 17개 주, 28개 주, 12개 주가 분포해 있다.

<표 5-2>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금지

완전 금지	부모의 동의 필요	부모가 시술시 참관 또는 동의시 주재
AK,CA,GA*,IA[1],ID[2],IL*,ME,MS,NH,NY,NC,OK,RI,SC[3],TN[4]†,WA,WI*(17)	AL,AZ,AR,CO,CT,DE,FL,HI,IN,KS,KY,LA,MI,MN,MO,MT,NE,NJ,ND,OH,PA,SD,TX†,UT,V,T,VA,WV,WY(28)	AZ,AR,IN,KS,LA,NE,ND,OH,P A,RI,VA,WY(12)

자료: <https://www.cga.ct.gov/2013/rpt/2013-R-0231.htm>

주 1) IL의 경우 의사나 의사의 감독하에 면허를 받은 시술자에 의해 문신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금지 아님

2) ID의 경우 14세 미만의 경우 금지하나, 14~18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3) SC의 경우 18세 미만 금지, 19~21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4) TN의 경우 16세 미만 금지, 16~18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표 5-3> 주별 문신 면허 법

주(State)	발급 부서 라이선스명	요구 사항	만료	법령 ⁴²⁾
Alabama	Alabam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Body Art Operator's Permit	Alabama 보건부로부터 승인 받은 현 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 인증서 B형 간염 예방 접종 증거 사진 I.D. 사본	1년	Ala. Code § 22-1-17A
Alaska	Alaska Department of Commerce,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attooing and Permanent Cosmetic Coloring License	참고: 알래스카 주에서는 정식 면허 시험이 필요함. 나열된 요구 사항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구 사항임. 380 시간 이상의 견습 훈련 (380+) 완료 공증된 신청 검증된 교육 증명 기록 현재 심폐소생술 및 혈행성 병원균 카드의 인증 사본 Alaska 외부에서 훈련된 경우: 법령 및 규제 책자 공부 확인 증명서	홀수 해마다 8월 31일	Alaska Stat. §08.13
Arizona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음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음	N/A	Ariz. Rev. Stat. § 13-3721

주(State)	발급 부서 라이센스명	요구 사항	만료	법령 ⁴²⁾
Arkansas	Arkansa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attoo Artist, Permanent Cosmetic Artist, Body Piercer or Brander License	참고: Arkansas 주에서는 면허에 대한 정식 시험이 필요함. 나열된 요구 사항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구 사항임. 견습 과정 완료(최소 6개월, 최대 24개 월) 감독된 바디 아트 작업의 375시간 완 료(트레이너가 제출한 로그) 현재 심폐소생술 및 혈행성 병원균 카 드의 인증 사본 영구 미용 아티스트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 사본 을 제공해야 함.	매년 12월 31일	Ark. Stat. Ann. §§ 20-27-1501 et seq.
California	카운티 보건부 관리	라이센스는 각 개별 카운티(County)에 서 관리하지만 주에는 다음을 포함한 기본 요구 사항이 있음. LEA 승인 혈액 매개 병원체 코스 수료 증명서 B형 간염 예방 접종	카운 티에 따라 다름	Cal. Health & Safety Code § 119300 to 119328, Cal. Penal Code 653
Conneticut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음	House Bill 6590 (sHB 6590)은 2013 년 5 월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필요함	N/A	Conn. Gen. Stat. §19a-92g
Delaware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음	Delaware는 업소(shop) 등록을 요구 하고 업소 소유자는 보건부로부터 허가 를 받아야하지만 개별 라이센스는 필요 하지 않음.	N/A	Del. Code Ann. tit. 16, §122(3)(w), Del. Code Ann. tit. 11, §1114(a)
Florida	Florida Department of Health Tattoo Artist License	혈액 매개 병원체 및 전염병 과정 수료 증명서(70% 이상의 점수)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	매년	Fla. Stat. §381.075, Fla. Stat. §381.0775 et seq., Fla. Stat. § 381.00787
Georgia	카운티 보건부 관리	라이센스는 각 개별 카운티에서 관리하 지만 많은 카운티에서는 아직 라이센스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음. 주정부는 2014 년 100 %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	N/A	Ga. Code § 31-40-1 to 31-40-10, Ga. Code § 16-12-5, Ga. Code § 16-5-71.1

주(State)	발급 부서 라이센스명	요구 사항	만료	법령 ⁴²⁾
Hawaii	State of Hawaii Department of Health State of Hawaii Tattoo Artist License	승인된 곳에서 혈액 매개 병원체 코스 수료 증명서 결핵 및 매독 보고 양식 작성(B형 간염 백신 권장)	매년 1월 31일	Hawaii Rev. Stat. § 321-13, Hawaii Rev. Stat. § 321-379
Idaho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음	Idaho는 업소 등록을 요구하고 업소 주인은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 지만 개별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음.	N/A	Idaho Code § 18-1523 (2004)
Illinois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음	Illinois에는 업소 등록이 필요하며 업 소 소유자는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 하지만 개별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모든 시술자는 OSHA 승 인 혈액 매개 병원체 과정을 이수해야 함.	N/A	Ill. Rev. Stat. 410 §54/1 to 54/999, Ill. Rev. Stat. 720 §5/12C-35
Indiana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음	Indiana는 업소 등록이 필요하며 업소 소유자는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 음. 그러나 모든 시술자는 OSHA 승인 혈액 매개 병원체 과정을 이수해야 함.	N/A	SECTION 1. IC 25-1-19, Ind. Code Ann. §16-19-3-4.1 , Ind. Code Ann. §35-42-2-7
Iowa	Iow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attoo Artist License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 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 완료 증명 AHA 응급 처치 교육 허가증이 포함된 신청서	매년 12월 31일	Iowa Code §135.37, Iowa Code §135.37
Kansas	Kansas Board of Cosmetology Body Art Practitioner License	참고: Kansas 주에서는 면허에 대한 정식 시험이 필요함. 나열된 요구 사항 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구 사항임. Body Art 교육 프로그램 완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GED 증명 혈액 매개 병원체 과정 이수증 견습 기간 동안 수행된 50가지 절차에 대한 동의 양식 사본 연령 증명 및 신원 확인이 완료된 신청 서	1년	Kan. Stat. Ann. §65-1940 to 65-1954, Kan. Stat. Ann. §65-1953
Kentucky	Kentucky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Primarily Managed By County Health Departments	Kentucky는 모든 문신 시술자가 일하 는 카운티의 보건 부서에 등록해야 하 며 문신 업소 등록 및 건물의 연간 검 사가 필요하지만 시술자 훈련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 사항은 없음.	1년	Ky. Rev. Stat. §194A.050; 211.760, Ky. Rev. Stat. §211.760

주(State)	발급 부서 라이선스명	요구 사항	만료	법령 ⁴²⁾
Louisiana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음	Louisiana는 업소 등록을 요구하고 업소 소유자는 Louisiana Health and Hospitals의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개별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음.	N/A	La. Rev. Stat. Ann. § 40:2831 et seq., La. Rev. Stat. Ann. §14:93.2

1. 캘리포니아주 사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afe Body Art Act 규정⁴³⁾을 따른다. Safe Body Art Act 규정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신뿐 아니라 피어싱, 브랜딩, 반영구화장(permanent cosmetics)을 시술하는 시술자와 업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제정목적은 적절한 시술 절차와 시술 장비 및 도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감염병(infectious disease) 전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1장(ARTICLE 1. General Provision) 본문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표 5-4> Safe Body Art 규정 구성

규정	내용
- ARTICLE 1.	- General Provisions [119300 - 119301]
- ARTICLE 2.	- Restrictions on the Performance of Body Art [119302 - 119304]
- ARTICLE 3.	- Practitioner Registration [119306 - 119311]
- ARTICLE 4.	- Permanent Body Art Facilities [119312 - 119315]
- ARTICLE 5.	- Temporary Body Art Facilities [119317 - 119318]
- ARTICLE 6.	- Enforcement [119319 - 119324.5]
- ARTICLE 7.	- Mechanical Stud and Clasp Ear Piercing [119325 - 119328]

가. 시술자 자격

문신을 포함하여 바디 아트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지역(county) 집행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시술자는 시술을 수행할 수 없다. 등록은 매년 갱신되며,

42) <https://www.ncsl.org/research/health/tattooing-and-body-piercing.aspx>

43) <https://cchealth.org/eh/body-art/pdf/Safe-Body-Art-Act-Revised-0101-2014.pdf>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시술자가 18세 이상임을 나타내는 유효한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예: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 2" x 2" 여권 유형 사진, 시(County) 승인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통제 교육 완료 증명서, B형 간염 예방 접종 증명서, 면역 증거, 의학적 이유에 따른 예방 접종 거부 사유 증명이다. California Safe Body Art Act에 따라 바디 아트 전문가는 매년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통제 교육을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나. 업소 관리⁴⁴⁾

시술자의 등록 이외에 시술업소는 공중 보건 허가(health permit)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술업소에서는 시술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중보건허가를 받기 위해 바디 아트 시설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가) 일반적인 요구 사항

현재 감염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시설은 깨끗하고 곤충과 설치류가 없으며 벽, 매끄럽고 세척 가능하며 구멍이 없는 벽, 바닥 및 천장이 있다. 모든 실무자는 인증서를 게시하여 등록한다. 바늘 등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되어 샤프(sharps) 폐기물통을 통해 처리한다.

나) 시술 공간

적절한 조명 장비, 비접촉식 디스펜서에 뜨겁고(110°F) 차가운 물, 액체 비누 및 일회용 타월이 있는 손 씻는 싱크대 장착

다) 오염 제거 영역(일회용 멸균기구만 사용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음)

44) <https://blxtraining.com/california-tattoo-license/>

최소 5피트 또는 청소 가능한 방벽으로 시술 공간에서 분리, 세척 및 소독 장비를 위한 냉온수 싱크대 장착, 의료기기의 멸균을 위해 제조된 장비만 사용 가능, 최초 설치 시, 수리 후 및 최소한 월 단위로 멸균 장치는 상업용 생물학적 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테스트해야 한다.

다. 시술 절차

고객은 사전에 시술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서면의 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를 읽고 서명해야 한다. 사전 동의서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시술 절차 (2) 시술 후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필요한 치료 (3) 신체예술의 영구성에 대한 진술 (4) 문신 잉크, 염료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과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였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해 (5) 시술 후 지시사항(목욕, 여가활동 목적의 수상 활동, gardening, 동물과의 접촉 등) 이 포함된다.

서면의 동의서 외에 시술 전 다음의 고객 건강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고객의 임신 여부, 시술 부위에서의 헤르페스 감염, 당뇨병, 라텍스 또는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혈우병 또는 기타 출혈 장애 또는 심장 판막 질환 여부, 치과 또는 수술 절차 전에 처방된 항생제를 포함하여 약물 사용 이력 여부,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에 대한 다른 위험 요소 여부이다. 그리고 절차 후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부모의 동의와 관계 없이 문신을 받으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 뉴욕 사례

뉴욕의 경우 1961년 문신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나 1997년 이를 합법화하였다. 1961년 불법화한 이후 1966년 Grossman v. Baumgartner 소송이 있었으나 문신 금지는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시켰다. 그러나 1997년 당시 뉴욕시장이었었던 Rudolph Giuliani은 “문신이 이미 뉴욕시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문신에 의해 B형 간염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지난 40년 동안 보고된 바도 없다”고 하며 합법화에 힘을 실어 주었다.

가. 기술자 자격

문신 및 바디 피어싱에 대한 뉴욕주 전역의 건강 규정은 뉴욕주 보건국에서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rticle) 제4A조에 따른다⁴⁵⁾. 법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일하는 문신 기술자는 문신 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뉴욕시의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반영구화장 기술자의 경우에도 문신 면허가 필요하다. 문신 면허를 받으려면 개인이 3시간의 감염 관리 과정과 건강 및 정신 위생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s(DOHMH) Health Academy)에서 실시하는 감염 관리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문신 면허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감염 관리 과정 등록이 이루어진다. 과정을 수료하고 필기시험(written examination)에 합격하면 면허가 발송된다.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문신 면허는 18세 이상 등록(application) 가능하며, 2년 동안 유효하다. 발행된 면허는 문신 스튜디오의 눈에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나. 업소 관리

문신 기술을 하는 업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신 기술자의 면허 등록 시 수강하는 감염 관리 과정 매뉴얼에 따르면 업소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소는 소독되거나 멸균된 장비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구역을 제공하는 게 최선이다. 하나는 Function-specific client zone으로 고객이 수용되고 문신 기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소독된 깨끗한 장비는 이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Cleaning/sterilizing area로 세면대와 대야가 있어 마감 시 사용한 물품을 세척하고 살균하는 곳이다.

뚜껑이 달린 초음파 세척 장치를 사용하여 기기를 청소할 수 있는데, 이는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는 않지만, 세정을 제공하여 기술자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멸균 시에는 증기 또는 건열 멸균기를 사용해야 한다.

45) https://www.health.ny.gov/community/body_art/article_4a.htm

다. 시술 절차

모든 문신 스튜디오는 해당 시설에서 수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일회용 바늘과 승인된 잉크 취급 절차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문신 시술자는 문신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일회용 멸균 의료 검사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장갑을 착용하기 직전이나 제거 시 즉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한다.

문신 시술 시 고객마다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문신한 날짜 및 시술을 한 부위가 기재된 고객의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한 문신 시술자로부터 시술을 받기 전에 문신 전문가는 다음을 확인하는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1) 문신 시술 중 사용할 멸균되고 밀봉된 패키지에 있는 모든 일회용 바늘을 보여주고, 승인된 잉크 절차만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2) 문신을 받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회용 바늘을 개봉한다.

문신을 받는 사람에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문신 스튜디오는 확인 양식의 사본을 7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문신하는 것은 뉴욕주 형법 260.2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사용한 문신 바늘 및 기타 날카로운 물체는 의료폐기물 샤프(sharps) 처리가 승인된 샤프 용기에 폐기해야 한다. 염료 또는 안료는 해당 물질의 폐기에 관한 모든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제3절 호주 문신 기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호주의 경우 주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NSW)의 경우, 2012년 문신사법(Tattoo Parlours Act 2012)을 제정하였고⁴⁶⁾, 퀸즈랜드(QLD) 주의 경우 2013년 QLD법령명(Tattoo industry act QLD 2013)을 제정하였다. NSW 문신사법 제정의 배경은 문신사법의 설명문(explanatory note)⁴⁷⁾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문신산업과 문신 커뮤니티가 범죄조직과 일정 정도의 연관성이 높다는 인식(오토바이 애호가들의 불법행위 등)에서 출발하고 있다. 문신사법(Tattoo Parlours Act 2012)에서는 문신(body art tattooing procedure)과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cosmetic tattooing procedure)을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영구화장인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불필요하다. 또한, 의료상의 이유(예를 들어, 의학적 상태 또는 수술 후 결과를 숨기거나, 변장시키거나 수정하기 위해)로 의료인이 시술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는 불필요하다.

1. 시술자 자격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는 문신 시술자 라이선스(Tattooist licence)와 문신 기술 업소 운영 라이선스(Operator licence)를 구분하고 있다. 위반 시 문신 기술 업소의 경우 \$11,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계속 위반 시 1일 \$11,000이 추가로 부과한다(문신 시술자의 경우 각 \$5,500 벌금 부과). NSW 문신사법에 의하면 문신 기술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소 운영 라이선스(Operator licence)를 소지하여야 하며, 문신 시술자(Tattooist licence)라이선스만으로는 업소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업소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고, 라이선스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로서 시술을 할 경우 문신 시술자 라이선스(Tattooist licence)는 불필요하다. 문신 시술자(Tattooist) 라이선스가 없이는 문신 시술자로서 고용될 수 없다.

46) <https://www.legislation.nsw.gov.au/#/view/act/2012/32>

47) http://classic.austlii.edu.au/au/legis/nsw/bill_en/tpb2012228/tpb2012228.html

가. 문신사법에 따른 라이선스 개요 (NSW 라이선스 기준)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어야 하며, 호주 형법(범죄조직법)(Crimes (Criminal Organizations Control) Act 2012)상의 구성원(a controlled member of a declared organization)이어서는 안됨. 라이선스 발행 주체는 NSW주의 공정거래국(Department of Fair Trade)이다.

필요 사항은 1. 범죄 경력 증명서(a National Police Check), 2. 세 가지 유형의 승인된 신분증 사본, 3. 견습생 고용을 포함하여 바디 아트 문신 시술자로서의 이전, 현재, 기존 또는 향후 고용에 대한 세부사항, 4. 지불금이다.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지문채취에 동의하여야 하며, 범죄조직 열람,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신청 양식은 www.fairtrading.nsw.gov.au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라이선스 기간은 3년임, 2013년 10월 1일 NSW 전역에서 시행되었으며, 라이선스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벌금 부과(문신 시술자 개인의 경우 \$ 5,500, 행정처분 이후 추가적 영업 시 매일 \$5,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이선스 재발급은 기존 라이선스 만료 60일 이전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발송하며,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2012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465개의 문신사 업소 운영 라이선스(operator licence) 신청 건수가 465건이었으며, 이 중 49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불허하였다. 문신 시술자(Tattoist licence)라이선스의 경우 1,550건의 신청 중 64건에 대해 불허하였다.

2. 업소 관리 및 시술 절차⁴⁸⁾

문신 시술 업소의 관리와 시술 절차는 2012년 공중 보건 규정(Public Health Regulation 2012)을 준수해야 한다. Public Health Regulation 2012의 규제는 문신 시술자, 침 시술자 등 피부 침투가 일어나는 시술을 하는 업종에 대한 업소 관리 및 시술 절차를 위해 제정되었다.

48) <https://www.health.nsw.gov.au/environment/factsheets/Pages/tattooing.aspx>

가. 업소 등록, 건축 및 재료

피부 관통 절차를 수행하는 모든 문신 시술자 및 기타 바디 아트 전문가는 반드시 local council에 등록해야 한다. 업소 건설은 local council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업소 모든 표면의 마감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적절한 조명과 통풍이 잘되어야 한다. 업소에는 다음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 깨끗하고 따뜻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세면대(세면대는 치료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2) 장비 청소를 위해 깨끗하고 따뜻한 물이 공급되는 별도의 싱크대(청소 구역이 제공되어야 하며 더러운 구역은 깨끗한 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액체 비누(또는 알코올 성분의 핸드 클리너), 4) 일회용 타월 또는 자동 핸드 드라이어, 5) 업소에서 수행되는 피부 절차에 적합한 일회용 장갑, 깨끗한 린넨 및 가운 또는 앞치마, 6) 폐기물 처리통

나. 장비

업소의 모든 장비는 작동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사용 후 청소 및 건조해야 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현장에서 멸균하는 경우 AS 2182-1998 멸균기-스팀-벤치 탑을 준수하는 벤치 탑 멸균기를 사용하여 멸균해야 한다. (스틸러 라이저를 사용할 때는 벤치 탑 멸균기 작동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멸균은 AS/NZS 4815:2006 사무실 기반 의료 시설-재사용 가능한 의료 및 수술기구 및 장비의 재처리 및 관련 환경의 유지 보수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벤치 탑 멸균기를 통해 처리하기 전에 장비를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 (예: 문지르기, 기구 세척기 및 / 또는 초음파 세척기 사용) (장비를 소독하고 공중 보건 규정 2012 준수 방법 참조). 벤치 탑 멸균기를 통해 처리하기 전에 모든 기구를 포장하고 포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멸균 상태가 유지되고 사용 시 팩 내용물을 무균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 요구 사항의 예외는 벤치 탑 멸균기를 통해 처리한 직후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벤치 탑 멸균기를 통해 처리하기 전에 모든 기구를 포장하고 포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멸균 상태가 유지되고 사용 시 팩 내용물을 무균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 요구 사항의 예외는 벤치 탑 멸균기를 통해 처리한 직후 품목을 사용하

는 경우이다. 교정 또는 검증을 위해 현장 기술 지원을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장비 패키지 (모든 부하)에 Class 5 또는 6 표시기를 배치하거나 모든 부하에 프로세스 챌린지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세척 및 멸균이 어려운 장비는 한 번만 사용한 다음 버려야 한다 (단일 사용 시에만). 바늘이 피부 침투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AS/NZS 4261:1994를 준수하는 적절한 샤프 용기에 폐기해야 한다. -1992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날카로운 의료용품 수집을 위해 재사용할 수없는 용기. 피부 침투 절차에 사용되지만, 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물품은 청소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시술 중 덮개 또는 보호에 사용되는 타월 또는 기타 유형의 린넨은 각 치료가 시작될 때마다 깨끗해야 한다. 린넨은 세제와 온수로 세척해야 한다.

다. 위생 절차

건물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벤치와 같은 치료 구역은 각 고객과/또는 치료 표면 위에 놓인 깨끗한 덮개 사이에서 청소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액체, 크림, 잉크 및 안료를 일회용 용기에 디캔트하고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마다 일회용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중 담그지 않음). 멸균 포장은 치료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봉해야 한다. 피부에 침투하는 장비의 멸균 부분은 다루지 않아야 한다. 멸균 장비 취급이 필요한 경우 멸균 삽입 튜브, 사전 포장된 멸균 알코올 면봉, 멸균 건조 면봉 또는 멸균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문신할 부위는 피부 소독제로 청소해야 한다.

라. 문신 시술자를 위한 개인위생

피부 침투 시 문신 시술자 및 기타 바디 아트 전문가가 깨끗한 가운 또는 앞치마 및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 참석하기 전과 후에, 시술 전후, 신체 물질에 노출 후, 고객 주변을 만지고, 장갑을 제거한 후) 상처나 상처는 밀봉된 방수 붕대로 덮어야 한다.

마. 다른 요구 사항

다음 사항을 보여주는 살균 기록은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각 물품이 멸균된 시간과 날짜, 물품이 멸균된 시간 및 벤치 탑 멸균기의 온도 및 압력 수준. 국소 마취제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경우, 지역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문신 팔려고 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이의는 없다. 그런 다음이 제품은 해당 고객에게만 적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문신업소(Tattoo parlour)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소 마취 크림 (예: 리그노카인(Lignocaine), 엠라 크림(Emla cream,), 메디젤(Medijel) 및 자일로카인(Xylocaine))을 공급할 수 없다. 스케줄 4 처방 약(예: 주사)는 의료 개업의에 의해서만 공급되고 라벨링 될 수 있으며 의료 개업의 또는 간호사 개업의에 의해서만 투여될 수 있다. 문신 업소 및 문신 아티스트는 Tattoo Parlor Act 2012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문신 및 바디 아트 전문가는 1998년 어린이 및 청소년 (케어 및 보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바. 비준수에 대한 수수료 및 위약금

2012년 공중 보건법 (Public Health Act) 2010 및 공중 보건 규정 (Public Health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칙 위반 통지가 발행될 수 있다. 위약금은 개인의 경우 \$110-\$1100, 회사의 경우 \$220-\$2200이다. 기소에 대한 최대 형벌은 더 높으며 일일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 개선 통지 또는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경우 \$250-\$270 범위의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건물에 대한 재검사는 최소 30분의 비용과 2시간의 최대 비용으로 시간당 \$250의 건물 점유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된다(여행 소요 시간 제외).

제4절 영국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1. 시술자 자격

영국의 경우 문신 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신 면허(“tattoo, piercing and electrolysis licence”)을 보유하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 면허발급이 감염병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은 local council에서 면허를 발급하며, 이 면허는 문신, 반영구화장(semi-permanent skin coloring), 피어싱, 침(acupuncture)을 포괄하는 면허이다.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면허를 발급받은 곳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1982년 지방정부(기타 조항) 법(The Local Government(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2)에서 정한 공중위생 관련 규제를 받는다. 출장 문신사(mobile tattooist)에 대한 면허도 발급하고 있어, 스튜디오가 아닌 고객의 집에서 문신을 시술할 수도 있다.

면허의 발급은 런던의 경우 영업장소(licence)에 대한 면허만 있고, 시술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면허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영업장소에 대한 면허에는 시술자의 이름을 명기하거나 면허발급 시에 교육 훈련 요구사항(training requirements)을 구체화할 수 있다⁴⁹⁾.

문신사 등록 절차는 먼저 환경보건국의 심사관이 1차 방문을 하여 시설 장비 등을 체크하고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력 등을 검토한다. 등록된 문신사는 가정 등에 방문하여서 하는 문신도 가능하지만, 방문 문신이 주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문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 치과의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1년마다 단속반의 사찰(inspection)을 받는다.

영국에는 문신 시술자의 공인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없이 현실은 사설 민간업체에 의해서 운영하는 공인을 받지 못한 곳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는 교육 훈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질, 기간, 내용이 상이한 방법으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이다.

49)

<https://www.cieh.org/media/2004/tattooing-and-body-piercing-guidance-toolkit-july-2013.pdf>

2. 업소 관리 및 기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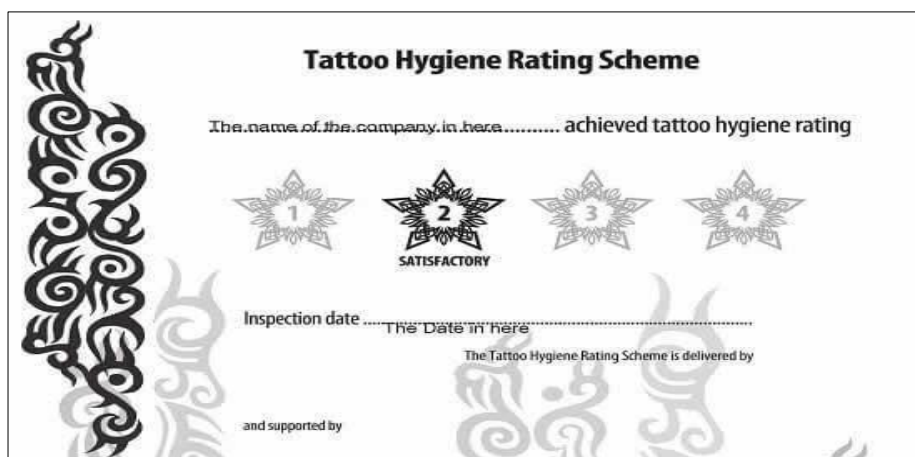
문신 업소 관리 및 기술 절차에 해당하는 법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1974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에 의하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위생 장비, 문신머신 등은 안전하고 기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법(Tattooing of Minors Act(1969))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시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 영국에는 The Tattoo Hygiene Rating Scheme(THRS)이라는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있다. 이는 문신 및 피어싱 산업 연합(The Tattoo and Piercing Industry Union, TPIU)와 영국 환경건강연구소(Chartered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CIEH)에서 지원하며 지방 당국에서 제공한다.

THRS의 목표는 가장 최근 검사 당시 문신 스튜디오에서 위생 기준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문신 표준 선택에 위생 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 업계 전반에 걸쳐 표준 및 모범 사례 채택을 추진, 문신 사건으로 인한 감염 사고 및 감염병 전파 위험을 줄임이다.

참여한 스튜디오는 프로그램된 검사에 따라 1(필요 개선)부터 4(매우 좋음)까지 인증서 형태로 업소 및 스티커 형태로 창(window)에 표시되는 등급을 받는다.

[그림 5-2] THRS 인증서



〈표 5-5〉 THRS 등급 기준

등급 1

등급 2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건물은 등급 1로 평가된다.

등급 2

등급 2의 등급을 달성하려면 업소에서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건물 및 설비 청결

건물 내에서 건물 및 부속품의 청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i) 내부 벽, 문, 창문, 칸막이, 바닥, 바닥 덮개 또는 천장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청소될 수 있도록 잘 보수된다.
- (ii) 모든 폐기물, 또는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쓰레기는 페달로 작동되는 뚜껑이 있는 적절한 폐기물 용기에 사용한 직후에 버려야 하며 현지 당국의 조언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처리 및 폐기해야 한다.
- (iii) 치료에 사용되는 바늘, 면도기 또는 기타 날카로운 물건은 지방 당국의 조언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고객 및 일반인의 손이 닿지 않는 샤프스(sharps) 용기에 폐기해야 한다.
- (iv) 업소의 가구, 피팅 또는 폐기물 용기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수리될 수 있도록 잘 보수되어야 한다.
- (v) 혈액 또는 다른 체액으로 오염될 수 있는 치료 부위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는 모든 테이블, 소파 또는 좌석, 그리고 치료 직전에 바늘, 기구 또는 장비가 놓여있는 표면은 매끄러운 불 침투성 표면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때, 청소하고 소독한다.
 - (a) 사용 직후; 과
 - (b) 각 업무 일의 끝.
- (vi) 고객의 피부가 접촉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테이블, 소파 또는 기타 가구 품목은 모든 고객에 대해 변경되는 일회용 종이 시트 또는 플라스틱 필름 랩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여 있다.
- (vii) 치료 구역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식사 나 술을 마시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 있다; 단, 문신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식수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다.
- (viii) 시각 및 / 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동물을 제외하고는 동물이 업소에서 금지되어 있다.

시술 영역

1. 소유주는 임상 시술 영역이 건물 내 비 임상 영역과 물리적으로 구별되고 시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영역에서만 시술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2. 소유주는 처리 구역의 바닥에 물에 불침투한 매끄러운 표면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기구, 재료 및 장비의 살균 및 적절한 세정

- 1) 정화를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적절한 경우, 시술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구, 재료 및 장비의 멸균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i) 가운, 랩 또는 기타 보호복, 종이 또는 기타 덮개 또는 기타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
 - (a) 깨끗하고 보수가 잘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무균 상태이다.
 - (b) 적절하게 소독 할 수 있고 적절하게 멸균된 물질로 구성되지 않는 한 다른 고객과 관련하여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다.
 - (ii) 치료에 사용되는 바늘 또는 기타 날카로운 물건은 일회용이다.
 - (iii) 일회용 바늘, 금속 기구 또는 그러한 바늘, 기구 또는 장비를 취급하거나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임의의 기구 또는 장비 및 클라이언트와 접촉하는 위생적인 피어싱기구의 일부는 멸균되어야 하며;
 - (iv) 바셀린 또는 윤활 젤을 고객의 피부에 바르는 경우 깨끗한 주걱을 사용하여 스톱 용기에서 꺼내고 각 시술이 끝날 때 폐기 용기에 넣거나 재사용하기 전 세척 및 살균해야 한다.

- (v) 문신 기계와 클립 코드는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으며 고객 사이에서 새로 사용하고 적절히 폐기된다.
 - (vi) 문신 기계에 사용되는 탄성 밴드 또는 니들 러너는 고객 간에 변경되어 적절히 폐기된다.
 - (vii) 문신 스텐실 및 마커 펜은 일회용이며 사용 후 적절히 폐기된다.
 - (viii) 문신 또는 반영구적인 피부색을 위해 일회용 용기에 분배되거나 일회용 바이알에 미리 포장된 안료 / 잉크만 사용됩니다.
 - (ix) 문신 또는 반영구적 피부 채색용 안료 / 잉크를 담는 데 사용되는 용기는 한 고객에게만 사용되며 각 치료가 끝날 때 사용하지 않은 안료 / 잉크와 함께 폐기된다.
 - (x) 문신을 덮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 랩은 깨끗하고 팩에서 바로 사용되며 적절한 경우 저자극성 테이프로 고정된다.
- 2) 청결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적절한 소유주는 기술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구, 재료 및 장비의 멸균을 제공해야 한다.
- (i) 다음을 위한 적절한 시설 및 장비
 - (a) 기술자 개인위생에 필요한 세면대와 별도로 업소에서 냉온수를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범용 싱크대를 포함한 세정 및 소독. 이 범용 싱크는 가능하면 치료 구역 바깥에 위치해야 한다.
 - (b) 사전 멸균된 품목만 사용하지 않는 한 멸균. 모든 멸균 장비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업체 지정 간격으로 유지 관리하고 기술자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테스트해야 한다. 유지 보수, 서비스, 테스트 및 운영주기에 대한 기록은 장비를 폐기하거나 폐기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업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 (ii) 충분하고 안전한 가스 포인트 및 전기 콘센트
 - (iii) 물품, 바늘, 기구 및 장비의 오염을 피하는 깨끗하고 적절한 보관.

기록 보관

1. 감염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사업주는 업소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고객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i. 클라이언트의 이름
 - ii. 클라이언트의 주소
 - iii. 클라이언트의 생년월일
 - iv. 치료의 특성 (상당, 문신 초기 약속, 후속 약속 등)
 - v. 관련 병력, 건강 관련 질문 및 평가
 - vi.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당국에 어떤 기록을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운영자의 이름.
2. 소유주는 문신 또는 문신 기술을 하는 모든 고객이 기술에 동의하는 양식에 서명하고 동의해야 하며, 이 양식은 해당 소유자가 보유하고 요청 시 현지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기술자의 청결 및 개인 위생

- i. 운영자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자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i) 적절한 위생 손 오염 제거 기술을 교육 받고 각 고객에 대해 기술을 수행하기 직전에 손을 씻는다.
 - (ii)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 (iii) 손과 손톱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손톱은 짧고 손톱 광택제, 손톱 장식 또는 다른 형태의 손톱 덮개가 없어야 한다.
 - (iv) 문신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손목 시계, 보석 반지 또는 기타 손목 보석류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 (v) 불 침투성 드레싱으로 효과적으로 신체의 노출 된 부분에 열린 병변을 유지한다.
 - (vi) EC (유럽 공동체) 표준을 준수하고 젓어짐이 없고 다른 고객과 함께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의 잘 맞으며 분말이 없는 외과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vii) 석유 계 윤활제와 관련된 문신 절차를 위해 천연 고무 라텍스 (NRL)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 (viii) 깨끗하고 빨 수 있으며, 멸균된 가운, 랩 또는 보호 복을 착용하고, 사용 후 적절하게 폐기된 일회용 플라스틱 앞치마를 착용한다.
 - (ix) 치료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 ii. 사업자의 청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i) 벽면에 설치된 디스펜서에 저장된 깨끗하고 따뜻한 냉수, 액체 비누 및 종이 타월을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자의 단독 사용을 위해 적절하게 위치한 비 수도 탭이 있는 적합한 충분한 세면대. 이러한 세면대에는 손 씻기 지침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ii) 눈에 띄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술자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위생 설비
 - iii. 항상 높은 수준의 개인 위생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것은 모든 요원의 의무이다.

등급 3

등급 3의 등급을 달성하려면 업소 등급 2의 모든 요구 사항과 다음 추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등급 2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고객 기록이 추가되어야 한다.
 - (iv) 고객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또는 신분증
 - (v) 고객의 문신에 사용된 모든 잉크의 브랜드 및 배치 번호 기록.
2. 소유주는 문신 또는 문신 치료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고객이 보유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사후 관리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등급 4

등급 4의 등급을 달성하려면 업소 등급 3의 모든 요구 사항과 추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체 소유주와 업소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신 예술가는 운영 수준에 적합한 회원 자격 수준의 조합 또는 전문 기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러한 기관은 안전 증진 및 위생적인 문신 기술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또는

Tower Hamlets Council에서 조직한 관련 교육에 참여 / 참석하려면 사업체에 가입해야 한다.

2. 직원들이 B형 간염에 대해 예방 접종을 받도록 장려한다.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i. 직원들에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제공 받았으며 거절한 경우
 - ii. 직원이 B형 간염 예방 접종에 대한 직원 문서 사본을 백신 접종 한 경우, 백신 접종 후 혈액 검사를 수행하여 B 형 간염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 보호의 항체 사본을 확인하는 경우 혈액 검사를 실시한다.
3. (i) 사업장 소유주는 모든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CPD 또는 이와 유사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모든 직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수준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접근 가능할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ii) 직원 교육 기록 (또는 사본)은 업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지역 당국에 제공된다.

자료: https://www.towerhamlets.gov.uk/Documents/Environmental-protection/Rating_Criteria.pdf

제5절 프랑스 문신 시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1. 시술자 자격⁵⁰⁾

프랑스에서 문신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술자는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건청(Agence Régionale de Santé, ARS)에 신고(Déclaration d'activité)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위생교육 수료증(l'attestation de formation)을 함께 제출 한다. 위생교육 수료증은 3일 연속 최소 21시간의 위생 및 건강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지방보건청(ARS)에서 발급받는다. 교육기관은 지방보건청(ARS)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위생교육과 별도로 문신 시술과 관련된 이론 및 기술을 인증해주는 공인된 교육기관은 별도로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거나 인턴 생활을 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신 업소를 열고 나서는 시술자의 기술에 대한 평판이 향후 직업인으로 살아가는데 밀거름이 된다.

문신 시술을 수행하는 시술자의 신고와 관련한 규정은 공중위생법 1311-2 항(Art. R1311-2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과 2008년 12월 23일 시행규칙(Arrêté du 23 décembre 2008)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술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R1311-3항(Art. R13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과 2008년 12월 12일 시행규칙(Arrêté du 12 décembre 2008)에서 정하고 있다.

2. 업소 관리 및 시술 절차

업소의 위생 요건(Règles d'hygiène et de salubrité)과 관련하여서는 공중위생법 R1311-4항(Art. R1311-4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⁵¹⁾)에서 다음의 두 가지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객의 피부나 점막에 닿는 장비와 직접 지지대는 매번 사용하기 전에 일회용 및 멸균 처리해야 한다. 둘째, 업소에는 문신 전용 객실(La salle "technique")이 있어야 한다. 별첨(Arrêté du 11 mars 2009⁵²⁾)에서는 문신전용 객

50) <https://syndicat-national-des-artistes-tatoueurs.assoconnect.com/page/86339-reglementation>
5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idArticle=LEGIARTI000018150760&cidTexte=LEGITEXT000006072665&dateTexte=vig>

실에서는 시설기준과 관련한 세부 규정(바닥의 표면이 매끈매끈해야 하고, 세면대를 객실 내에 갖추어야 한다)과 문신전용객실과 별도로 소독과 기구 멸균을 위한 장소, 폐기물 폐기를 위한 장소를 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염료(Produits de tatouage)에 관한 규정은 2004년 공중 보건에 관한 법률(LOI n° 2004-806 du 9 août 2004 relative à la politique de santé publique)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프로세스 및 문신 시술자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신, 피어싱 및 영구 화장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서의 지사에 자신의 활동을 알려야 한다. 활동이 중단된 경우 동일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문신 시술자는 문신한 후 노출 될 위험과 예방 조치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스튜디오에 전시된 정보 및 고객에게 서면으로 전달된 정보)

5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414235&dateText=vig>

제6절 태국 문신 기술 규제 현황 및 관리 기관

1. 기술자 자격

태국 공중 보건부는 피부 문신 및 신체 피어싱 규정 BE 2562 (2019)(Skin Tattooing and Body Piercing BE 2562 (2019))를 발표하였다.⁵³⁾ 규정에 따르면 문신 및 피어싱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건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호흡기 또는 반발성 피부질환이 없다. 매년 신체 검진을 통과했으며 B형 간염, C형 간염 및 C형 결핵과 같은 모니터링된 의사소통 질환이 없음을 보여주는 의사 증명서를 소지한다. 피부 문신 및 바디 피어싱 절차를 위한 항 감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의식이나 종교와 관련된 피부 문신 및 바디 피어싱 절차를 다루지 않는다.

2. 업소 관리 및 기술 절차

태국 보건부는 문신 스튜디오 소유자의 사진과 스튜디오 이름을 포함하는 인증서를 발행한다. 문신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⁵⁴⁾ 모든 문신 업소는 깨끗하고 살균해야 하며 모든 장비는 일회용으로 폐기해야 한다. 모든 장비는 정돈되고 멸균되어야 한다. 모든 문신 업소는 항상 멸균액(sterile liquids)을 사용하여 문신 스튜디오를 청소해야 한다. 모든 문신 바늘, 잉크, 면 패드 및 장갑은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재사용해서는 안 됨). 이러한 모든 물품은 특별히 감염성 및 날카로운 물품을 위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며 폐기 시 보건 당국에 보내야 한다. 모든 문신 운영자는 문신하기 전에 잠재 고객에게 개인 건강 문제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당뇨병이나 혈우병으로 고통받는 고객은 서비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모든 문신 운영자는 문신을 받은 후 고객에게 조언하여 감염을 피하기 위한 문신의 애프터 케어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다나 수영장에 가면 안 된다.

53)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30380084>

54) <https://thethaiger.com/thai-life/top-10/top-10-tips-for-tattoos-in-thailand>

제 6 장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방안

제1절 제안 배경

제2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관련 선행 입법안 분석

제3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를 위한 입법 방안 마련

6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 방안 <

제1절 제안 배경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표본인구 1,000명 중 15.3%는 문신(tattoo), 30.7%는 반영구화장을 경험하였으며, 59.2%는 둘 모두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시술을 경험한 인구의 비중이 높다.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자 중 20.6%, 반영구화장 시술 경험자 중 10.2%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부작용의 비중이 높았다. 부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부염증, 통증, 알레르기 반응, 색소 변색 등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문신 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 중 병·의원을 방문한 비중은 70.6%, 반영구화장은 54.3%였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시술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 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신 시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이 상당히 대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공중보건위생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신 시술 및 반영구화장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시술을 허용하되 시술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외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자의 자격, 업소 관리, 기타 시술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는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1992년)에서 문신 시술 및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의료법의 위반으로 단속 및 사법처리 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해외의 일반적인 사례와 대조적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Safe Body Art Act⁵⁵⁾에서 문신뿐 아니라 피어싱, 브랜딩, 반영구화장(permanent cosmetics)을 시술하는 시술자와 업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뉴욕주의 경우 Public Health Article 4-A - Regulation of Body Piercing and Tattooing⁵⁶⁾에서 시술자의 자격과 업소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주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는데 뉴사우스 웨일즈(NSW)의 경우, 2012년 문신사법(Tattoo Parlours Act 2012)을 제정하였

55) <https://cchealth.org/eh/body-art/pdf/Safe-Body-Art-Act-Revised-0101-2014.pdf>

56) https://www.health.ny.gov/community/body_art/article_4a.htm

고⁵⁷⁾, 퀸즈랜드(QLD) 주의 경우 2013년 QLD법령명(Tattoo industry act QLD 2013)을 제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문신 기술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신고와 관련한 규정은 공중위생법 1311-2항(Art. R1311-2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과 2008년 12월 23일 시행규칙(Arrêté du 23 décembre 2008)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술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R1311-3항(Art. R13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과 2008년 12월 12일 시행규칙(Arrêté du 12 décembre 2008)에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기술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기술 행위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설문한 결과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사람과 미경험자 모두에서 다수가 비의료인에 의한 기술 행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문신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5%였으며,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4.2%, 의견 없음이 7.5%였다.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기술 행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4%였으며,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4.0%였음. 의견 없음은 6.6%였다. 문신 및 반영구화장 모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기술 행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52.8%, 문신은 미용 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이므로 현행처럼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처벌하여야 한다 32.2%, 의견없음 15.1%였다.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기술 행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8.7%,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처벌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6.8%, 의견 없음은 14.5%였다.

<표 6-1>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방안

구분	내용
기술자 자격관리 방안	자격 발급주체, 자격갱신 주기, 시험 영역
기술 업소 관리 방안	개설허가제(또는 신고제), 시설기준, 시설 갱신 주기 등
기술 염료 및 기기 안전 관리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안전성 모니터링
기술 용구 소독 등 위생관리 방안	기술 절차, 멸균방법, 보호장비착용, 혈액매개 질병예방, 폐기물처리 등

57) <https://www.legislation.nsw.gov.au/#/view/act/2012/32>

1. 기술자 자격

공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신 관련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2.7%로 높았고, 반영구화장 자격증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는 94.4%의 비율로 나타나 자격증에 대한 필요의견이 높았다.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증 (61.2%)를 ‘민간’ 자격증(37.6%) 보다 선호하였다.

또한, 반영구화장 관련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9%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1%였다.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국가’ 자격증 (81.5%)를 ‘민간’ 자격증(18.5%) 보다 선호하였다.

해외 사례와 기술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격증은 국가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발급을 신청한 자만 발급하도록 한다.

가. 자격 발급 주체

문신 기술 또는 반영구화장 기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 발급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단,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면허를 구분하여 각 면허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정하고 발급할 수 있다.

<표 6-2> 문신 및 반영구화장 업무범위

면허 종류	업무 범위
문신 면허	문신용 염료를 피부 진피층까지 깊게 침투시켜 영구적인 자국을 남게 하는 기술을 하는 영업
반영구화장 면허	문신용 염료를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입하여 6개월~3년 정도 자국이 지속되도록 주로 눈썹, 눈초리, 입술 등에 시술하는 영업

참고로, 미용사의 자격 및 면허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용사의 경우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과 관련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미용사(일반 및 피부) 자격은 그 취득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미용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 1의 2).

나. 자격 갱신 주기

최초 발급 시에는 18세 이상임을 나타내는 정부발급 신분증, 여권 유형 사진, 문신 및 반영구화장 기술 자격증, B형 간염 예방접종 증빙 자료나 간염 항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혈액 매개 병원체 감염관리 교육 수료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신 및 반영구화장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주기적으로(예:2년 주기) 갱신하도록 한다. 갱신 시에는 B형 간염 예방접종 증빙 자료나 간염 항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혈액 매개 병원체 감염관리 교육 수료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영역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 교육기관(아카데미)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문신 및 반영구화장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은 문신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 등으로 구성된 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6-3> 미용사 시험과목

구분	검정 방법	시험과목
문신	필기시험	문신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
	실기시험	문신 실무
반영구화장	필기시험	반영구화장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
	실기시험	반영구화장 실무

2. 업소 관리

가. 개설 자격

설문조사 결과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문신 전문샵(60.7%)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원룸/오피스텔(15.7%), 미용 시설(13.5%), 출장(5.6%), 기타(3.9%) 등의 순이었다. 이 중 62.9%가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교육(학원)(22.7%), 도안 제작(19.7%), 마사지(12.1%), 네일(12.1%), 피부관리(6.1%), 화장품도소매(6.1%), 도소매(4.5%) 등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주요 장소로는 ‘미용 시설’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반영구화장 전문샵’(26.6%), ‘출장’(11.9%), ‘원룸 또는 오피스텔’(8.8%), 기타(7%) 등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43.9%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의 경우 피부(34.9%), 메이크업(20.7%), 화장품도소매(16.5%), 네일(11.4%), 토탈뷰티샵(5.7%), 헤어(5.4%), 교육 서비스(1.75) 등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해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업소 관리를 보면, 허가 받지 않은 장소 이외의 곳에서 시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 Safe Body Art Act 규정의 경우 health permit). 동 규정에 따르면 허가증을 매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하거나 시설기준에 어긋난 것이 발견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국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소 등록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자택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문신을 시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실사를 거쳐 업소 개설 허가증을 발급하되, 실사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나. 시설 기준

문신 시술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세척 및 소독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6.7%, 세면대가 시술 공간 안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6.4%, 대기실과 시술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9.9% 등으로 나타나 선진국에서의 시설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술장소에서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업소 개설 체크리스트 (안)

조사 목록	체크
문신업소는 피술자 대기실, 시술 공간, 세척 및 소독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세면대는 시술 공간 내 혹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세면대에는 손 소독기와 액체 비누 디스펜서, 일회용 종이 타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페달로 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한다.	
세척 및 소독실은 물리적 세척이 가능한 수도 시설과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를 갖추어야 한다.	
세척 전 도구와 세척 후 도구가 섞이지 않고 분리될 수 있도록 오염 공간과 멸균 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	
벌레, 곤충 및 설치류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하며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하고는 문신업소에 동물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혈액 및 체액이 묻은 바늘 등의 예리한(sharps) 문신 도구를 포함한 일련의 문신 폐기물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적정 관리업체를 통해 처리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다. 염료 관리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염료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문신용 염료는 관세법상 ‘수입통관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선수입 후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입 시 유해성 검사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용 염료(Tattoo inks)에 대한 규제는 2019년도까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 및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31호)」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의 ‘염료·염색류(Dye product group)’ 제품군 중 ‘문신용 염료’로 분류되어 관리 되어 왔다. 2019년 까지는 유해 물질에 대한 함유 금지 또는 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영업자가 자가 검사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해물질 기준은 중금속 12가지포함 15종류와 사용제한물질 6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해물질 기준 15종은 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사용제한물질 64종은 유

해물질검사 전 자진신고형식의 ‘사용제한물질 불포함 확인서’를 제출한다.

현재 환경부 등록업체수는 약 40여곳이나 기술력 및 규모를 갖추 업체는 일부로, 이들 업체를 제외한 곳은 주로 대용량 완제품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하는 소분업 위주 업체로 추정된다.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부터 비식품위험제품긴급경고체계(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Non-Food Products, RAPEX)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문신/반영구화장 염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검사 등 실시, 유럽연합 31개국간 공유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에 의하면 염료생산업체/수입업체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⁵⁸⁾. 위해성 평가(Risk evaluation) 자료, 유해성분 제외(chemical requirements), 유럽연합의 경우 35개 제품 등에 대해 Negative list 방식으로 사용을 규제한다.

[그림 6-1] 유럽연합 유해성분 규제

Table 4.1: Chemical requirements in the national legislations in place.

Country	National legislation based on the CoE ResAP	Negative list for PAAs	Negative list for colorants	Impurity limits	Preservatives	Negative list for substances EC Reg 1223/2009 Annex II	Negative list for colorants EC Reg 1223/2009 Annex IV (column g)	Negative list for CMRs EC Reg 1272/2008 Table 3.1	Dir 95/45/EC
BE	(2003)2	26	35	no	banned	yes	yes	yes	yes
DE	(2003)2	27 (26 + paraphenylene diamine)	36 (35+ solvent yellow 14)	no	no special provisions	yes	yes	no, however Annex II of EC Reg 1223/2009 contains the substances classified as CMRs before 2010	no
FR	(2003)2	27 (26 + paraphenylene	35	no	no special provisions	yes	yes	yes, plus sensitizers cat. 1	no
NL	(2003)2	22	36	no	banned	yes	yes	yes	
NO	(2003)2	26	35	no	positive list with several restrictions*	yes	yes	yes	
CH, LI	(2008)1	27 (CH - with specific limit for the sum, 30 mg/kg)	35	yes (except for nickel and antimony)	positive list of 26 allowed for prolonged contact with the skin (leave-on cosmetics)	yes, referring to the corresponding national legislation	yes, referring to the corresponding national legislation	yes, referring to the corresponding national legislation	no
ES, SE, SI	(2008)1	27	35	yes (15 impurities)	tolerated under certain conditions**	yes	yes	yes	yes (SE)

*e.g. max concentrations and labelling
 ** e.g. only after risk assessment and in the lowest effective concentration

포장 표시사항(Labelling requirement)은 제조자의 이름/주소, 유효기간, 사용상

5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의 내용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No 1907/2006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OJ L 396, 30.12., 2006: p. 1-849.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6R1907>.

의 경고 사항, 배치번호, 성분명 등이다. 포장 표시사항(Hygienic and packaging requirements)은 위생, 일회용품의 경우 일회용품 포장 사이즈 준수이다. 문신 기술의 위험성 등을 포함하는 정보가 있다.

라. 보호장비 착용, 문신 기술 용구 소독, 기술 절차

1) 보호장비 착용

모든 문신 기술에서는 일회용 장갑을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피술자의 혈액 및 체액에 직접 노출될 우려는 있으나 그것이 될 위험성이 낮은 경우 장갑과 함께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혈액 및 체액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시술자의 눈과 안면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착용하여야 한다.

2) 멸균 방법

재사용이 가능한 내열성 문신용 기기 멸균은 전처리-세척-포장-살균-포장의 5단계로 나누어져 시행한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구를 사용 직후 기구 수돗물로 행군 이후에 기구 전체가 살균세척액에 잠기도록 담가 놓는다. 세척 단계에서는 화학적(세제)·기계적(솔질) 세척을 모두 수행해야 하며 세제 자체의 용법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시간을 따라야 한다. 세척 후에는 충분한 물로 행구고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일회용 부직포나 직물로 닦아서 꼼꼼하게 건조해야 한다. 포장은 멸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멸균은 고압증기멸균기를 이용한다. 멸균은 134도에서 18분 동안 한 주기가 돌아간 후에 건조되어야 한다.

멸균 과정이 끝나면 포장된 기기는 라벨을 붙이고,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함. 내열성이 없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나 일회용이나 내열성 대체품이 없다면 내열성이 없는 기구를 사용하되 이에 적합한 높은 수준의 살균 과정을 수행해야 하고 멸균 과정이 끝나면 멸균된 물로 행구어 일회용 타월로 닦아 건조한 후 즉시 사용하거나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혈액 및 체액이 묻은 바늘 등의 예리한(sharps) 문신 도구를 포함한 일련의 문신 폐기물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적정 관리업체를 통해 처리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4) 시술 설명 의무, 동의서, 피술자 최소연령

시술 전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절차에 대한 설명과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시술자는 피술자에게 서명이 들어간 시술 동의서를 받는다. 피술자 최소연령은 18세 이상의 경우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문신을 시술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경우 문신 시술을 하는 동안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제2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관련 선행 입법안 분석

1. 개요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문신업 및 문신사 면허 신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었다.

<표 6-5> 문신업 및 문신사 면허 신설 관련 법률안

임기	대표발의자	법안명	제안 일자	비고
제17대	김춘진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7.31.	임기 만료폐기
제18대	김춘진 의원	문신사법안	2010.02.25.	임기 만료폐기
제19대	김춘진 의원	문신사법안	2013.12.06.	임기 만료폐기
제20대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	2019.10.21.	임기 만료폐기

당시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이 문신 기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실태 파악 및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없이 제도화하는 경우 현행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입장이었고,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⁵⁹⁾

또한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었다.

<표 6-6> 오제세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임기	대표발의자	법안명	제안일자	비고
제20대	오제세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2019.11.8.	임기만료폐기

5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신사법 검토보고, 2015. 2, 12쪽.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를 위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하에서 이들 법안의 취지, 내용 등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제18대 국회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제19대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및 제20대 박주민 의원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하에서는 제20대 국회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만 분석하였다.

2.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안)의 주요 내용

가. 제안 이유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문신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⁶⁰⁾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60)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 준 행위는 그 시술 방법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그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그 시술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지 않았고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을 간과함”(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나. 주요 내용

1) 목적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정의

“문신행위”는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정의함.

“문신사”는 이 법안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함.

“문신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정의함.

“문신업자”는 이 법안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이상 안 제2조).

3) 문신사의 자격·면허

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

4)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5) 업무범위와 한계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설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6) 문신업소 개설신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8조).

7) 위생 및 안전 관리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신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8) 행정제재처분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9) 문신사협회 설립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다. 시사점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은 문신사 및 문신 영업만을 독립 법률로 제정하려는 법률안으로 문신사 면허 및 문신 영업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문신 기술 행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문신 기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됨에 따라 음성화되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신 합법화를 지지하는 문신업계에서는 ‘정부에서 공적 지원을 통해 문신사가 위생 안전 및 관련 의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음. 즉, 문신 기술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세워야 보건 안전이 확보됨과 동시에 문신사도 양지에서 세금을 내며 당당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다.⁶¹⁾

‘문신사법안’은 문신 영업과 공중위생관리영업과의 관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문신사 면허 및 문신营业을 공중위생관리법 체계 내에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신사법안’은 문신을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반영구화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반영구화장업이 문신 영업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신사법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업무범위와 한계, 문신업소 개설 신고, 위생

61) 시사주관, 문신 합법화 27년째 제자리, 2019. 2. 1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917458&memberNo=16745602>>

및 안전 관리, 행정제재처분, 문신사협회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신사 면허 및 문신 영업 관리에 관한 기본적 규정 체계는 공중위생영업자 면허 및 공중위생영업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체계와 유사하고 문신영업이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므로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체계 내에서 함께 규율할 여지가 존재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오제세의원안)의 주요 내용

가. 제안 이유

최근 미용 목적으로 침술과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미용의 한 분야로 보편화되었다.

2019년 현재 국내에서는 약 1,300만 명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류 문화 확산으로 K-Beauty 산업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면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 약 20만 명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20~40대 여성으로 반영구화장 산업이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면허 없이 침술·마취제를 이용해 문신·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및 사법 처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기를 요구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반영구화장 산업이 음성화되어 있어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술을 받는 국민들이 시술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반영구화장을 실질적으로 시술하는 행위자 중 의료인이 거의 없음에도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27년 전의 판례로 의거하여 오늘날까지 반영구화장은 대부분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바, 반영구화장 시술자를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현상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⁶²⁾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미용 행위로 간주

하고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침술과 마취술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여 기술을 받는 국민의 보건과 위생을 보호하고 미용 산업의 진흥을 돕고 있다.

이에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영구화장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 내용

1) 반영구화장의 정의 추가

“반영구화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미용업의 정의 조항에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1항 제5호).

2) 반영구화장에 의료기구·의약품 사용 허용

반영구화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 제4항 제1호 단서 신설), 면도기나 반영구화장에 사용하는 바늘은 1회용품만을 손님 1명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제4항 제4호 신설).

3) 의료법 적용 배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

62) MEDI:GATENEWS, 반영구화장 합법화 추진...‘문신사법’이어 ‘반영구미용사법안’ 발의될까, 2020/ 1/ 7. <<https://medigatenews.com/news/1348913177>>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안 제8조 제3항 신설).

다. 시사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은 ‘반영구화장’만을 대상으로 하여 미용업자의 영업 범위 내에 반영구화장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반영구화장 시에는 특정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법」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면허가 없더라도 반영구화장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안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미용업자의 영업 범위 내에 반영구화장업을 포함함에 따라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반영구화장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제한을 가져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문신 시술 행위 및 문신영업은 규율 대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데,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 제정 이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영구화장 행위뿐 아니라 문신 행위의 경우도 규제 공백으로 인하여 국민 보건·건강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바 반영구화장행위에 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문신 행위에 관한 입법 미비 역시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를 위한 입법 방안 마련

1.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방안의 개요

가. 제1안(독립 입법 제정 방안)

제1안은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를 위한 독립법률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제1안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 안)을 기본적 토대로 하되 반영구화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다. 이 경우 반영구화장행위를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가칭) 반영구화장사 면허제를 신설하여 미용사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반영구화장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제2안(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방안)

제2안은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고유한 조항(예컨대, 의료법 적용 제외)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2.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 방안의 장단점 분석

가. 독립 입법 제정 방안의 장단점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독립법률을 마련하면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함에 따라 법률 조문이 많지 아니하고 조문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수범자인 국민과 영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며, 공무원의 집행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

다. 다만, 넓게 보면 문신 및 반영구화장 영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영업에 관해서만 개별법률을 두는 경우 다른 영업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추후 입법 관리에도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입법경제에 반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문신과 반영구화장도 서로 구별되는 영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문신에 관한 법률, 반영구화장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의 장단점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하여 규율할 경우 유사营业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다른 공중위생영업에도 공통하는 조문을 새로 두는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인 입법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입법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다만, 여타 공중위생영업과 같은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에 고유한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문신 및 반영구화장이 공중위생영업이라는 이유로 교육이나 준수 의무,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도 발생할 수 있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신 및 반영구화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독립 입법 제정 방안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방안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에는 수범자인 국민과 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 용이성, 법 준수의 가능성, 공무원의 집행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 입법의 가능성, 입법 관리의 수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중위생영업과는 다른 문신 및 반영구화장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 문신 및 반영구화장영업에 고유한 독립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신 및 반영구화장영업을 널리 공중위생영업으로 보아 기존의 공중위생영업과 함께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중위생영업을 각각 규율하던 것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율해 왔던 입법 연혁에 대한 고려나 집행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 입법의 가능성, 입법 관리의 수월성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공중위생영업 각각의 법률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계획이 있지 아니하는 한) 문신 및 반영구화장영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

- Antoszewski, B., et al., Are body piercing and tattooing safe fashions? Eur J Dermatol, 2006. 16(5): p. 572-5.
- Brady, B.G., et al., Self-reported adverse tattoo reactions: a New York City Central Park study. Contact Dermatitis, 2015. 73(2): p. 91-9.
- Brady, B.G., et al., Self-reported adverse tattoo reactions: a New York City Central Park study. Contact Dermatitis, 2015. 73(2): p. 91-9.
- Desai, N.A. and M.L. Smith, Body art in adolescents: paint, piercings, and perils. Adolesc Med State Art Rev, 2011. 22(1): p. 97-118.
- Dissapear Ink Tattoo Remobal Clinic.
- Engel E, Vasold R, Santarelli F, Maisch T, Gopee NV, Howard PC, Landthaler M, Bauml W: Tattooing of skin results in transportation and light-induced decomposition of tattoo pigments - a first quantification in vivo using a mouse model. Exp Dermatol 2010; 19: 54-60.
- Health-Canada, Market survey of tattoo dyes: microbial testing, 2011: Activity Report June 20.
- Hogsberg, T., K.H. Carlsen, and J. Serup, High prevalence of minor symptoms in tattoos among a young population tattooed with carbon black and organic pigments.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13. 27: p. 846-852.
- http://classic.austlii.edu.au/au/legis/nsw/bill_en/tpb2012228/tpb2012228.html
- <https://blxtraining.com/california-tattoo-license/>
- <https://cchealth.org/eh/body-art/pdf/Safe-Body-Art-Act-Revised-0101-2014.pdf>
- <https://cchealth.org/eh/body-art/pdf/Safe-Body-Art-Act-Revised-0101-2014.pdf>
- <https://disappearink.com.au/tattoo-statistics-australia/>
- <https://syndicat-national-des-artistes-tatoueurs.assoconnect.com/page/86339-reglementation226>
- <https://tattooschool.com/americas-booming-tattoo-economy-1-5-billion-industry/>
- <https://thethaiger.com/thai-life/top-10/top-10-tips-for-tattoos-in-thailand>

<https://www.cieh.org/media/2004/tattooing-and-body-piercing-guidance-toolkit-july-2013.pdf>

<https://www.health.nsw.gov.au/environment/factsheets/Pages/tattooing.aspx>

https://www.health.ny.gov/community/body_art/article_4a.htm

https://www.health.ny.gov/community/body_art/article_4a.htm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2665&dateTexte=vig>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414235&dateText=vig>

<https://www.legislation.nsw.gov.au/#/view/act/2012/32>

<https://www.legislation.nsw.gov.au/#/view/act/2012/32>

<https://www.mirror.co.uk/news/uk-news/tattoo-capital-britain-one-inking-6117530>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30380084>

<https://www.ncsl.org/research/health/tattooing-and-body-piercing.aspx>

<https://www.sectorsdonut.co.uk/sectors/consumer-services/tattoo-studio/market-research>

<https://www.tatouage-partage.com/fr/tatouage/explosion-nombre-salons-tatouage-france-limoges>

<https://www.tattoos.fr/tatouage/actus-tatouage/chiffres-tatouage-france>

Jafari, S., et al., Tattooing and risk of hepatitis B: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an J Public Health*, 2012. 103(3): p. 207-12.

Jafari, S., et al., Tattooing and the risk of transmission of hepatitis 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 J Infect Dis*, 2010. 14(11): p. e928-40.

Kaatz, M., P. Elsner, and A. Bauer, Body-modifying concepts and dermatologic problems: tattooing and piercing. *Clin Dermatol*, 2008. 26(1): p. 35-44.

Kluger, N., Acute complications of tattooing presenting in the ED. *Am J Emerg Med*, 2012. 30(9): p. 2055-63.

Kluger, N., Cutaneous complications related to permanent decorative tattooing. *Expert Rev Clin Immunol*, 2010. 6(3): p. 363-71.

Klugl, I., et al., Incidence of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tattooed skin: a nation-wide survey in German-speaking countries. *Dermatology*, 2010.

- 221(1): p. 43-50.
- Klugl, I., et al., Incidence of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tattooed skin: a nation-wide survey in German-speaking countries. *Dermatology*, 2010. 221(1):p.43-50.
- Laumann, A.E. and A.J. Derick, Tattoos and body piercing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data set. *J Am Acad Dermatol*, 2006. 55(3): p. 413-21.
- Laux, P., et al., A medical-toxicological view of tattooing. *The Lancet*, 2016. 387(10016): p. 395-402
- Laux, P., et al., A medical-toxicological view of tattooing. *The Lancet*, 2016. 387(10016): p. 395-402.)
- Laux, P., et al., A medical-toxicological view of tattooing. *The Lancet*, 2016.387(10016): p. 395-402.
- MEDI:GATENews, 반영구화장 합법화 추진...‘문신사범’이어 ‘반영구미용사범안’ 발의될까, 2020/1/7. <<https://medigatenews.com/news/1348913177>>
- Paola Piccinini, Sazan Pakalin, Laura Contor, Ivana Bianchi, Chiara Senaldi,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2016
- Ralf Dieckmann, Ides Boone, Stefan O. Brockmann, Jens A. Hammerl, Annette Kolb-Mäurer, Matthias Goebeler, Andreas Luch, Sascha Al Dahouk. “ The Risk of Bacterial Infection After Tattooing”, *Deutsches Ärzteblatt International | Dtsch Arztebl Int* 2016; 113: 665-7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신사범 검토보고, 2015. 2, 12쪽.
- 김미영, 윤천성, 반영구화장 법제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뷰티산업연구* 제13권 제1호 , 81~102쪽, 전체 22쪽
- 김미영 · 윤천성, 반영구화장 법제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뷰티산업연구* 13 권 1호, 2019. 6. p.81-102
- 라이센스뉴스(<http://www.lcnews.co.kr>) [조소영칼럼] 반영구 합법화, 색소를 말한다. 2020년 3월 9일
- 박주령, 이근광, 반영구화장에 따른 위생관리 행태 및 니들의 선호도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019, Volume 25, Issue 1
- 시사주간, 문신 합법화 27년째 제자리, 2019. 2 18.<<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917458&memberNo=16745602>>

오용태, 타투이스트. 도서출판 한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의 내용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No 1907/2006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OJ L 396, 30.12., 2006: p.1-849.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6R1907>.

유럽연합,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 Final report, 2016

정미라, 이희성, 이지영 외 1명, 화장품 문신으로 사용되는 염료 및 색소의 중금속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9(4) 2018 321 - 329 (9 pages)

한국소비자원, 문신용 염료 안전실태조사-반영구화장용 제품을 중심으로, 2016.09.

별첨 <

별첨 1. 피부미용업 안전 관리 규정

1. 이·미용사의 업무범위

<별표 1-1> 이·미용사의 업무범위

구분		면허종류	업무범위	비고
이용 학과 졸업·이수자 및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자		이용사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미용 학과 졸업·이수자		미용사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국가 기술 자격 자	미용사	미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07.12.31. 이전 자격 취득자
	미용사 (일반)	미용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08.1.1.~ '15.4.16. 자격 취득자
	미용사 (일반)	미용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5.4.17.~ '16.5.31. 자격 취득자
	미용사 (일반)	미용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6.6.1. 이후 자격 취득자
	미용사 (피부)	미용사 (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미용사 (네일)	미용사 (네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미용사 (메이크업)	미용사 (메이크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가. 미용사 면허 신청 및 교부

신청인은 본인이며, 신청기관은 전국 시·군·구이다. 신청서류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이·미용사의 면허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2매(3.5cm*4.5cm)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 이수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2매(3.5cm*4.5cm)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위 취득자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2매(3.5cm*4.5cm)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학점은 행재학위증명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첨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2매(3.5cm*4.5cm)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조건은 다음 <별표 1-3>와 같다.

<별표 1-3> 이·미용사 면허 신청 조건

<p>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2. 1. 19., 2005. 3. 31.,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15. 12. 22., 2016. 2. 3., 2018. 1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p> <p>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p> <p>[시행일 : 2020. 7. 8.] 제6조</p>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른 면허신청조건은 다음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이.미용사 면허 취소

<p>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8. 1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2항제1호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6. 이종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p>
--

나. 미용사 면허 재교부

재교부 기관은 전국 시·군·구이다. 재교부 신청 사유는 1)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2)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이다. 신청 서류는 1)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시행규칙 제10호 서식), 2)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의 3.5*4.5cm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다.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에 따른 처리 절차는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자가 1인 1업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허증은 1인당 1장만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면허자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면허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기존 면허증을 회수하고 추가로 취득한 자격의 내용을 명시하여 하나의 면허증을 재발급한다.

별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별표 2-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I.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 가.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나.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II. 개별기준

4.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1) 삭제 <2018. 10. 5.>
-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별첨 3. 위생관리 기준

<별표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3.19.>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I.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cm²당 85μW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쬔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쬔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쬔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II. 개별기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31.>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4. 미용업자

- 가. 점빠기·킷볼뿔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자.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 4.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 법안

김춘진 의원 문신사법안

의안 번호	8395
----------	------

발의연월일 : 2013. 12. 6.

발 의 자 : 김춘진 · 변재일 · 윤후덕안규백 · 이종걸
· 김경협김성곤 · 박범계 · 이미경홍문표 의원(10인)

제1조(목적) 이 법 은 문신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신행위”란 사람의 피부에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신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신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문신업자”란 제9조제1항에 따라 문신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의료법」과의 관계 및 업무범위) ① 문신업자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문신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신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문신 색소의 종류 또는 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문신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신사는 미성년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문신사의 면허 등)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문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문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문신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기술법」에 따라 문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제5조(문신사의 실무교육 등) ① 제4조에 따라 문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문신행위에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응급처치 및 직업윤리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과목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문신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마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미성년자

6.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문신사의 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문신사가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 대상자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

면 받을 수 있도록 문신행위를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에 문신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2. 문신업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문신업무를 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을 개설·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신사의 업무범위 등) ① 제4조에 따라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문신사의 감독을 받아 문신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신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신사의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신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문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신업의 신고를 한 자는 문신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문신업자의 준수사항) ① 문신업자는 문신을 하기 전에 문신의 영구성 및 부작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손님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문신업자는 문신 대상자에게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신체손상행위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신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대장 등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① 문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손님 대기실과 구분되는 문신실을 설치할 것
2. 문신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3. 문신 바늘은 1회용 바늘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4. 마취제를 사용하지 말 것
5. 폐기물은 분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문신기구의 소독 기준·방법 및 사용한 바늘 등의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허증 및 신고증명서의 게시) 문신업자는 문신사 면허증과 신고증명서를 해당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신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해당 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신업자 및 그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5조(문신업소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소폐쇄 명

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영업표지물 등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제1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문신사의 면허취소
2. 제15조에 따른 문신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 제17조(위생교육) ① 문신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수료) 제4조에 따라 문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문신업무의 범위 및 한계를 위반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문신업무에 종사한 자
4.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을 한 자
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 대상자에게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문신행위를 한 자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자

3.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의 영구성 등을 손님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성년후견인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제6호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문신사 면허의 자격제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등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별첨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87
----------	-------

발의연월일 : 2019. 11. 8.

발 의 자 : 오제세 · 이개호 · 서영교

이춘석 · 최재성 · 김태년

김진표 · 이석현 · 권미혁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용 목적으로 침술과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미용의 한 분야로 보편화됨. 국내에서는 약 1,300만 명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류문화 확산으로 K-Beauty 산업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면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국내에 약 20만명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20~40대 여성으로 집계되어 반영구화장 산업이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면허 없이 침술·마취제를 이용해 문신·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및 사법 처리되고 있는 현실임.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기를 요구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또한, 이러한 법 체계로 인해 반영구화장 산업이 음성화되어 있어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시술을 받는 국민들이 시술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미용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침술과 마취술 사용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술을 받는 국민의 보건과 위생을 보호하고 미용 산업의 진흥을 돕고 있음.

이에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

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영구화장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제4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손질하여”를 “손질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이하 “반영구화장”이라 한다)을 하는 등”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을 “보관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반영구화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면도기나 반영구화장에 사용하는 바늘은 1회용품만을 손님 1명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5. --손질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이하 "반영구화장"이라 한다)을 하는 등--.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 ③ (생략)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단서 신설>	1. -----, 다만, 반영구화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보관할-----.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면도기나 반영구화장에 사용하는 바늘은 1회용품만을 손님 1명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② (생략)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첨 6.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별표 6-1>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 썩손질을 하는 영업 <u><신 설></u></p> <p>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u>바. 종합미용업</u>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u><신 설></u></p> <p>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 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 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 12. 22.>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p>	<p>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 썩손질을 하는 영업 <u>마. 반영구화장업</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의료기기 및 염료·의약품 등을 사용하여 <u>피 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는 영업</u> <u>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u> <u>사. 종합미용업</u> : 가목부터 <u>바목</u>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5의2. "문신업":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 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 겨 넣는 행위를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 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 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 12. 22.>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p>
<p>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 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 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 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 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 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 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 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 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 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 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 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 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 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 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 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 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p> <p>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p> <p>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p> <p>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p> <p>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p> <p>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p> <p><u><신 설></u></p>	<p>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p> <p>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p> <p>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p> <p>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p> <p>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p> <p>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 또는 반영구화장에 사용하는 바늘은 1회용품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p> <p>⑤ 문신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들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1. 문신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p> <p>2. 문신용 바늘은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말 것</p> <p>3. 영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배출할 것</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영업소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⑥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⑦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들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p>	<p>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p> <p>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p> <p>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p>	<p>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p> <p>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p> <p>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p>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p> <p>3.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p> <p>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p> <p>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p> <p>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p> <p>3.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p> <p>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p> <p>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p> <p>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되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p>	<p>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되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p>

<p>현행</p> <p>[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p> <p>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p> <p>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p> <p>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p> <p>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p> <p>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p> <p>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제6조의3(문신의 면허 등) ①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p> <p>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p>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p> <p>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p> <p>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2항제1호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6. 이종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2항제1호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6. 이종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p>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p>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의3(문신사 면허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개정안
	<p>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p> <p>1. 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p> <p>② 문신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신 설></u></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업무범위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u><신 설></u></p>	<p>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u><신 설></u></p>	<p>제8조의3(문신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문신사의 감독을 받아 문신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문신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업무범위에서 행한 문신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문신사의 업무범위와 문신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p>	<p>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p>

<p>현행</p> <p>[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p>	<p>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 	<p>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
<p>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p>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p> <p>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p> <p>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p> <p><u><신 설></u></p> <p>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p> <p>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p> <p>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p> <p>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p> <p>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p>	<p>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p> <p>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p> <p>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p> <p>5의2.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 업무를 한 경우</p> <p>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p> <p>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p> <p>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p> <p>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p> <p>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p>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군·구에 귀속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p>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군·구에 귀속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p>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p> <p>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p>	<p>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p> <p>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p>

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개정안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p> <p>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p> <p>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는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p> <p>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p>	<p>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p> <p>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p> <p>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는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p> <p>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营업을 할 수 없다.</p>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p>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p>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 제7조의3에 따른 문신사의 면허취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p>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p>	<p>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p>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p>	<p>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p>	<p>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p>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p>	<p>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p>	<p>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p>	<p>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p>	<p>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p>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18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u>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문신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 	<p>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지 아니한 자</p> <p>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p> <p>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p> <p>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p> <p>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p> <p><u><신 설></u></p> <p><u><신 설></u></p> <p>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p> <p><u><신 설></u></p> <p>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p> <p><u><신 설></u></p>	<p>지 아니한 자</p> <p>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p> <p>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p> <p>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p> <p>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p> <p><u>4의2.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u></p> <p><u>4의3. 제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u></p> <p>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p> <p><u>5의2.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중에 문신업을 한 사람</u></p> <p>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p> <p><u>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u></p>
<p>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삭제 <2016. 2. 3.></p> <p>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p>	<p>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삭제 <2016. 2. 3.></p> <p>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p>

<p>현행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p>	<p>개정안</p>
<p>자</p> <p>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p> <p>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p> <p>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p> <p>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p> <p><u><신 설></u></p> <p>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p> <p>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 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p> <p>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p> <p><u><신 설></u></p> <p>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p> <p>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자</p> <p>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p> <p>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p> <p>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p> <p>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p> <p><u>2의2.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u></p> <p>3. 제4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p> <p>4. 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 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p> <p>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p> <p><u>5의2.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 장소에서 문신업무를 행한 자</u></p> <p>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p> <p>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23조 삭제 <2016. 2. 3.></p>	<p>제23조 삭제 <2016. 2. 3.></p>
<p>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부 록 <

부록 1. 염료 정리(환경부 초록누리)

<부표 1-1> 염료 정리(환경부 초록누리)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에스엔제이상사	칼라소스#8947/포 미그라네이트(KOLO RSOUR#8947/PO MEGRANATE)	FB19-20-0011	2019-07-17	입술용	수입	
에스엔제이상사	칼라소스#8478/번 트토스트(KOLORS OURCE#8478/BUR NTTOAST)	FB19-20-0012	2019-07-17	눈썹, 아이라인용	수입	
에스엔제이상사	칼라소스 #8945/셀몬페이트(KOLORSOURCE#8 945/SALMONPATE)	FB19-20-0013	2019-07-23	입술용	수입	
주식회사리젠클레오	클레오클래식	F-A12B-A0004000 2-A180	2018-12-20	전신용, 애멀션형(로션형),오 렌지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리젠클레오	클레오클래식	F-A12B-A0004000 1-A180	2018-12-20	전신용, 애멀션형(로션형),브 라운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인텐즈(INTENZE)	F-A12B-S0002000 4-A180	2018-11-28	전신용, 애멀션형, 화이트	수입	미국
미용닷컴	인텐즈(INTENZE)	F-A12B-S0002000 3-A180	2018-11-28	전신용, 애멀션형, 블루	수입	미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주)제이투	tattoo ink	F-A12B-M000300 20-A1	2018-11-13	전신형, 액체형, 퍼플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이터널(ETERNAL)	F-A12B-S0003000 2-A180	2018-10-02	전신형, 액체형, 옐로우	수입	미국
미용닷컴	인텐즈(INTENZE)	F-A12B-S0002000 2-A180	2018-10-02	전신형, 액체형, 옐로우	수입	미국
밀라뷰티	MILLIONLINES(브 라운)	F-A12B-C0001000 1-A180	2018-07-20	전신형, 에멀션형, 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대봉엘에스(주)	Quantum	F-A12B-S0010000 1-A180	2018-07-05	전신형, 에멀션형, 검정	수입	미국
(주)제이투	SO LONG(펑크오렌 지)	F-A12B-R0003000 1-A180	2018-04-04	전신용, 에멀션형(로션형),펑 크오렌지	수입	중국
뷰티에코	BEAUTYCLASSE	F-A12B-B0001000 1-A180	2018-04-03	전신용, 에멀션형(로션형),뷰 티스킨	생산	대한민국
뷰티코스메틱	VENUS(블랙)	F-A12B-H0007000 5-A180	2018-04-03	전신용, 에멀션형(로션형),블 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나노(nano)	F-A12B-H0001004 6-A170	2017-11-30	전신형, 에멀션형, 그레이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해요(HaeYo)	HaeYo(그레이)	F-A12B-H0005000 6-A170	2017-11-10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그 레이	생산	대한민국
해요(HaeYo)	HaeYo(베이비스킨)	F-A12B-H0005000 5-A170	2017-11-10	전신용,에멀션형(로 션형),베이비스킨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타이탄(titan)	F-A12B-H001002- A160	2016-04-20	전신용, 에멀션형, 헤어블랙	생산	대한민국
뷰티코스메틱	VENUS(버블검)	F-A12B-H0007000 3-A170	2017-12-19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버 블검	생산	대한민국
뷰티코스메틱	VENUS(브라운)	F-A12B-H0007000 2-A170	2017-12-19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브 라운	생산	대한민국
해요(HaeYo)	Haeyo(베이지브라운)	F-A12B-H0005000 4-A170	2017-12-04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베 이지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해요(HaeYo)	Haeyo(옐로우)	F-A12B-H0005000 3-A170	2017-12-04	전신용,에멀션형(로 션형),옐로우	생산	대한민국
해요(HaeYo)	Haeyo(카멜브라운)	F-A12B-H0005000 2-A170	2017-12-04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카 멜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나노(nano)	F-A12B-H0001004 4-A170	2017-11-30	전신용, 에멀션형, 카키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나노(nano)	F-A12B-H0001004 3-A170	2017-11-30	전신용, 에멀션형, 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미용닷컴	나노(nano)	F-A12B-H0001004 2-A170	2017-11-30	전신용, 에멀션형, 모카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나노(nano)	F-A12B-H0001004 1-A170	2017-11-30	전신용, 에멀션형, 다크초콜렛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구로수미(kurosumi)	F-A12B-R0002000 2-A170	2017-11-30	전신용, 에멀션형, 그레이브라운	수입	일본
미용닷컴	구로수미(kurosumi)	F-A12B-R0002000 1-A170	2017-11-30	전신용, 에멀션형, 다크블랙	수입	일본
(주)씨투	HaeYo(그레이)	F-A12B-H0006000 1-A170	2017-11-10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그레이	생산	대한민국
familyfactory(패밀리팩토리)	HaeYo(베이비스킨)	F-A12B-K0002000 1-A170	2017-11-10	전신용, 에멀션형(로 션형), 베이비스킨	생산	대한민국
해요(HaeYo)	HaeYo(화이트)	F-A12B-H0005000 1-A170	2017-11-10	전신용, 에멀션형(로 션형), 화이트	생산	대한민국
탑와이엔(TOPYN)	topyn(골드마스크)	F-A12B-K0001000 2-A170	2017-11-02	눈썹, 아이라인용, 입술용, 에멀션형(로션형), 골드마스크	생산	대한민국
탑와이엔(TOPYN)	topyn(스페셜브라운)	F-A12B-K0001000 1-A170	2017-11-02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스페셜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메이라뷰티	MEI NO.1(브라운)	F-A12B-A0003000 6-A170	2017-11-02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메이라뷰티	MEI NO.1(베이비브라운)	F-A12B-A0003000 5-A170	2017-11-02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베이비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메이라뷰티	MEI NO.1(다크브라운)	F-A12B-A0003000 4-A170	2017-11-02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다크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메이라뷰티	MEI NO.1(아이라인블랙)	F-A12B-A0003000 3-A170	2017-11-02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아이라인블랙	생산	대한민국
메이라뷰티	MEI NO.1(카키브라운)	F-A12B-A0003000 2-A170	2017-11-02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카키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메이라뷰티	MEI NO.1(토프)	F-A12B-A0003000 1-A170	2017-11-02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토프	생산	대한민국
에스엔제이상사	KOLORSOURCE#9 113/OLIVEBROW N	F-A12B-S009003- A170	2017-04-10	눈썹용, 에멀션형, OLIVE BROWN	수입	미국
바바룩	블랙	F-A12B-S008007- A160	2016-05-20	아이라인용, 액체형, 검정	수입	미국
바바룩	옐로우 모디피어	F-A12B-S008006- 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노랑	수입	미국
바바룩	브라운10	F-A12B-S008005- 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밝은브라운	수입	미국
바바룩	브라운2	F-A12B-S008004- 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연한브라운	수입	미국
바바룩	에보니1	F-A12B-S008003- 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진한에보니	수입	미국
바바룩	브라운1	F-A12B-S008002- 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진한갈색	수입	미국
바바룩	에보니2	F-A12B-S008001- 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에보니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Black(BLK)	F-A12B-S007001- A160	2016-05-20	전신용, 액체형, Black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Pure Pigment-TOFFEE	F-A12B-S005021- A170	2017-05-19	눈썹용, 액체형, TOFFEE	수입	미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Orange	F-A12B-S005013-A160	2016-05-20	입술용, 액체형, Orange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Dark Brown	F-A12B-S005012-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Dark Brown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Olive	F-A12B-S005011-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Olive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Red Wine	F-A12B-S005010-A160	2016-05-20	입술용, 액체형, Red Wine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Jet Black	F-A12B-S005008-A160	2016-05-20	아이라인용, 액체형, Jet Black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Light Brown	F-A12B-S005006-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Light Brown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Taupe	F-A12B-S005005-A160	2016-05-20	눈썹용, 액체형, Taupe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Realred	F-A12B-S005004-A160	2016-05-20	입술용, 액체형, RealRed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Japanese Rudy	F-A12B-S005003-A160	2016-05-20	입술용, 액체형, Japanese Rudy	수입	미국
청화메디칼	마이크로피그먼트Skin	F-A12B-S005002-A160	2016-05-20	눈썹용, 입술용, 액체형, Skin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SOURCE#8478/DARKBROWN	F-A12B-S004014-A160	2016-05-20	눈썹용,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다크브라운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SOURCE#9178/BROWNBLACK	F-A12B-S004013-A160	2016-05-20	눈썹용,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브라운블랙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SOURCE#8945/RED	F-A12B-S004011-A160	2016-05-20	입술용, 에멀션형, 레드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SOURCE#44/DARK BROWN	F-A12B-S004010-A160	2016-05-20	눈썹용, 에멀션형, 다크브라운	수입	미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SOURCE#9 156/DARK BROWN	F-A12B-S004009-A160	2016-05-20	눈썹용, 에멀션형, 다크브라운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SOURCE#9 210/DARK BROWN	F-A12B-S004008-A160	2016-05-20	눈썹용, 에멀션형, 다크브라운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SOURCE#4 5/DARK BROWN	F-A12B-S004007-A160	2016-05-20	눈썹용, 에멀션형, 다크브라운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SOURCE#3 590/BROWN BLACK	F-A12B-S004006-A160	2016-05-20	눈썹용,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브라운블랙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SOURCE#8 951/PALE YELLOW	F-A12B-S004005-A160	2016-05-20	눈썹용, 아이라인용, 입술용, 에멀션형, 베이지색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 SOURCE #6955/BLOOPER	F-A12B-S004004-A160	2016-05-20	눈썹용, 아이라인용, 입술용, 에멀션형, 화이트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 SOURCE #4400/BUBBLEGU M	F-A12B-S004003-A160	2016-05-20	눈썹용, 아이라인용, 입술용, 에멀션형, 피치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 SOURCE #8947/RED	F-A12B-S004002-A160	2016-05-20	입술용, 에멀션형, 레드	수입	미국
에스앤제이상사	KOLOR SOURCE #321/BLACK	F-A12B-S004001-A160	2016-05-20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블랙	수입	미국
미용닷컴	이터널(ETERNAL)	F-A12B-S003001-A160	2016-04-20	전신용, 에멀션형, 레드	수입	미국
미용닷컴	인텐즈(INTENZE)	F-A12B-S002001-A160	2016-04-20	전신용, 에멀션형, 레드	수입	미국
미용닷컴	다이나믹(dynamic)	F-A12B-S001001-A160	2016-04-20	전신용, 에멀션형, 레드	수입	미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골든로즈코리아	K004 BLACK POWDER	F-A12B-R001015-A160	2016-06-20	눈썹용,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BLACK POWDER	수입	중국
골든로즈코리아	A001 RED	F-A12B-R001014-A160	2016-06-20	입술용, 액체형, Red	수입	중국
골든로즈코리아	A005 BLACK	F-A12B-R001013-A160	2016-06-20	아이라인용, 액체형, BLACK	수입	중국
골든로즈코리아	A013 ORANGE	F-A12B-R001009-A160	2016-06-20	입술용, 액체형, ORANGE	수입	중국
골든로즈코리아	A014 YELLOW	F-A12B-R001007-A160	2016-06-20	입술용, 액체형, YELLOW	수입	중국
골든로즈코리아	A004 ROSE RED	F-A12B-R001005-A160	2016-06-20	입술용, 액체형, ROSE RED	수입	중국
골든로즈코리아	A002 ORANGE RED	F-A12B-R001004-A160	2016-06-20	입술용, 액체형, ORANGE RED	수입	중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토프)	F-A12B-M003019-A170	2017-08-1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토프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오렌지)	F-A12B-M003017-A170	2017-08-18	입술용, 에멀션형(로션형), 오렌지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핑크)	F-A12B-M003016-A170	2017-08-18	입술용, 에멀션형(로션형), 연핑크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버블검)	F-A12B-M003015-A170	2017-08-1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버블검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레드오렌지)	F-A12B-M003014-A170	2017-08-18	입술용, 에멀션형(로션형), 레드오렌지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레드)	F-A12B-M003013-A170	2017-08-18	입술용, 에멀션형(로션형), 레드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다크그레이)	F-A12B-M003012-A170	2017-08-1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다크그레이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핑크)	F-A12B-M003008-A170	2017-05-08	입술용, 에멀션형(로션형), 핑크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브라운)	F-A12B-M003007-A170	2017-05-0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블랙)	F-A12B-M003006-A170	2017-05-0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다크브라운)	F-A12B-M003005-A170	2017-05-0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다크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라이트브라운)	F-A12B-M003003-A170	2017-05-0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라이트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ADORA(초코브라운)	F-A12B-M003002-A170	2017-05-0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초코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바이올렛	orange	F-A12B-H003015-A160	2016-06-20	입술용, 에멀션형, 오렌지	생산	대한민국
바이올렛	Red	F-A12B-H003008-A160	2016-06-20	입술용, 액체형, 레드	생산	대한민국
바이올렛	Pink	F-A12B-H003006-A160	2016-06-20	입술용, 액체형, 핑크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바이올렛	Bubble Gum	F-A12B-H003005-A160	2016-06-20	눈썹용, 액체형, 버블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awy	F-A12B-H001040-B170	2017-01-19	전신형, 에멀션형, 오렌지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awy	F-A12B-H001039-B170	2017-01-19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awy	F-A12B-H001038-B170	2017-01-19	전신형, 에멀션형, 핑크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C.O.P	F-A12B-H001037-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GOLDEN MAGIC Black	F-A12B-H001036-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IMPACT	F-A12B-H001035-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D&S	F-A12B-H001034-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ORORA	F-A12B-H001033-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H.SARAH by REGINA	F-A12B-H001032-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WONDER	F-A12B-H001031-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BY+miracle	F-A12B-H001030-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IMPERIAL	F-A12B-H001029-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ERICA	F-A12B-H001028-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컵	NOBLE MECCA	F-A12B-H001027-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미용닷컴	NEW IMPERIAL	F-A12B-H001026-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NEW ERICA	F-A12B-H001025-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Le belle	F-A12B-H001024-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EXCELLENT	F-A12B-H001023-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Portray	F-A12B-H001022-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Atraea	F-A12B-H001021-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IOU	F-A12B-H001020-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차미한	F-A12B-H001019-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PERFECT	F-A12B-H001018-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changeV	F-A12B-H001017-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DIAMOND	F-A12B-H001016-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Mol	F-A12B-H001015-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250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미용닷컴	명가	F-A12B-H001014-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Belle	F-A12B-H001013-B160	2016-12-3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임페리얼(imperial)	F-A12B-H001012-A160	2016-07-20	전신형, 에멀션형, 핑크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미소플러스	F-A12B-H001009-A160	2016-07-20	전신형, 에멀션형, 오렌지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오페라(opera)	F-A12B-H001008-A160	2016-07-20	전신형, 에멀션형, 레드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나노 엠보(nano embo)	F-A12B-H001006-A160	2016-04-20	전신형, 에멀션형, 화이트	생산	대한민국
미용닷컴	나노(nano)	F-A12B-H001004-A160	2016-04-20	전신형, 에멀션형, 블랙	생산	대한민국
디엔에이치	블링블링 젯블랙	F-A12B-D001010-A160	2016-04-25	아이라인용, 액체형, 젯블랙	생산	대한민국
디엔에이치	오디세이 크레이지블랙	F-A12B-D001004-A160	2016-04-25	전신용, 액체형, 크레이지블랙	생산	대한민국
디엔에이치	오디세이 레드	F-A12B-D001003-A160	2016-04-20	전신용, 액체형, 레드	생산	대한민국
디엔에이치	오디세이 화이트	F-A12B-D001001-A160	2016-04-25	전신용, 액체형, 화이트	생산	대한민국
뷰티마스터	Eagle Eye(핑크)	F-A12B-A002010-A170	2017-08-18	입술용, 에멀션형(로션형), 핑크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뷰티마스터	Eagle Eye(초코브라운)	F-A12B-A002009-A170	2017-08-1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초코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뷰티마스터	Eagle Eye(블랙다크)	F-A12B-A002005-A170	2017-08-1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블랙다크	생산	대한민국
뷰티마스터	Eagle Eye(버블검)	F-A12B-A002003-A170	2017-08-1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버블검	생산	대한민국
뷰티마스터	Eagle Eye(라이트브라운)	F-A12B-A002002-A170	2017-08-1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라이트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뷰티마스터	Eagle Eye(다크브라운)	F-A12B-A002001-A170	2017-08-18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로션형), 다크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주)더스탠다드	코티아 15호 Blueper	F-A12B-A001004-A170	2017-06-20	눈썹, 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에멀션형, 오렌지	생산	대한민국
(주)더스탠다드	코티아 26호 purple Collection	F-A12B-A001003-A170	2017-06-20	눈썹, 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에멀션형, 옐로	생산	대한민국
(주)더스탠다드	코티아 21호 Hot Pink	F-A12B-A001002-A170	2017-06-20	눈썹, 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에멀션형, 핑크	생산	대한민국
(주)더스탠다드	코티아 16호 Dark Red	F-A12B-A001001-A170	2017-06-20	눈썹, 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에멀션형, 레드	생산	대한민국
엔케이아이	레드-02	D-A12B-H003001-A160	2016-06-02	입술용/ 액체형/ Rde#607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올어바웃뷰티	소프텡 입술 색소	D-A12B-S0001000 1-A180	2018-11-28	입술용, 피부용/ 에멀션형/ 레드	수입	미국
쥘더스탠다드	SEPIA Dark Brown	D-A12B-H000600 05-A170	2017-12-27	눈썹?아이라인용, 전신용/ 에멀션형/ SEPIA Dark Brown	생산	대한민국
쥘더스탠다드	SEPIA Light Brown	D-A12B-H000600 04-A170	2017-12-27	눈썹?아이라인용, 전신용/ 에멀션형/ SEPIA Light Brown	생산	대한민국
쥘더스탠다드	SEPIA Jet Black	D-A12B-H000600 03-A170	2017-12-27	눈썹?아이라인용, 전신용/ 에멀션형/ SEPIA Jet Black	생산	대한민국
쥘더스탠다드	SEPIA Orange	D-A12B-H000600 02-A170	2017-12-27	입술용, 전신용/ 에멀션형/ SEPIA Orange	생산	대한민국
쥘더스탠다드	SEPIA Skin Beige	D-A12B-H000600 01-A170	2017-12-27	눈썹?아이라인용, 전신용/ 에멀션형/ SEPIA Skin Beige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JHNMICROTEC)	701 Flamingo	D-A12B-H000200 18-A170	2017-12-29	입술용/ 액체형/ 핑크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JHNMICROTEC)	961 Wildrose	D-A12B-H000200 17-A170	2017-12-29	입술용/ 액체형/ 와일드로즈	생산	대한민국
누보컨투어	609	D-A12B-T002001- A160	2016-09-30	입술용/ 액체형/ 다홍	수입	네덜란드
크로스메드	딤블랙	D-A12B-T001010- A160	2016-09-30	입술용/ 액체형/ 블랙-2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cocoa	D-A12B-T001009- A160	2016-09-29	입술용/ 액체형/ 브라운-8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CASHMERE	D-A12B-T001008- A160	2016-09-28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브라운-2	수입	독일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크로스메드	MAROON	D-A12B-T001007-A160	2016-09-28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브라운-2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MOCHA	D-A12B-T001006-A160	2016-09-28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브라운-3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CAMO	D-A12B-T001005-A160	2016-09-28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브라운-4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areola	D-A12B-T001004-A160	2016-09-28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브라운-5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MANDARIN	D-A12B-T001003-A160	2016-09-28	입술용/ 액체형/ 레드-1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MAGNOLIA	D-A12B-T001002-A160	2016-09-28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레드-3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TOBACCO	D-A12B-T001001-A160	2016-09-28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브라운-6	수입	독일
주식회사 제이투(J2 Co.,Ltd.)	New Face	D-A12B-M001001-A160	2016-09-30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리얼다크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성윤	시아르페(SYARTE)	D-A12B-H005002-A170	2017-07-27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팬텀블랙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성윤	시아르페(SYARTE)	D-A12B-H005001-A170	2017-07-27	눈썹용/ 에멀션형/ 다크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에이앤케이(A & K)	엠보 - 07	D-A12B-H004008-A160	2016-06-07	눈썹용/ 에멀션형/ 연한 갈색	생산	대한민국
에이앤케이(A & K)	엠보 - 05	D-A12B-H004007-A160	2016-06-07	눈썹용/ 에멀션형/ 중간 갈색	생산	대한민국
에이앤케이(A & K)	엠보 - 01	D-A12B-H004006-A160	2016-06-07	눈썹용/ 에멀션형/ 검정	생산	대한민국
에이앤케이(A & K)	액상 - 302	D-A12B-H004005-A160	2016-06-07	입술용/ 액체형/ 오렌지	생산	대한민국
에이앤케이(A & K)	액상 - 206	D-A12B-H004004-A160	2016-06-07	눈썹용/ 액체형/ 진갈색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에이앤케이(A & K)	액상 - 205	D-A12B-H004003 -A160	2016-06-07	눈썹용/ 액체형/ 중간 갈색	생산	대한민국
에이앤케이(A & K)	액상 - 202	D-A12B-H004002 -A160	2016-06-07	눈썹용/ 액체형/ 연한 갈색	생산	대한민국
에이앤케이(A & K)	액상 - 101	D-A12B-H004001 -A160	2016-06-07	아이라인용/ 액체형/ 검정	생산	대한민국
엔케이아이	브라운-06	D-A12B-H003006 -A160	2016-06-03	눈썹용/ 액체형/ Brown#237	생산	대한민국
엔케이아이	브라운-05	D-A12B-H003005 -A160	2016-06-03	눈썹용/ 액체형/ Brown#231	생산	대한민국
엔케이아이	브라운-04	D-A12B-H003004 -A160	2016-06-03	눈썹용/ 액체형/ Brown#225	생산	대한민국
엔케이아이	블랙-02	D-A12B-H003003 -A160	2016-06-03	아이라인용/ 액체형/ Black#103	생산	대한민국
엔케이아이	블랙-01	D-A12B-H003002 -A160	2016-06-03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Black#001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C. Dark Brown	D-A12B-H002016 -A170	2017-01-17	눈썹용/ 에멀션형/ 썬.다크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Correction	D-A12B-H002015 -A170	2017-01-18	눈썹용/ 액체형/ 커렉션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Dark Brown	D-A12B-H002014 -A170	2017-01-17	눈썹용/ 액체형/ 다크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Light Pink	D-A12B-H002013 -A170	2017-01-17	입술용/ 액체형/ 라이트핑크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orange	D-A12B-H002012 -A170	2017-01-17	입술용/ 액체형/ 오렌지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9430 Poppy Poppy	D-A12B-H002011 -A170	2017-01-17	입술용/ 액체형/ 포피포피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존마이크로테크	802 Blue Out	D-A12B-H002010 -A170	2017-01-17	입술용/ 액체형/ 블루아웃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702 Hot Pink	D-A12B-H002009 -A170	2017-01-17	입술용/ 액체형/ 핫핑크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701 Red Red	D-A12B-H002008 -A170	2017-01-19	입술용/ 액체형/ 리얼레드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231 ESPRESSO(에스프레소)	D-A12B-H002007 -A160	2016-09-19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에스프레소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401 Camo A(카모 A)	D-A12B-H002006 -A160	2016-09-19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카모 A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601 Red Correction(레드커 렉션)	D-A12B-H002005 -A160	2016-09-19	전신용/ 에멀션형/ 레드커렉션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21 Mink (밍크)	D-A12B-H002004 -A160	2016-05-27	눈썹용/ 에멀션형/ 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205 Caramel(카라멜)	D-A12B-H002003 -A160	2016-05-27	눈썹용/ 액체형/ 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227 Hazelunt(헤이즐넛)	D-A12B-H002002 -A160	2016-05-27	눈썹용/ 액체형/ 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존마이크로테크	111 Deep Black(딥블랙)	D-A12B-H002001 -A160	2016-05-27	아이라인용/ 액체형/ 검정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피에이치피그먼트(P H PIGMENT CO.,LTD)	아시안스모키	D-A12B-H001006 -A160	2016-09-20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아시안스모키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피에이치피그먼트(P H PIGMENT CO.,LTD)	토프	D-A12B-H001005 -A160	2016-05-27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토프	생산	대한민국

256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주식회사 피에이치피그먼트(P H PIGMENT CO.,LTD)	라이트브라운	D-A12B-H001004 -A160	2016-05-27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라이트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피에이치피그먼트(P H PIGMENT CO.,LTD)	초코브라운	D-A12B-H001003 -A160	2016-05-27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초코 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피에이치피그먼트(P H PIGMENT CO.,LTD)	리얼블랙	D-A12B-H001002 -A160	2016-05-27	눈썹, 아이라인용/ 액체형/ 리얼블랙	생산	대한민국
주식회사 피에이치피그먼트(P H PIGMENT CO.,LTD)	카키브라운	D-A12B-H001001 -A160	2016-05-27	눈썹,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카키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더스탠다드	엔젤 7호 버블검	D-A12B-A003003- A160	2016-12-02	눈썹, 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에멀션형/ 버블검	생산	대한민국
㈜더스탠다드	엔젤 5호 오렌지	D-A12B-A003002- A160	2016-12-02	눈썹, 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에멀션형/ 오렌지	생산	대한민국
㈜더스탠다드	DEB4-2	D-A12B-A003001- A160	2016-09-30	눈썹, 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에멀션형/ 다크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비엔미 아카데미	Brown Ash(9750)	D-A12B-A002006- A160	2016-06-07	눈썹용/ 액체형/ Brown Ash(9750)	생산	대한민국
비엔미 아카데미	Choc Choc(9790)	D-A12B-A002005- A160	2016-06-07	눈썹용/ 액체형/ Choc Choc(9790)	생산	대한민국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비엔미 아카데미	Espresso(9780)	D-A12B-A002004-A160	2016-06-07	눈썹용/ 액체형/ Espresso(9780)	생산	대한민국
비엔미 아카데미	Mocca(9730)	D-A12B-A002003-A160	2016-06-07	눈썹용/ 액체형/ Mocca(9730)	생산	대한민국
비엔미 아카데미	Turbo Black(340)	D-A12B-A002002-A160	2016-06-07	아이라인용/ 액체형/ Turbo Black(340)	생산	대한민국
비엔미 아카데미	Lilac Correction(1020)	D-A12B-A002001-A160	2016-06-07	전신용/ 액체형/ Lilac Correction(1020)	생산	대한민국
한 코스메틱	Choco Brown(503)	D-A12B-A001005-A160	2016-06-03	눈썹용/ 액체형/ Choco Brown(503)	생산	대한민국
한 코스메틱	Light Brown(511)	D-A12B-A001004-A160	2016-06-03	눈썹용/ 액체형/ Light Brown(511)	생산	대한민국
한 코스메틱	Gray Brown(303)	D-A12B-A001003-A160	2016-06-03	아이라인용/ 에멀션형/ Gray Brown(303)	생산	대한민국
한 코스메틱	Black(100)	D-A12B-A001002-A160	2016-06-03	아이라인용/ 액체형/ Black(100)	생산	대한민국
한 코스메틱	Olive(313)	D-A12B-A001001-A160	2016-06-03	눈썹용/ 에멀션형/ Olive(313)	생산	대한민국
뷰티난다	셀립	E-A12B-K001005-A170	2017-04-10	눈썹.아이라인용/에 멀션형/오렌지브라운	생산	충청남도
뷰티난다	셀립	E-A12B-K001004-A170	2017-04-10	눈썹.아이라인용/에 멀션형/애쉬카키브라운	생산	충청남도
뷰티난다	셀립	E-A12B-K001003-A170	2017-04-10	눈썹.아이라인용/에 멀션형/모던브라운	생산	충청남도
뷰티난다	셀립	E-A12B-K001002-A170	2017-04-10	눈썹.아이라인용/에 멀션형/마일드초코브 라운	생산	충청남도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뷰티난다	셀립	E-A12B-K001001-A170	2017-04-10	눈썹.아이라인용/에 멀션형/딥다크브라운	생산	충청남도
에이엠씨리더스	Peptide Tattoo	E-A12B-D0001000 3-A170	2017-10-31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카키브라운	생산	인천광역시
에이엠씨리더스	Peptide Tattoo	E-A12B-D0001000 2-A170	2017-10-31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제트블랙	생산	인천광역시
에이엠씨리더스	Peptide Tattoo	E-A12B-D0001000 1-A170	2017-10-31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블랙	생산	인천광역시
비에스바이오텍	BLOOMY	E-A12B-H0008000 1-A170	2017-10-31	입술용/액체형/Red	생산	경기도
타텍에스앤에스	Swiss Color MB806 Walnut	E-A12B-T004005-A170	2017-07-19	눈썹용/에멀션형/갈 색	수입	스위스
타텍에스앤에스	Swiss Color OS755 Tricho5	E-A12B-T004004-A170	2017-07-04	기타(두피용)/에멀션 형/갈색	수입	스위스
타텍에스앤에스	Swiss Color OS257 Coral	E-A12B-T004003-A170	2017-07-04	입술용/액체형/적색	수입	스위스
타텍에스앤에스	Swiss Color MB807 Ebony	E-A12B-T004002-A170	2017-07-04	눈썹용/에멀션형/갈 색	수입	스위스
타텍에스앤에스	Swiss Color OS153 Manhatten	E-A12B-T004001-A170	2017-07-04	눈썹용/액체형/갈색	수입	스위스
서도무역	BASE	E-A12B-T003002-A170	2017-03-02	눈썹용, 전신용/액체형/밝은 연두색	수입	독일
서도무역	GOLD	E-A12B-T003001-A170	2017-03-02	눈썹용, 전신용/액체형/진한 살색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GOLDEN YELLOW	E-A12B-T002002-A160	2016-07-28	눈썹용/에멀션형/노 랑	수입	독일
크로스메드	DRAGON FRUT	E-A12B-T002001-A160	2016-07-21	입술용/에멀션형/오 렌지	수입	독일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비앤미 아카데미	403(크림베이지)	E-A12B-T001001-A160	2016-07-01	전신용/액체형/크림 베이지(403)	수입	네덜란드
골든로즈코리아	A019 골든브라운	E-A12B-R001003-A170	2017-01-10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골든브라운	수입	중국
골든로즈코리아	A017 핑크레드	E-A12B-R001002-A170	2017-01-10	입술용/액체형/핑크 레드	수입	중국
골든로즈코리아	A007 다크브라운	E-A12B-R001001-A170	2017-01-10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다크브라운	수입	중국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12-A170	2017-01-11	눈썹.아이라인용, 전 신용, 입술용/에멀션 형/토프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11-A170	2017-01-11	눈썹.아이라인용, 전 신용, 입술용/에멀션 형/다크브라운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10-A170	2017-01-11	눈썹.아이라인용, 전 신용, 입술용/에멀션 형/허니브라운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09-A170	2017-01-11	눈썹.아이라인용, 전 신용, 입술용/에멀션 형/블랙브라운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08-A170	2017-01-11	눈썹.아이라인용, 전 신용, 입술용/에멀션 형/화이트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07-A170	2017-01-11	눈썹.아이라인용, 전 신용, 입술용/에멀션 형/브라운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06-A170	2017-01-11	눈썹.아이라인용, 전 신용, 입술용/에멀션 형/초코브라운	생산	경기도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05-A170	2017-01-11	눈썹.아이라인용,전 신용,입술용/에멀션 형/블랙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04-A170	2017-01-11	눈썹.아이라인용,전 신용,입술용/에멀션 형/라이트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03-A170	2017-01-10	눈썹.아이라인용,전 신용,입술용/에멀션 형/번트토프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02-A170	2017-01-10	눈썹.아이라인용,전 신용,입술용/에멀션 형/드럼브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엠보	E-A12B-H007001-A170	2017-01-10	눈썹.아이라인용,전 신용,입술용/에멀션 형/베이지	생산	경기도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10-A170	2017-08-03	눈썹용/액체형/브라운	생산	경기도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09-A170	2017-08-03	눈썹용/액체형/다크 브라운	생산	경기도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08-A170	2017-08-03	아이라인용/액체형/ 매직블랙	생산	경기도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07-A170	2017-08-03	아이라인용/액체형/ 크레이지블랙	생산	경기도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06-A170	2016-10-20	눈썹용/액체형/라이 트브라운	생산	경기도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05-A160	2016-10-20	눈썹용/액체형/그레 이	생산	경기도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04-A160	2016-10-20	전신용/액체형/베이 지	생산	경기도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03-A160	2016-10-20	전신용/액체형/버블 겹	생산	경기도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02-A160	2016-10-20	눈썹용/액체형/카키 브라운	생산	경기도
이젠코스텍	ASIA ONE	E-A12B-H006001-A160	2016-10-20	눈썹용/액체형/초코 브라운	생산	경기도
엔케이아이	Camo 3	E-A12B-H005003-A160	2016-07-06	전신용/액체형/베이 지(Camo#403)	생산	경기도
엔케이아이	Camo 1	E-A12B-H005003-A160	2016-07-06	전신용/액체형/화이 트(Camo#611)	생산	경기도
엔케이아이	Camo 2	E-A12B-H005003-A160	2016-07-06	전신용/액체형/베이 지(Camo#401)	생산	경기도
존마이크로테크	227 Hazelunt	E-A12B-H004001-A160	2016-07-01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Dark Brown	생산	경기도
(주) 에스페미가	801 골든옐로우	E-A12B-H003002-A160	2016-07-28	눈썹용/에멀션형/밝 은 황색	생산	경기도
(주) 에스페미가	201 카모에이	E-A12B-H003001-A160	2016-06-24	눈썹용/에멀션형/살 색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하이브리드	E-A12B-H002021-A160	2016-11-30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에멀션 형/화이트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셀라인하이브리드	E-A12B-H002020-A160	2016-11-30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에멀션 형/번트토프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orange	E-A12B-H002019-A160	2016-09-06	입술용/액체형/Oran ge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Peach	E-A12B-H002017-A160	2016-09-06	입술용/액체형/Peac h	생산	경기도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Honey Brown	E-A12B-H002016-A160	2016-09-06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Honey Brown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Dream Brown	E-A12B-H002015-A160	2016-09-06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Dream Brown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Asian Smoky	E-A12B-H002014-A160	2016-09-06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Asian Smoky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Lip Mask	E-A12B-H002013-A160	2016-09-06	입술용/에멀션형/Li p Mask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Pink Mauve	E-A12B-H002012-A160	2016-09-06	입술용/에멀션형/Pi nk Mauve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다크브라운	E-A12B-H002011-A160	2016-09-06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Brown Black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Beige	E-A12B-H002010-A160	2016-09-06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Beige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Khaki Brown	E-A12B-H002009-A160	2016-09-06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Khaki Brown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Yellow	E-A12B-H002008-A160	2016-09-06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Yellow	생산	경기도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Eyebrow Mask	E-A12B-H002007-A160	2016-09-06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Eyebrow Mask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Real Red	E-A12B-H002006-A160	2016-09-06	입술용/에멀션형/Re al Red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Bubble Gum	E-A12B-H002005-A160	2016-07-29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Bubble Gum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Blooper	E-A12B-H002004-A160	2016-07-29	눈썹.아이라인용/에 멀션형/Blooper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Light Brown	E-A12B-H002003-A160	2016-07-12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Light Brown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Chocolate Brown	E-A12B-H002002-A160	2016-06-23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초코브라운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Brown	E-A12B-H002001-A160	2016-06-23	눈썹.아이라인용/액 체형/브라운	생산	경기도
주식회사 피에이치(PH Co.,Ltd.)	Pink	E-A12B-H002018-A160	2016-09-06	입술용/에멀션형/Pi nk	생산	경기도
미용닷컴	나노(nano)	E-A12B-H001008-A170	2017-01-10	전신용/액체형/에보 니브라운	생산	경기도
미용닷컴	나노(nano)	E-A12B-H001007-A170	2017-01-10	전신용/액체형/라이 트브라운	생산	경기도
미용닷컴	나노(nano)	E-A12B-H001006-A170	2017-01-10	전신용/액체형/버블 검	생산	경기도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미용닷컴	나노(nano)	E-A12B-H001005-A160	2016-11-24	전신용/액체형/다크 브라운	생산	경기도
미용닷컴	나노(nano)	E-A12B-H001004-A160	2016-11-24	전신용/액체형/옐로 우	생산	경기도
미용닷컴	나노(nano)	E-A12B-H001003-A160	2016-11-24	전신용/액체형/초코 렛브라운	생산	경기도
미용닷컴	퍼펙트(perfect)	E-A12B-H001002-A160	2016-08-30	전신용/액체형/화이 트	생산	경기도
미용닷컴	임팩트(impact)	E-A12B-H001001-A160	2016-06-22	전신용/액체형/레드	생산	경기도
(주)라라리즈	오로라 핑크	E-A12B-C0001000 8-A170	2017-08-02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핑크	생산	대구광역시
(주)라라리즈	키스레드	E-A12B-C0001000 7-A170	2017-02-22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레드	생산	대구광역시
(주)라라리즈	카키브라운	E-A12B-C0001000 6-A170	2017-02-22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카키브라운	생산	대구광역시
(주)라라리즈	카멜브라운	E-A12B-C0001000 5-A170	2017-02-22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카멜브라운	생산	대구광역시
(주)라라리즈	옐로우	E-A12B-C0001000 4-A170	2017-02-22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옐로우	생산	대구광역시
(주)라라리즈	모노웁	E-A12B-C0001000 3-A170	2017-02-22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핑크베이지	생산	대구광역시
(주)라라리즈	매직블랙	E-A12B-C0001000 2-A170	2017-02-22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블랙	생산	대구광역시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주)라라리즈	다크브라운	E-A12B-C0001000 1-A170	2017-02-22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다크브라운	생산	대구광역시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오렌지	E-A12B-A0004000 7-A170	2017-08-02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오렌지	생산	서울특별시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리얼레드	E-A12B-A0004000 6-A170	2017-02-23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레드	생산	서울특별시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푸어블랙	E-A12B-A0004000 5-A170	2017-02-23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블랙	생산	서울특별시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딥그레이	E-A12B-A0004000 4-A170	2017-02-23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그레이	생산	서울특별시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초코브라운	E-A12B-A0004000 3-A170	2017-02-23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초코브라운	생산	서울특별시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에스프레소	E-A12B-A0004000 2-A170	2017-02-23	눈썹.아이라인용,입 술용,전신용/액체형/ 딥브라운	생산	서울특별시
오가닉브릿지 주식회사	브라운	E-A12B-A0004000 1-A170	2017-02-23	눈썹용/액체형/브라 운	생산	서울특별시
청화메디칼	Balance-Choco Brown	E-A12B-A003001- A160	2016-07-11	눈썹용/에멀션형/초 코브라운	생산	서울특별시
비엔미	Hazelnut(9760)	E-A12B-A002003- A160	2016-07-06	전신용/액체형/열은 갈색	생산	서울특별시
비엔미 아카데미	Camouflage2(9711)	E-A12B-A002002- A160	2016-07-06	전신용/액체형/누드 베이지	생산	서울특별시

기업명(생산/수입)	모델명(제품명)	자가검사번호	성적서(증명서) 최초 발급일	제품 용도 및 제형	구분(생산/수입)	생산(제조)국
비엔미 아카데미	Camouflage1(9700)	E-A12B-A002001-A160	2016-07-06	전신용/액체형/살색	생산	서울특별시
한 코스메틱	905	E-A12B-A001001-A160	2016-07-05	전신용/액체형/살색	생산	서울특별시
㈜더스탠다드	코티아 06호 화이트	H-A12B-A001003-A170	2017-03-07	눈썹,아이라인용,입술용,전신용,에멀전형,화이트	생산	대한민국
㈜더스탠다드	코티아 02호 브라운	H-A12B-A001002-A170	2017-03-07	눈썹,아이라인용,입술용,전신용,에멀전형,브라운	생산	대한민국
㈜더스탠다드	코티아 01호 블랙	H-A12B-A001001-A170	2017-03-07	눈썹,아이라인용,입술용,전신용,에멀전형,블랙	생산	대한민국

부록 2. 의료용 체내 표시기(문신기) 자료

<부표 2-1> 의료용 체내 표시기(문신기)

업소명	허가일자	모델명
봄텍전자㈜	2008-06-02	DIGITAL-POP DIAMOND
(주)조이스메디칼	2018-08-27	CHOICE외 4건
(주)은성글로벌	2004-05-27	ESK-2529SGA
(주)피에이치	2013-10-11	A-ble외 1건
(주)미로	2017-11-16	M-MC-V1
뷰티타투몰	2017-08-25	KW-C
셀킨테크	2016-08-01	MISS MITO
뷰티타투몰	2017-08-25	RV-T
봄텍전자㈜	2008-06-02	DIGITAL-POP DIA.
성지아이비팜성남공장	2017-06-22	ELLENA Premium
주식회사인스타메디칼	2017-06-22	INNSTAR-PRO
성지아이비팜성남공장	2017-06-22	ELLENA Classic
(주)케이피아이헬스케어코리아	2015-02-26	OPALIOS
(주)로맥스이엔티	2016-03-29	INNSTAR-PRO
(주)다올메드	2013-07-09	PERMENART
(주)케이피아이헬스케어코리아	2015-02-26	IRIS
(주)씨엠디아이	2017-02-22	S-Type외 1건
(주)알스헬스케어	2010-04-27	SMART PLUS
(주)비즈엔폴드	2016-11-16	CLIKINS
에스엔티메디컬	2014-07-14	Conture-Liner Starter Korea
셀킨테크	2016-08-01	MISS MITO
(주)제이투	2015-09-22	EROOMi외 3건
에스엔티메디컬	2014-07-14	Conture-Liner-Duo Korea
크로스메드	2016-06-13	ArtWave Pro
(주)은성글로벌	2004-05-27	ESE-2529SGA
(주)피에이치	2013-10-11	MIGHTY
(주)피에이치	2013-10-11	PICASSO외 1건
(주)은성글로벌	2004-05-27	ESE-2533SGS
봄텍전자㈜	2008-06-02	DIGITAL-PEN-R
봄텍전자㈜	2008-06-02	DIGITAL-HAND-R외 1건
(주)우리메카	2011-03-11	DMD-T
(주)우리메카	2011-03-11	K.RIA-S
(주)우리메카	2011-03-11	DMD-S
(주)알스헬스케어	2010-04-27	FOX5
성윤테크	2011-08-19	SY-423L외 6건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MEDITOUCH CLASSIC
알에스컴퍼니	2016-02-24	AG-01외 13건
크로스메드	2016-06-13	ArtLiner Premium외 1건
(주)제이투	2015-09-22	ADORA외 22건
엠펙스	2015-01-27	Bello-Mii외 3건
봄텍전자㈜	2008-06-02	BOM-I-TOUCH-R
(주)이호바이오텍	2015-03-30	YHM1000
한코스메틱	2015-08-18	Master-3000
(주)피에이치	2013-10-11	Muse외 4건

업소명	허가일자	모델명
봄텍전자(주)	2008-06-02	봄 아이터치 에스(BOM-I-TOUCH-S)
바크톤(주)	2015-04-16	Monodio외 1건
(주)호바이오텍	2015-03-30	YHM100
(주)피에이치	2013-10-11	CELL LINE EXO외 2건
크로스메드	2016-06-13	GLAMOUR
크로스메드	2016-06-13	AD-a.31-K-MP
봄텍전자(주)	2008-06-02	디지털 팝 디럭스(DIGITAL-POP DELUXE)외 1건
바드코리아(주)	2005-03-23	863017D외 7건
봄텍전자(주)	2008-06-02	봄 아이터치 알(BOM-I-TOUCH-R)
봄텍전자(주)	2008-06-02	디지털 팝 디럭스(DIGITAL-POP DELUXE)
봄텍전자(주)	2008-06-02	봄 아이터치 에스(BOM-I-TOUCH-S)
성윤테크	2011-08-19	SY-423A
(주)우리메카	2011-03-11	DMD-P
(주)우리메카	2011-03-11	DMD-H
크로스메드	2016-04-06	Digital 1000
(주)올리브인터내셔널	2015-09-02	텔리팝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MEDITOUCH CLASSIC
(주)우리메카	2011-03-11	DMD-R
조이	2015-01-12	JOY1231
봄텍전자(주)	2008-06-02	DIGITAL-HAND-W외 4건
(주)우리메카	2011-03-11	DMD-R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DB MEDITOUCH Premium
봄텍전자(주)	2008-06-02	DIGITAL-HAND-W외 3건
봄텍전자(주)	2008-06-02	ECLIPSE-PEN외 1건
성윤테크	2011-08-19	SY-423W외 1건
(주)피에이치	2013-10-11	NEW-CELL-Line외 7건
(주)알스헬스케어	2010-04-27	JKA Digital Machine외 3건
선우글로벌	2014-02-10	Derma-Pen외 4건
성윤테크	2011-08-19	SY-423Z외 7건
(주)알스헬스케어	2010-04-27	Miracle
(주)국제트레이드	2012-07-10	Conture Liner Duo
(주)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2001-03-12	16-HA-015
(주)우리메카	2011-03-11	DMD-H외 1건
(주)우리메카	2011-03-11	DMD-P
(주)우리메카	2011-03-11	DMD-P
(주)우리메카	2011-03-11	DMD-H
봄텍전자(주)	2008-06-02	디지털 팝 (DIGITAL-POP)외 1건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Crystal Premium외 4건
(주)우리메카	2011-03-11	Raffine
동방메디케어	2011-06-27	Easy Clip
(주)조이스메디칼	2012-07-26	ZX-011
하람메디칼	2012-07-17	HRD-A1
(주)메디맥스	2011-09-21	루브미아클래식외 1건

업소명	허가일자	모델명
(주)메디맥스	2011-09-21	DR.Amts
(주)디앤케이	2011-10-28	QueenSkin외 1건
항희메디컬	2015-09-15	KU-01외 2건
다숨	2010-02-02	MT-KELLY001
봄텍전자(주)	2008-06-02	디지털 프로-MPL (DIGITAL-PRO MPL)
(주)알스헬스케어	2010-04-27	FreeDT MAX외 2건
성윤테크	2011-08-19	SY-423C외 10건
선우아이앤티	2006-02-23	DrDermic
(주)우리메카	2011-03-11	Raffine
조앤박물	2011-07-26	Super Quiet
조앤박물	2011-07-26	Sterling GM
조앤박물	2011-07-26	SILVER LINE
조앤박물	2011-07-26	GALAXY
조앤박물	2011-07-26	DYNASTY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DBD-300외 1건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DBD-100
(주)알스헬스케어	2010-04-27	ALS-NEW DRAGON외 4건
크로스메드	2016-04-06	LINELLE SUPREME (DA30202KMP)외 1건
(주)메디맥스	2011-09-21	Meta-MPS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DBD-300R
선우아이앤티	2006-02-23	ESDER외 2건
선우아이앤티	2006-02-23	CARITA
선우아이앤티	2006-02-23	DR BACK 10 FNS II
디엔에이치	2010-05-31	DH-01외 5건
혼콘코리아	2011-05-25	SPEED
디엔에이치	2010-05-31	DH-T01
연세메디코스	2010-05-25	PERFECT
(주)메디맥스	2011-09-21	Luvemia외 1건
선우아이앤티	2006-02-23	ESTHER외 2건
봄텍전자(주)	2008-06-02	DIGITAL-PEN외 1건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Dr.Back 10 Story외 1건
봄텍전자(주)	2008-06-02	DIGITAL-PRO
제이더블유메디칼(주)	2004-09-07	Trimark TD 36-12외 4건
(주)메디맥스	2011-09-21	아이리스(Iris)
(주)청우메디칼	2002-03-16	CWM-1000
(주)메디맥스	2011-09-21	소프트터치(SOFT TOUCH)
봄텍전자(주)	2008-06-02	DIGITAL-HAND-M외 3건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DBD-K6800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DBD-K96
(주)메디맥스	2011-09-21	MONALISA외 18건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TTX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DBD-5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DBD-1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Multi-Perm Portable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TTL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Multi-Perm DR.
(주)메디맥스	2011-09-21	Premier

업소명	허가일자	모델명
(주)메디맥스	2011-09-21	WIN-1000
(주)동방메디컬분당지점	2012-04-06	MULTI-PERM DELUXE
(주)메디맥스	2011-09-21	CMC-10000
(주)메디맥스	2011-09-23	Mosaic
(주)메디맥스	2011-09-23	Merlin
테비코어메디칼코리아(주)	2012-02-15	C1535외 1건